

# 나가사키 순례



가톨릭 나가사키 대교구 감수



## 「나가사키 순례」 마음의 여행을 한다

나가사키 대주교 타카미 미쓰아키

「나가사키의 교회들과 그리스도교 관련 유산」이 세계유산에 잠정 등록되고 그리고 188인 순교자의 시복을 계기로 나가사키를 찾아가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저 그 장소를 찾아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장소에서 시간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그 시절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여행(순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례란 모든 사람이 평화를 공유할 수 있는 세계가 온기를 기원하는 「마음의 여행」이 아닐까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의 생각일 것입니다. 나가사키는 종교적 박해의 일파 중 여러 고난을 겪은 땅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왜 고통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이와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가사키 순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여행입니다. 확실히 나가사키의 가톨릭 역사는 그와 같은 「값진 순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풍성한 마당」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순례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그 사람은 불교도)이 「성당을 찾아온 사람들이 내가 만든 것을 사주는데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위해서 꼭 사례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왔습니다.

어느 순교자의 자손인 신부는 호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유대인을 학살한 박해자와 동석한 그리스도교 성직자들의 사진을 보고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면서 바리를 숙였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나가 모두 사이 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갖은 사람들이 공생하는, 같은 길로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감히 「짐이 되는 유산」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죄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사키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순례자인 것입니다.

교황님이 살고계신 로마,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 12사도의 성 야곱이 묻혀있는 산티아고, 성모님이 발현한 「과다루피」「루르드」「파리마」…… 「나가사키」는 이 세 세계에서 유명한 순례지여 펼쳐하는 부활과 평화의 고장입니다. 이곳에서 발신하는 메시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마음가짐이 되어있으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있는 순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이란 빛을 본다고 쓴다」라고 어느 사회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마음의 등불 일련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관광도 순례도 지향하고 있는 것은 같기에 말입니다. 마음속에 스며들었던 것을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만이 궁극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의 여행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사람들을 순례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꼭 무언가 필연적인 것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선도가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함께 나가사키 순례를 떠나 주십시오.



## 차 례

「나가사키의 성당군과 기독교 관련 유산」의 의미 「長崎の教会群とキリスト教関連遺産」の意義	4
나가사키의 성당군과 기독교 관련 유산 長崎の教会群とキリスト教関連遺産	6
나가사키 기독교 역사지도 長崎キリスト教歴史地図	8
한국~나가사키 교통편 韓国~長崎交通アクセス	10
나가사키시 순례 長崎巡礼	NAGASAKI 12
히라도·사세보 순례 平戸・佐世保巡礼	HIRADO・SASEBO 24
오무라 순례 大村巡礼	OMURA 34
세이히반도 순례 西彼半島巡礼	SEIHI 40
고토열도 순례 五島列島巡礼 下五島	SHIMO-GOTO 48
고토열도 순례 五島列島巡礼 上五島	KAMI-GOTO 56
시마바라 반도 순례 島原半島巡礼	SHIMABARA 66
아마쿠사 제도 순례 天草諸島巡礼	AMAKUSA 74
가톨릭 나가사키대교구 인증 고토순례수첩 カトリック長崎教区認証 五島巡礼手帳	81
고토순례란	82
고토순례수첩	83
한국-일본 가톨릭 교회사 연표	84

## 「나가사키의 성당군과 기독교 관련 유산」의 의의

일본국내 가톨릭 교회의 1할 이상이 나가사키현 내에 있다(나가사키 133/일본993 ※가톨릭 교회 현세 2012년). 이 숫자는 나가사키현의 「보기드문 그리스도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에도시대 나가사키현이라는 좁은 지역에 바쿠후직할령과 5개의 다이묘영지(히라도, 오무라, 시마바라, 고토, 나베시마(이사야야-후카보리))가 있었다. 그 가운데의 오무라영 초대영주의 아버지 오무라 스미타다는 전국시대 말기 주변 영주들이 전투로 세월을 보낼 때 가톨릭을 받아들여 나가사키현 가톨릭 교회의 원점이 되었다.

### ○ 선교시대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에 온 예수회(1534년 설립)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가 1549년 규슈본토의 남쪽 가고시마에 상륙하면서 일본에서의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 해 하비에르는 규슈의 북서쪽에 있는 히라도섬(나가사키현)에 기항한 포르투갈 무역선을 찾았다. 히라도 영주는 무역 우선이고, 영지 내 불교세력의 저항도 강하였기 때문에 예수회 선교사는 히라도영과 이웃한 오무라영 영주 오무라 스미타다와 교섭하여 요코세우라라는 곳에 1562년 새 무역항을 만들었다.

스미타다는 다음해 일본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영주(기리시탄 다이묘)가 되어 선교에 협력하고, 작은 나라의 영주로서 마음을 하나로 하여 체제를 굳히고, 주변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영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겠지만 자신이랑 주민의 일체 개종을 하여, 1582년 기록에서 일본에 15만명의 가톨릭신자가 있는데 7만명은 오무라 영내 주민이라고 했다. 영주가 세례를 받은 아리마 영내(시마바라 반도)에도 2만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었다. 그리고 원래는 오무라 영내에 있었고, 후에 바쿠후 직할영이 되는 나가사키는 무역의 도시(1570년 개항)그리스도교 신자의 도시로 번영하였다.

얼마 안있어 예수회 이외의 수도회도 차츰차츰 일본에 들어오게 되어 나가사키를 선교 거점으로 일본의 그리스도교 신자는 증가하여 갔다.

### ○ 박해시대와 잠복시대

그러나 전국시대를 끝내고 나라를 통일한 위정자(에도바쿠후)는 증가한 그리스도교 신자(가톨릭)를 큰 세력으로 보고 위협으로 받아 들었다. 그래서 1614년에는 금교령(그리스도교에 대한)을 내리고 사제와 주요한 일본인 가톨릭 신자를 국외로 추방하고, 국내에 남아있던 사제와 신자를 막다른 곳까지 몰아붙이고 종교를 버리지 않는 자는 처형하였다.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많이 살고 있는 오무라·시마바라와 직할영의 나가사키 등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자는 엄한 단속을 받고, 처형되고 순교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는 마음속으로부터 「하느님」을 지위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사제를 잃고 초상뵈기를 하여 겉으로는 불교도로서 생활하면서도 감시의 눈이 먼 곳에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몰래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세례를 받고 기도(오라쇼)를 계속 바쳤다. 그 가운데서도 우라카미나 소토메의 공동체는 200여년을 기다리던 고향을 들어주는 사제가 다시 돌아와 준다고 하는 예언을 믿고 《마음(신앙심)》을 감추고 있었다. 이 무렵 일본은 유럽의 나



라로는 네덜란드하고만 격리된 공간인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곳에서 무역을 하고, 그 외에는 굳게 채국을 하고 있었다.

### ○ 부활시대

이후 200여년의 시간이 흐른 에도시대 말에 미국 등으로부터 문호개방을 요구받은 일본은 쇄국정책을 풀었다. 나가사키에서는 데지마 밖에 외국인 거주지가 생기고 외국인을 위한 교회당도 프랑스인 사제에 의하여 세워졌다.

이 천주당에 사제를 기다리며 200여년을 지낸 7대째의 자손들이 찾아와 프랑스인 사제와 대면하느로서 《예언》이 실현된다. 신앙을 지켜온 자손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던 프랑스인 사제에게도 이 사건은 (후에 《신도발견》이라고 부르게 되는) 큰 기쁨이었다. 그 후각지에서 몰래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사제를 찾아오고, 사제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잠복시대의 신앙형태를 고치고 가톨릭 신자로 되어 갔다.

그러나 에도바쿠후와 그 후의 메이지 정부도 그리스도교에 대한 금교 정책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임을 공표한 신도들은 대량으로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은 비인도적이라고 여러 외국으로부터 비판받은 메이지 정부는 금교정책에 대한 태도를 고치게 되었고 신앙을 묵인하게 된다.

### ○ 신앙의 유산

가까스로 실질적인 신앙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결코 가질 수가 없었던 기도의 집 《교회당》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취락에 세워졌다. 지금 나가사키현에 있는 교회당의 거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역사를 갖는 취락에 있고, 그와 같은 신앙의 역사를 갖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다. 크든 작든 신앙의 역사의 무게는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다.

「나가사키의 성당군과 기독교 관련 유산」은 세계유산으로의 등록을 지향하고 있다. 추천되고 있는 10곳의 교회당에서 400년 신앙의 역사를 짊어지고 온 사람들의 숨결을 느껴주기를 바란다. 에도시대 잠복기리시탄들이 위협을 무릅쓰면서 지키며 계승하여 온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한없이 매우 어려울런지 모른다. 그러나 현관에서 옷깃을 여미고 예절바르게 문을 두드리면 그 안 깊숙한 곳에 있는 많은 성당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만난 사람들은 손과 손을 맞잡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기 시작할 것이 틀림없다.

# 세계유산후보

## 「나가사키의 성당군과 기독교 관련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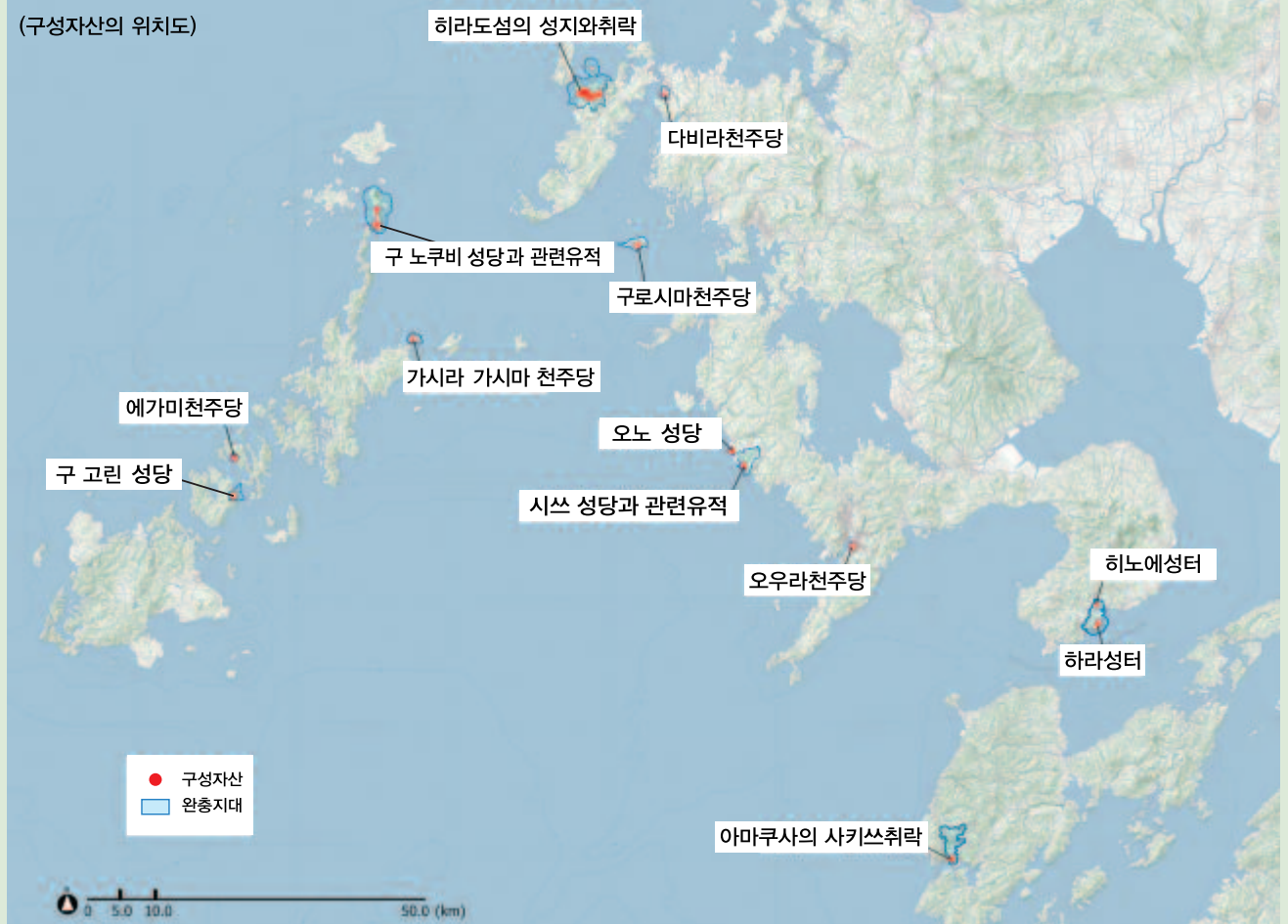
### 세계유산등록 추진

대항해시대의 1549년, 예수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 의하여 그리스도교는 일본에 전하여졌습니다. 다음해 1550년 나가사키·히라도섬을 시작으로, 1563년에는 사마바라 지방으로, 그리고 아마쿠사 지방에는 1566년에 전하여졌습니다.

일본에서의 그리스도교 역사는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니었고, 16~17세기의 「전래와 번영」, 그 후에 17~19세기의 「탄압과 잠복」 시대를 맞았습니다. 19세기의 일본개국을 계기로 1865년 나가사키의 잠복기리시탄들이 오우라천주당에서 사제에게 신앙을 고백한 「신도발견」 이후 신앙이 인정 되어갑니다. 그후 그리스도교의 금교하에서 신앙을 지켜온 취락에는 신앙 계승의 증거로 많은 교회당(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나가사키의 성당군과 기독교 관련유산」은 일본에서 450년 이상에 걸친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침투라고 하는 세계에서 그 예를 볼수없는 독자 과정을 나타내고, 13곳의 사적이라던가 성지와 취락 그리고 성당군을 구성자산으로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그리고 관계되는 시와 마을은 이 귀중한 유산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미래로 계승하여 가기 위하여 「세계유산」으로 등록할 것을 지향하고 「신도발견」 150주년 이 되는 2015년에 등록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나가사키현 세계유산등록 추진실  
〒850-8570 나가사키시 에도마치 2-13 TEL 095-894-3171  
HP : [http://www.pref.nagasaki.jp/s\\_isan/](http://www.pref.nagasaki.jp/s_isan/)



### 나가사키시



오우라 천주당      시쓰교회당과 관련유적      오노 성당

### 사제보시



구로시마 천주당

### 히라도시



히라도섬의 성지와 취락



다비라 천주당

### 고토시



구 고린 성당



에가미 천주당



히노에 성터

### 미나미 시마바라시



히라성터

### 오지카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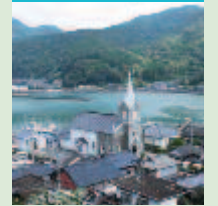
구 노쿠비 성당과  
관련유산

### 신카미고토초



가시라가시마 천주당

### 아마쿠사시



아마쿠사의 사키쓰취락

# 나가사키 기독교 역사지도

長崎キリスト教歴史地図

- 1550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히라도(平戸)에서 선교를 시작.
- 1609년 가스팔 니시, 구로세의 쓰지(쓰지로)에서 순교.
- 1622년 가미로 콘스탄치오 신부, 화형으로 순교. (야이자 순교지)
- 1622년, 1624년, 나카에노 섬(中江ノ島)에서 순교.

- 1563년 요코세우라(横瀬浦)에서 오우라 스미타다(大村純忠)가 세례를 받아, 일본 첫 크리스찬 영주가 됨.

- 1879년 드로 신부, 소토메(外海) 지구에 부임.
- 1617년 ~ 1622년까지 선교사들을 오우라 스타타(大村・鈴田) 옥사에 유치.
- 1657년 오우라(大村)에서 일어난 '고오리박해'로 이듬해, 131명의 가톨릭 신자가 호코바루(放虎原)에서 참수 당한 유체는 머리와 몸통을 나눠 매장함.
-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명령으로 니시자카(西坂)에서 26성인 순교.
- 1618년 이후, 니시자카(西坂)에서 400명 남짓의 순교 기록과, 고려인(조선출신) 순교자의 기록이 있다. (일본 26성인 순교지)
- 1610년 고려인(조선출신) 이 성 로렌스 성당을 건립.
- 1864년말 오우라 천주당 완공.
- 1865년 3월 17일 오우라 천주당에서 '신자발견'
- 1867년 우라카미 마을에서 가톨릭 신자 포박사건이 일어남. (우라카미 네 번째 박해)

- 1614년 아담 아라카와, 아마쿠사(天草) 지방에서 최초의 순교자.
- 1630년 60세의 고려인(조선출신) 바오로가 순교.

- 1566년 알메이다 수도사 고토열도에서 선교를 시작.
- 1797년 소토메(外海)에서 고토(五島)로 개척 이주민 무카타(六方)에 상륙.
- 1868년 11월 크리스찬 동굴에서의 박해 (고토박해)
- 1868년 11월 히사카 섬(久賀島) 박해 시작. (고토박해)
- 1870년 다이노우라(鯛ノ浦) 다카노스(鷹ノ巣) 6명 참살.

- 1567년 ~ 1582년 구치노쓰(口之津)에 포르투갈의 무역선 입항.
- 1613년, 아리마의 히노에 성(日野江城)의 아래에 아리마 강에서 세 가족이 순교. (아리마 순교지)
- 1614년 구치노쓰(口之津)에서 2명의 고려인(조선출신) 미겔과 베드로가 순교.
- 1625년 고려인(조선 장군의 아들) 비센티 가운(권)은 구치노쓰(口之津)에서 붙잡혀, 시마바라 성(島原城)의 옥사에 투옥. 이듬해 (1626년) 니시자카(西坂)에서 순교.
- 1627년 시마바라 성(島原城) 근처에 있는 바다에서 5살의 아이를 포함한 가톨릭 신자가 순교. (시마바라 순교지)
- 1627년 ~ 1631년, 운젠지옥에서 가톨릭 신자에게 고문과 순교. (운젠지옥 순교지)
- 1637년 시마바라(島原) 아마쿠사(天草)의 농민의 반란이 일어남.
- 1638년 하라 성(原城) 총공격으로 반란군 30,000여명이 전사.



# 한국~나가사키 교통편

## 1 한국~나가사키 (항공편) 진에어



서울 발 → 나가사키 착	요일
08:30 09:50	수,금
17:10 18:30	일

## 3 부산~하카다(후쿠오카) (선편)

JR 규슈고속선,미래교통,대야고속해운,카멜리아 라인,운행중

## 4 하카다항~고토-후쿠에항 (페리 다이코마루)



하카다항 → 우쿠 → 오지카 → 아오카타(가미고토) → 와카마쓰(가미고토) → 나루(고토시) → 후쿠에(고토시)
23:30 03:55 04:40 06:00 07:10 08:10 09:00

## 5 후쿠오카~나가사키-사세보 (JR 철도)



카모에고 (후쿠오카~나가사키)	소요시간	한시간에 한편
미도리고 (후쿠오카~사세보)	소요시간 1시간 50분	한시간에 한편

## 6 후쿠오카 국제공항~나가사키-사세보 (고속버스)



규슈고 (후쿠오카 국제공항~나가사키역전)	소요시간	한시간에 한편
사세보고 (후쿠오카 국제공항~사세보역전)	소요시간 1시간 40분	한시간에 한편

## 7 후쿠오카 공항(국내선)~후쿠에공항(ORC)



후쿠오카 발 → 후쿠에 착
08:50 09:30
12:25 13:10
16:45 17:30
17:40 18:20

## 9 나가사키항~후쿠에항(고토열도) 규슈상선



제트포일	소요시간
나가사키항→후쿠에항 (고토시)	90분
후쿠에항→나라오 항 (신카미고토초)	30분

## 페리

나가사키항→후쿠에항	소요시간 3시간 10분
후쿠에항→나라오 항	소요시간 1시간

## 2 한국~후쿠오카 (항공편)

KE:대한항공, OZ:아시아나, BX:에어부산  
TW:티웨이 (항공/항공), 7C:제주항공



서울 발 → 후쿠오카 착	부산 발 → 후쿠오카 착
08:00 09:20 KE	09:15 10:05 KE
09:10 10:30 OZ	10:00 10:50 BX
10:05 11:25 TW	17:55 18:45 KE
14:00 15:20 OZ	18:00 18:50 BX
14:05 15:25 KE	
15:30 16:45 7C	
17:00 18:20 OZ	
18:35 19:55 KE	

## 8 나가사키 공항~후쿠에 공항 (ORC)



나가사키 발 → 후쿠에 착
09:35 10:05
10:15 10:45
14:35 15:05

## 10 나가사키항~다이노우라항 (신카미고토초) 고토산업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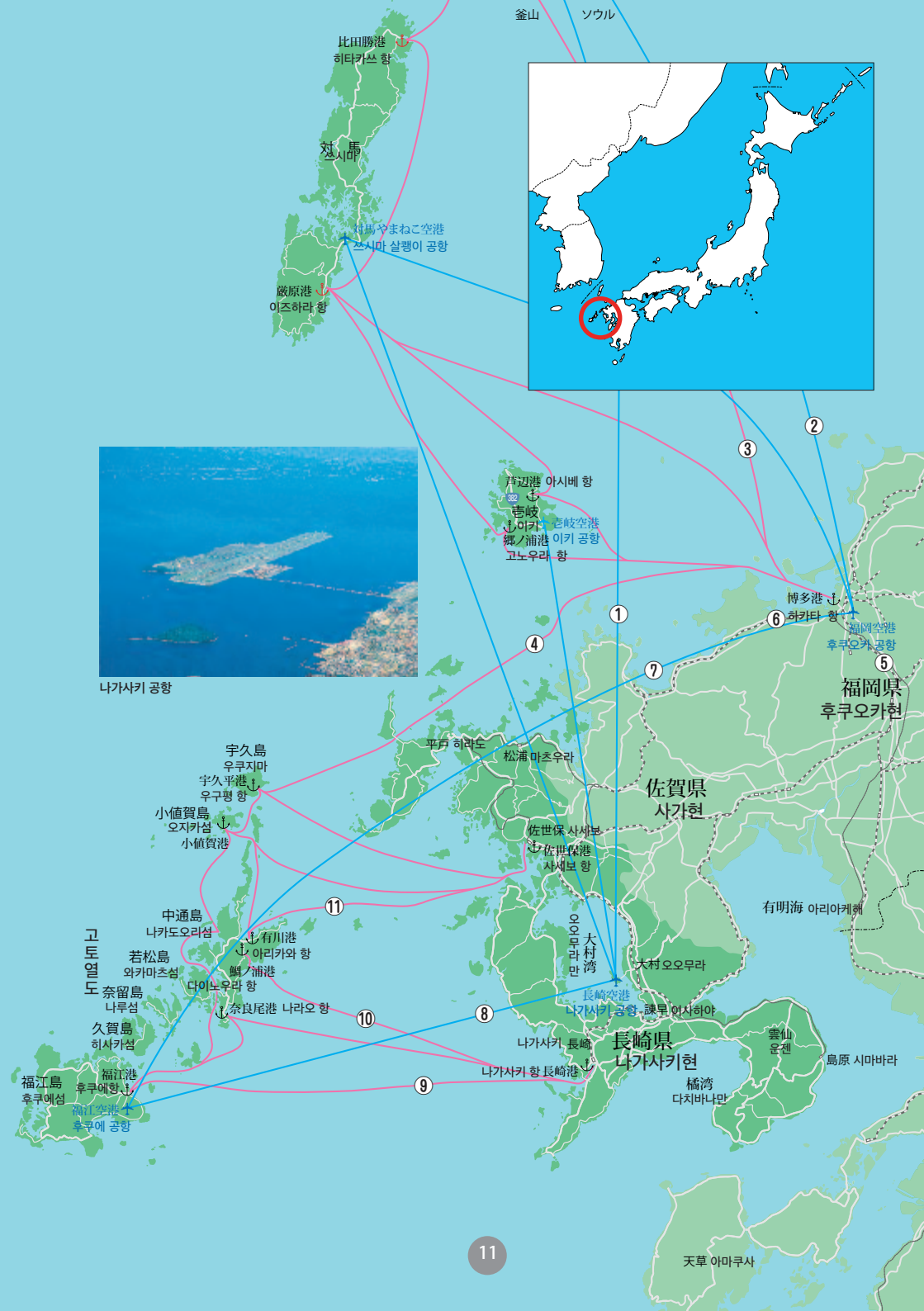
나가사키 발 → 다이노우라 착
08:00 09:40 (고속선)
13:00 14:40 (고속선)
17:00 18:40 (고속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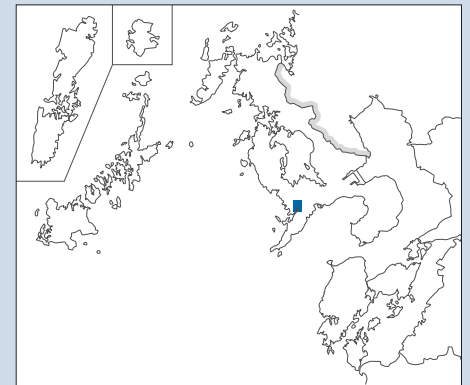
## 11 나가사키항~아리카와항 (신카미고토초) 규슈상선



사세보 발 → 아리카와 착
08:00 10:35 (카 페리)
13:45 16:20 (카 페리)
13:00 14:20 (고속선)
16:10 18:30 (고속선)

비고 1. 시간표는 2014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일에 따라 변경이 있으므로 이용 시에는 반드시 각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2. 배의 기항지 등 자세한 정보도 각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 나가사키 시내 순례 모델 코스 VI

#### [우라카미지구]VI-①

JR 나가사키역(출발)	차	20 분 ↓	
성 마리아 당	도보	5 분 ↓	1865년 신도발견 후의 4개의 비밀 성당
성 요셉 당	도보	15 분 ↓	1865년 신도발견 후의 4개의 비밀 성당
성 클라라 당	도보	10 분 ↓	1865년 신도발견 후의 4개의 비밀 성당
성 프란치스코·하베리오 당	도보	5 분 ↓	1865년 신도발견 후의 4개의 비밀 성당
뉴코도 (나가이다카시기념관)	도보	5 분 ↓	「나가사키의 중」
우라카미 천주당	도보	10 분 ↓	주교좌성당·신앙부활의 비·피폭 마리아 상
원자폭탄 낙하 중심지	차	5 분 ↓	원폭자료관, 평화공원
산노 신사	차	5 분 ↓	피폭된 장막
사카모토 국제 외국인 묘지	차	10 분 ↓	나가이다카시 박사의 묘

#### [나가사키시 중앙지구]VI-②

니시자카 순교지	차	5 분 ↓	일본 26 성인 기념관
나카마치 성당	차	5 분 ↓	나가사키 16 성인상
나가사키역사문화 박물관	도보	1 분 ↓	산의 산타마리아 성당 터
산노·도밍고 성당터 자료관	차	10 분 ↓	사쿠라마치 소학교 내
성 골베 기념관	차	10 분 ↓	혼고치 성당 루드
고려교	차	10 분 ↓	조선출신 가톨릭 신자들의 발자취
나가사키 현청	차	10 분 ↓	꽃의 성당, 예수회 본부터
오우라 천주당	차	30 분 ↓	국보, 신도 발견
가미노시마 성당	차	40 분 ↓	바다를 바라보고 서있는 마리아님
마고메 성당	차	40 분 ↓	이오지마
JR 나가사키역(종점)			



# 나가사키시 순례



나가사키 항

## 나가사키시 기리시탄 역사

### 후쿠다우라에서 나가사키우라로

전국시대의 1549년 가고시마(鹿兒島)에 상륙하여, 일본에 기독교(천주교)의 선교를 시작한 예수회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이듬해, 히라도(平戸)에 와 나가사키현에서의 기리시탄(기독교의 크 리스찬을 의미하는 역사적 용어) 역사가 시작되었다.

예수회의 나가사키현에 있어서 선교 거점인 히라도에서 스스로 세례를 받은 일본 첫 기리시탄 다 이묘(大名/영주)가 된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의 영내의 요코세우라(横瀬浦), 그리고 스미타다의 형이 지배하고 있던 아리마(有馬)영내의 구치노쓰(口之津)에 옮겨, 1565년 포 르투갈의 무역선도 히 라도가 아닌 오무

라 영내에 있는 현재의 나가사키시의 후쿠다우라(福田浦)에 들어오게 되었다.

스미타다와 함께 세례를 받은 가신(家臣)·나가사키 진좌에몬(長崎甚左衛門)이 지배하는 나가사키 마을에도 1567년에 선교사가 구치노쓰에서 파견하여 1569년에 토도스·오스·산토스 성당이 세워졌다. 무역항으로서 소토메(外海)에 마주한 후쿠다우라 보다도 나가사키우라가 알맞아 선택하게 되었다. 1570년 오무라 스타타다가 예수회와 개항협정을 맺어, 다음해 나가사키에 포르투갈선이 입항하면서, 부두가 생기고 나가사키의 곳의 끝에는 성당이 지어지면서, 기리시탄의 마을이 만들어지게 됐다.

### 기리시탄의 안주의 땅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는 1574년에 전 영민을 기독교로 개종 시켰지만, 사가(佐賀)의 류조지 다카노부(龍造寺隆信)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스미타다는 요지의「나가사키」와 「모기」를 예 수회에 기부했다. 1584년에 시마 바라반도에서 시마즈(島津勢)와 함께 다카노 부를 공격하여, 류조지 를 퇴각시킨 아리마(有馬)는「우라카미」를 도와 주었던 예수회에 기부 하였다. 이로써 나가사키와 우라카미는 기리시 탄 역사에 깊은 관계가 있는 땅이 되었다.

류조지를 대신하여 시마즈의 세력이 나가사 키에 미처왔지만,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규슈평정에 의해 시마즈의 항복 으로 오무라 영토를 위협하는 것은 일단 없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권력통일을 목표로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리시탄에게 위협을 느 낀 나머지 선교사 추방 령을 발령하고, 예수회 의 영토를 몰수하여 막부의 직할 영지로 만들었 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무역의 이익을 우선시하 여 나가사키는 기리시탄 마을로서 존속하게 하 였다.

히데요시는 도사(土佐/시코쿠의 고치현) 앞바 다에서 조난 당한 스페인의 산펠리페호에 선교사 가 승 선해 있었다는 이유로 1597년 금지한 종교 를 알려,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 벌하려고 기리 시탄이 많이 살고 있는 나가사키에서 본보기로 사제, 수도사, 신자들 26명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순교자의 모습은 기리시탄들의 신앙을 더욱 두텁 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나가사키와 우라카미는 각지에서 배척한 기리시탄들의 안주의 땅이 되었 다. 곳의 성당은 주교좌 성당이 되고, 수도회와 신 자들이 만 든 성당군, 사제를 육성하는 교육시설, 교리서등을 만드는 인쇄소, 예수님 말씀처럼 네 이웃을 네 몸 과 같이 사랑하고 도와주는 복지사 업을 행하는 공동체도 있어 일본의 선교의 중심 이 되었다.

### 박해·잠복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徳川) 막부도 기독교 를 금지하였고, 1614년 선교사와 다카야마 우콘(高山右近)등 우두머리였던 기리시탄을 나가사 키에서 국외로 추방했다. 그 후, 1619년까지 나가 사키의 성 당을 모두 파괴하였다. 추방 후, 재잡입 한 선교사와 남아있던 선교사의 그 활동을 떠받 치는 기리시 탄들은 포박 당하여 고문을 받고, 배 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니시자카 등에서 처형 당하였다.

막부는 해외와의 유일한 창구로서 나가사키에 데지마(出島)를 만들어 쇄국체제를 갖추고 강화 시켜 후미에와 五人組(5인조: 에도시대 다섯 집 을 한 단위로 연대책임을 지게한 조직) 체도로 단 속을 철저히 하게 하였다. 이제는 나가사키는 기리시 탄의 안주의 땅이 아닌 이웃인 우라카미도 다들 바 없었 다. 그러나 그 우라카미의 기리시탄은 표 면상은 불교도를 가장하여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 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 들은 7대째 끈기있게 기 다리면 다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 는 예언을 마 음으로 희망을 품으며, 리더를 중심 으로 살아남았다.

### 부활

1853년의 미국의 함선(흑선)이 내항 후, 막부 는 미국,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와 화친조약을 맺고, 1858년 2월에 나가사키의 사무등을 담당 하는 무사가 후미에(성화밧기) 중지를 선언했 다. 그 해, 프랑스를 더하여 5개국과 수호통상조 약을 체결하여 개항하게 되었다. 이듬해, 나가 사키에 우선 개신교의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리 고 같은 해, 에도에 들어왔던 가톨릭의 파리외 국선교회가 1863년 나가사키에 두 명의 선교사 를 파송하여 외국인 거주지에 성당을 세웠다. 거기에 우라카미의 잠복 기리시탄들이 찾아와 재선교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금교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 서 우라카미의 신자가 신앙을 공표하여, 도쿠가



개의 비밀성당 옛터 ①②③④

N-1

우라카미의 신자가 처음으로 오우라 천주당을 찾아온 1865년경은, 아직 일본인이 기독교를 믿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오우라 천주당의 사체는 우라카미에서 온 4개의 비밀성당 ①쓰지마치의 성 마리아당, ②성 요셉당, ③오하시마치의 성 클라라당, ④하시구치마치의 성 프란치스코·하베리오당)에 몰래 심방하고, 은밀히 오우라에 돌아왔다. 우라카미 마을의 기리시탄은 장례식을 승려에게 요청하지 않고, 종교를 바꿈으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명한 기리시탄들이 있는 비밀성당에 나가사키 봉행소의 관리들이 침입하여 신자들을 붙잡았으므로, 우라카미 네 번째 박해가 일어났다.

신자발전 100주년 기념미사를 드릴 때, 비밀성당 옛터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帳方屋敷跡、如己堂、永井隆記念館

조카타 집 옛터·노코도·나가이

다카시 기념관

N-2

7대째에 넘어와서 우라카미의 잠복 기리시탄들을 단결시키고 지도한「조카타」라고 불리던 지도자의 집이 있었다. 그 혈통의 모리야마 미도리(森山緑)와 결혼한 나가이(永井) 박사가 노년에「나가사키 중」등을 문필한 2장의 다다미 한칸방이었던「노코도」는, 그 조카타의 집 옛터이다. 안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아르헨티나에서 보낸 루한의 성모상이 있다. 옆에는 가톨릭 신자로서「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호소하는 나가이 박사를 소개하는 기념관이 있다.



순례지·나가사키

기리시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 지켜 온 것은 무엇일까?

역사만으로는 종교의 의미까지 알 수 는 없다. 「정신의 깊숙한 곳」의 문제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삶은 보인다. 순교자들은「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돌려주지 않고, 굴욕을 설교대에 변화시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인간의 양심·존엄을 물었다. 잠복 기리시탄들은 죽음과 이웃에게 거룩한 삶으로 하느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 것을 그만두지 않고, 신앙을 전했다.

여러사람들이 살고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 온 행적이 있는 그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나가사키는 틀림없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순례지인 것이다.

와 막부에 이어 메이지 정부에 의해「우라카미 네 번째 박해」라 불리는 우라카미의 마을 사람들을 붙잡아 유배시키는 박해사건이 일어났다. 고토열도, 소토메 등에서도 기리시탄 박해가 일어나, 이러한 것들이 여러많은 나라에 비관을 당하자 신정부는 기독교를 그대로 묵인할 수 없게 되자, 1873년에 금교의 고찰을 철회하였다.

서일본 각지의 영지에 유배중이었던 우라카미의 기리시탄들은 고향에 돌아와 생활 재건보다도 먼저 성당을 지어, 신앙생활을 되찾았다. 19세기 말의 일본 가톨릭 성당은 전국에서 5만명의 신자중 그 절반이 나가사키현에서 차지하였고, 그 20%가 나가사키와 우라카미의 신자였다.

그러나, 제차 수난이 일어났다. 1945년 우라카미의 마쓰야마(松山) 마을 상공에서 원자폭탄이 작렬 하게 73,800명이 산 제물이 되었다. 그 중 신자는 약8,5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지만 남은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성당을 되살렸다. 450년 전에 전한 신앙이 줄곧 살아온 고백이 그 곳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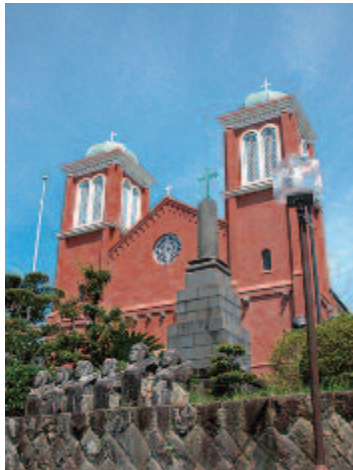
프치잔과 신도 발견

쇄국을 풀고 여러 외국과 교역하기로 한 일본에 가톨릭교회로서 최초로 들어온 것은 프랑스에 본부가 있는 파리외방전교회로 그 회원인 프치잔 신부는 1863년에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금교령 하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그리스도교 신자가 가까이에 있을 것을 바라면서 세 개의 십자가가 달린 탑과 중앙에 「천주당」이라고 쓴 현판이 걸린 교회당을 1864년 말에 완공하였더니 구경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축복식이 행하여진 1865년 2월 19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3월 17일, 보통 구경하는 사람과는 좀 다른 한 무리를 눈치 챈 프치잔 신부는 그들을 교회당 안으로 인도하였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의 한 여성이 「우리들의 마음은 당신과 같다」 「마리아상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신부에게 신앙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200년 이상 불교도로 가장하고 신앙을 지키며 고향을 들어주는 사제가 올 것을 믿고, 우라카미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신도발견」이라고 한다. 그 때는 에도바쿠후 정권하에서 아직 금교령이 풀리지 않고 있었지만 프치잔 신부는 몰래 우라카미와 기타 지역 신자들에게 사목을 시작하였다.

**우라카미 천주당 (주교좌 성당) N-3 浦上教会堂(司教座聖堂)**

기리시탄을 색출해내기 위해 후미에(성화밧기)가 실시했던 마을총장의 집터에 1895년에 벽돌로 만든 구우라카미 천주당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1914년에「원죄없는 성모」에게 드러지는 헌당식이 행하여졌다. 현재와 같이 쌍탑이 만들어진 때는, 1925년이다. 20년 후, 상공에서 작렬한 원자폭탄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신자들이 그 해의 12월24일 기와와 자갈등 속에서 파내어 찾은 큰종을 울리고, 이듬해, 12월 신자들은 생활 재건보다도 먼저 임시성당을 지었다. 1959년 본격적으로 콘크리트로 만든 신성당을 지어, 1962년 주교좌 성당은 오우라 천주당에서 우라카미 천주당 (카테드랄)으로 바뀌게 되었고, 1980년 교황요한·바로로2세가 내일(來日) 전에, 벽돌 타일을 붙히게 되었다. 부지 내에는「우라카미 네 번째 박해」라고하는 박해사건으로 신자들을 각지에 유배시킨 50주년을 기념한「신앙의 비」, 유배처의 하나·짜리로 사용한 고문돌, 구우라카미 천주당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복석상, 이탈리아의 가톨릭 의사회에서 보내준 성모상, 병상에 누워있던 나가이 (永井)박사가 평화의 상징으로 우라카미소교구에 기증한 뱃나무(1,000그루) 일부, 왼쪽에 인한 맹렬한 폭풍으로 날아간 종루와 니시자카(西坂)의 형상에 향한 도중에 근처를 왕래한 26성인의 한 사람 루도비코 이바라기(茨木) 소년의 상 등이 있다.



**우라카미의 피복마리아 상 浦上の被爆マリア像**

구우라카미 천주당의 정면에 목조의 마리아 상(원죄 없으신 성모마리아, 스페인제)이 높이 내걸려 있지만, 왼쪽으로 파괴된 천주당의 와락 속에서 다시 놓린 마리아상의 머리부분을 기적적으로 발견한 사제에 의해, 훗카이도의 수도원에 옮겨졌다. 피복 30주년을 맞아 마리아상을 우라카미 천주당으로 다시 가져왔고, 피복 60주년 기념으로 2005년에 개수된 소성당에 안치되었다. 2010년 평화의 사자로서 가톨릭 나가사키대교구의 다카기 대주교에 의해, 스페인의 게르니카와뉴욕의 국제연합등에 통해 운반했다.



**原爆投下中心地公園 (旧浦上教会堂被爆遺構)**

**원폭낙하중심지 공원 N-4 (구우라카미 천주당 피복유구)**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일본 기독교 선교 400년을 기념하여, 1949년 신부의 「성팔」과 교황 특사가 내일(來日) 할 때에 와락 속에 남아있던 우라카미 천주당의 좌측면의 벽이 내외 20,000명의 신자가 참렬한 야외 미사의 제단으로 사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4년째에 성당 재건할 때, 벽의 일부가 원폭낙하중심지 공원에 이축 보존하게 되었다. 유구의 위에는 신기하게도 왼쪽의 하비에르상이 서 있다.



**山王神社(サン・ラザロ病院跡) 산노 신사 (성 라자로 병원 옛터) N-5**

소노기(彼杵)에서 오무라만(大村灣)을 건너와 도기쓰에 상륙한 26성인은 니시자카(西坂)의 형장까지 걸어가는 도중, 병원에 들렀다. 거기에 부속의 성당에서 두 사람의 일본인이 예수회에 입회하여 수도사가 되었지만, 니시자카에서 순교하였다. 17세기, 우라카미의 예수회가 경영하는 병원이 있었던 장소는 지금의 산노 신사에 위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왼쪽으로 파괴된 한 기둥의 도리이 (신사 입구에 세운 두 기둥의 문)와 피복 큰 뽕나무가 있다.



**坂本國際墓地(永井隆博士の墓) 사카모토 국제묘지(나가이 다카시박사의 묘) N-6**

1888년에 오우라 국제묘지가 폐쇄된 후, 사카모토 국제묘지가 개설되었다. 영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등 여러나라의 국적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 여기에는 의학 박사 가톨릭 신자인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병상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수 많은 훌륭한 저서를 남기고 1951년에 사망한 나가이 다카시(永井隆)박사와 피복으로 죽은 미도리(緑) 부인의 묘가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 검거사건 「우라카미 쿠주레」(우라카미 박해)**

「쿠주레」란 일본 그리스도 교회사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자 일제 검거 사건을 말한다. 17세기 초 우라카미 마을은 나가사키 시내와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교 교우촌이었다. 유럽으로 보낸 보고서 가운데에는 1614년 도쿠가와 바쿠후에 의하여 금교령이 내리면서부터의 우라카미 신자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우라카미의 신자들이 신앙을 버린다고 선언한 것 같다. 그러나 마음 속의 《하느님》에게 그들은 신앙을 버린 것을 사죄하고 용서를 빌며 불교도로 가장하고 비밀 공동체를 만들어 신앙을 지켜오고 있었다.

이러한 우라카미 마을에서 네차레의 쿠주레가 일어났다. 1790년 절에 내는 기부를 우라카미 마을 사람 대다수가 거부한 데서 일어난 《우라카미 첫 번째 쿠주레》, 1839년 신앙을 버린 사람의 밀고에 의하여 일어난 《우라카미 두 번째 쿠주레》, 1856년 밀고에 의하여 검거되어 심한 고문을 받은 우라카미 잠복키리시탄의 최고 지도자 《쇼가다》가 옥사한 《우라카미 세 번째 쿠주레》, 그리고 1867년 《우라카미 네 번째 쿠주레》가 시작되었다.

1865년에 오우라의 천주당을 찾아가 신앙부활을 한 우라카미의 마을사람들이 아직 금교령이 풀리지 않은 1867년, 장례식에 승려를 부르지 않고 가톨릭신자임을 공표한데서 도쿠가와 바쿠후를 쓰러트리고 정권을 잡은 메이지정부가 1870년 서일본 각지로 우라카미의 주민 3000여명을 유배시킨 대 사건이다. 우라카미 이외의 그리스도교 신자의 교우촌에서도 같은 모양의 검거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비판받은 메이지 정부는 그리스도교를 금한다고 하는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하여 1873년에 우라카미의 주민들은 해방되어 유배지에서 황폐하여진 땅으로 돌아와 힘들게 겨우 얻은 신앙의 자유의 증거로 성당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長崎県庁(島の教会跡)

**나가사키 현청(곶의 성당 옛터) N-11**

곶에 기리시탄 마을 끝에 작은 성당이 세워지면서, 신자의 증가로 개축을 반복하였다. 선교사 추 방령이 내려진 후, 나가사키는 막부의 직할 영지가 되어버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령으로 증축중에 있는 성당을 규슈 사가현의 나고야(九州佐賀県名護屋)에 해체 이축을 시켰다. 이듬해, 1593년 허가가 나와, 성당이 재건되어, 1601년에 큰 성모승천 성당이 세워졌다. 후에, 성루가 생겨, 3개의 종과 큰 시계가 설치되었다. 사제관, 예수회 부분, 신학교, 인쇄소등이 있었으며, 반드시 일본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필요로 했었다.

**본河内教会堂·本河内ルルド·聖コルベ記念館 N-13**

**혼고치 성당·혼고치 루르드·성 콜베기념관**

히코산(彦山) 산기슭에 있는 혼고치의 끈뽀두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1930년 폴란드에서 나가사키로 온 콜베 신부가 오우라(大浦)에서 옮겨져 1931년에 목조 서양관에 성모의 기사 수도원을 열어 인쇄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기관지「성모의 기사」를 통해서 일본인에게「무원죄 성모의 기사」를 1만 부를 발행해 널리 알려, 관할 구역의 모체가 되었다.

콜베신부가 발견한 뒷산에 있는 동굴에 신부가 귀국 후, 1932년에 루르드가 개설되었다. 성 콜베기념관은 조국을 점령한 나치스에 의해 순교하여, 1982년에 고향요한·바오로2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된 콜베신부와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을 위해 일본 전국을 뛰어다니며 노력한 제노 수도사의 공적을 소개하고 있다. 제노 수도사가 신부를 위해, 만든



목제 책상은 청빈한 생활에서 활동한 당시를 느낄 수 있는 물건이다.



산토·도밍고教会跡資料館(桜町小学校内)

**산토·도밍고 성당 유적지 자료관 N-10**

1602년에 가고시마의 고시키지마(甕島)에 들어가, 선교를 시작한 도미니코회의 모랄레스 신부가 사쓰마센다이(薩摩川内) 영지의 박해에 의해, 교도마리(京泊)에 있었던 성당을 해체하고 그 목재를 1609년 배로 나가사키로 옮겨, 나가사키 지방관의 기리시탄 무라야마 도안(村山等安)으로부터 기증 받은 토지에 재건하였다. 1614년 금교령에 의해, 파괴 되어버린 성당은 그 후, 나가사키 지방관의 저택이 되었지만, 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때, 성당시대부터의 유구가 발굴되었다.



**고려교 N-12**

高麗橋

야하타마치(八幡町)는 원래는 신카미야마치(新紙屋町)라고 칭하였는데, 1680년 야하타 신사를 받들어 모시게 되자 개칭하게 되었다. 신사의 옆에는 야하타마치 성당이 있다. 나카시마 강(中島川)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기슭으로 이세마치(伊勢町)는 원래는 신고리마을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침략으로 일본에 끌려가 노예생활을 하다가 세르제이라 주교의 인신매매 금지 명령으로 해방된 조선인들이 모여살면서 1610년에 그들이 성 로렌소 성당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한다. 두 개의 마을 사이에 있는 다리는 메이지 이후, 고려교라고 이름 붙였다.

西坂殉教地

**니시자카 순교지 N-7**



니시자카(西坂)는 일본에 있어서 나라의 명령에 의해 처형된 최초의 가톨릭 신자의 순교지이다. 에도시대 초기(1603~) 많은 가톨릭 신자가 처형되었다. 최초로 처형된 26인의 순교자는 1862년에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1864년 외국인 거류지에서 성지 니시자카에 향해 일본26성인순교자'오우라 천주당이 지어졌으며, 26인 순교자가 시성된지 100주년 기념비와 기념관 및 성당이'성지 니시자 카'에 세워졌다.

**니시자카 최초의 순교자「일본 26 성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6년 토사(고치현)에 스페인 무역선 산·페리페호가 표착했을 때 그 선박에 실린 막대한 화물을 몰수하고, 1587년에 발령한 금교령(일본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증가한 것을 위구한 히데요시는 선교사를 국외로 추방하는 명령을 1587년에 내렸다)을 재시행하여 공공연히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와 일본인 그리스도신자의 처형을 명하였다. 교토·오사카에서 24명을 체포하여 그리스도신자가 가장 많은 나가사키까지의 900여km의 길을 연행하였다. 도중에 2명이 더하여져 26명이 1597년 2월 5일 나가사키 니시자카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되었다. 히데요시의 생각은 빗나가서 그리스도교 신자의 신앙심은 더 높아졌고, 이 순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선교사가 처형된 사건이고 또한 26인은 금교령에 의하여 처형된 처음 《순교자》였다.

이 순교를 지켜보고 있던 포르투갈 사람은 언젠가는 26순교자에게 바치는 성당을 이곳에 세우겠다고 원하였고, 순교에서 265년이 지난 1862년에 순교자는 로마에서 시성되었다. 다음해 나가사키에 부임한 프랑수아 사제는 1864년 말 외국인 거류지가 있는 오우라에 26성인에게 바치는 성당을 세웠다. 금교령 아래에서는 거류지에서 먼 순교지에 성당을 세우는 것은 아직 불가능한 때였다.

中町教会堂

**나가마치 성당 N-8**



시마우치 요스케(島内要助) 신부는 점점 증가하는 신자들을 위해 성당건축을 계획하고 있었다. 많은 신자들이 투옥된 사쿠라마치 옥사였던 옛터에 건축할 예정이었지만, 구입할 수 없어, 일본 최초의 천주교 신자였던 다이묘(영주)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의 연고가 있는 오무라 영지의 창고 가 있던 곳에 터를 찾아 성당을 짓기로 했다. 스미타다의 아들·요시아키(喜前) 영주의 오무라 한 저택터에 익명의 프랑스의 어느 여성의 기부(그 당시의 약18만프랑)에 의해 1896년 장엄한 성당을 건립하였다. 1945년8월9일 원폭투하로 인해 외벽과 첨탑만 남기고 모두 도괴되어 버리지만, 1951년 철탑과 외벽을 살려서 신자들이 수작업으로 다시 재건하였다. 현재 나가사키 16성인이 주보성인 이다.



長崎歴史文化博物館(山のサンタ・マリア教会堂跡)

**나가사키 역사·문화 박물관 N-9**

**산의 산타·마리아 성당**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다테야마(立山)의 산기슭에 언제 건립이 되었는지 불명하지만, 성모 마리아의 후보 성인이었던 작은 성당이 있었다. 1601년에 신자를 늘리기 위해 크루스(십자가) 마을에 있던 묘지가 성당의 가까운 곳에 옮겨지면서, 마을에서 묘지까지 포석으로 깔았다고 한다. 1603년 신자의 기부로 큰 성당으로 새로 재건되었지만, 1614년에 파괴시킨 후에 봉행소가 자리잡게 되었다.

순교자 성 콜베 신부

콘벤투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설립자로 폴란드 사람인 맥시밀리아노·마리아·콜베 신부는 1930년 일본에서 선교하기 위하여 나가사키에 상륙하였다. 오우라 천주당 근처의 집에서 폴란드에서 창간한 「성모의 기사」 일본어판을 1개월 후에는 출판하였고, 다음해 나가사키 시내 끝자락에 있는 혼고치에 수도원을 개설하여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원죄없으신 성모를 믿는다》는 것을 전도하였다. 1936년에 폴란드로 귀국하였는데 1939년 나치스 독일의 침공을 받고, 콜베신부는 반나치스로 체포되어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탈주가가 생기자 본때로 아사형을 받게 된 남성을 대신하여 지하실에 갇힌 신부는 주위의 수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며 조용하게 살다가 3주 후인 1941년 8월 14일 독살 당하였다. 이름도 모르는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랑의 순교》였다.

1981년에 일본을 방문한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1982년 콜베신부를 순교자로서 시성하였다.



국보 오우라 천주당 N-14 (国宝大浦天主堂)

개국한 일본에 가톨릭로서 최초로 온 파리의국선교회가 1864년 오우라의 외국인거류지에 주보 성인인 일본 26성인순교성당을 세웠다. 프랑스 절이라고 불려, 많은 구경꾼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 우라카미의 잠복 기리시탄도 은밀히 찾아와 산타 마리아상은 어디 있는지 물어, 220년만에 사제와 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1879년에 증축하였고, 원폭 후, 보수한 성당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건축이다.

旧大司教館と旧羅典神学校

구대주교관 및 구라틴 신학교(국가지정 중요문화재)

파리의국선교회는 오우라(大浦)에서 성당을 짓기위해 매입한 토지에 우선 사제관을 지었다. 「신자발견」후, 사제관의 지붕과 천장 사이에 다락방을 만들어 잠복 기리시탄들을 숨기거나 미사를 드리며, 교리를 가르쳤다. 일본인 성직자 양성도 시작하였지만, 박해가 일어난 나머지 신학생들은 해 외로 피난을 갔다. 1866년부터는 사제관은 주교관이 되었다. 1873년에 신앙이 묵인되는지 2년 후, 주교관 뒤편에 신학교가 완성이 되었고, 1882년말, 개국 후 처음으로 3명의 일본인 성직자가 탄생했다.



가미노시마 성당 N-15 (神ノ島教会堂)

사가영지 후카호리(佐賀藩深堀領)의 가미노시마(神ノ島)는 시마바라의 난 전후의 17세기 중간쯤 되는 때에 사가 영지를 포대로 구축하기 위해 많은 인부와 막부말기등에 기리시탄들이 이주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성당은 1897년에 건립하였고, 부지내에 신자발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니시마사키치(西政吉)와 남동생과 함께 신부의 선교활동을 도운 니시 주키치(西忠吉)를 현창하는 비가 있다. 17세기 수 많은 기리시탄들이 순교한 유체가 바다밑에 가라앉은 섬이라고 기록된 다카 호코지마(高鉾島)가 있다.

이오지마 (다이묘지 성당·마고메 성당) N-16 (伊王島(大明寺教会堂、馬込教会堂))

이오지마(伊王島)는 이오지마와 오키노 섬(沖ノ島)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제쯤부터 섬에 기리시탄이 살게 되었는지는 불명하지만, 시마바라의 난 후, 1642년부터 나가사키 경비를 맡긴 사가 나베시마 영지(佐賀鍋島藩)였던 두 개의 섬에 만든 감시초소에 파병과 1657년의 오우라(大浦) 지역의 박해라고 불리는 기리시탄 박살사건이 사가 영지와 오우라 영지 등에서 기리시탄들이 이주 의 계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막부말기의 오우라 천주당에서의 신자발견 시, 두 개의 섬에 있는 기리시탄들도 신앙을 표명하여 우라카미 네 번째 박해와 이마리현(伊万里県)사건으로 포박하여 유배에 처한 기리시탄들이 있었다. 신앙이 묵인되고, 1879년경 오우라 천주당을 세웠던 이오지마의 목수·오와타리 이세키치(大渡伊勢吉)가 브랜 신부의 지도에 의해 세워진 목조로 만든 다이묘지 성당은 아이치현(愛知県)의 메이치 마을(明治村)에 이축 되어있다. 현 성당은 1973년에 건립되었다. 금교령 하의 1871년에 오키노 섬의 마고메에는 잠복 기리시탄들이 세운 작은 성당이 있었다. 1884년 잠복 기리시탄들이 모두 가톨릭으로 돌아오고, 1890년에 마르망 신부의 지도에 의해, 오와타리 이세키치(大渡伊勢吉)가 건축한 벽돌 성당이 있었지만, 태풍으로 철타미 무너지는 등, 현재의 마고메 성당은 1931년에 건립되었다.



## 히라도·사세보지구 순례 모델 코드 II

### [히라도지구] II-①

히라도항(출발)	차	30분 ↓	
히라도시 이키쓰키초 박물관	차	5분 ↓	이키쓰키섬 잠복 기리시탄 자료관 시마노야시키
야마다 성당	차	5분 ↓	16성인 기념비
구로세의 쓰지순교지 가스팔님의 묘	차	20분 ↓	순교자의 묘와 성지, 나카에노 섬 바라보이다
히라도시 기리시탄 자료관 우시와키 님	차	15분 ↓	네시코의 해변에 슬픈 역사가...
히모사시 성당	차	10분 ↓	데츠카와 요스케 설계한 콘크리트 성당
호키 성당	차	20분 ↓	적색·백색의 성당, 입구가 인상적이다
가미코자키 성당	차	10분 ↓	2014년 6월 축복받은 성당
히라도하비에르기념 성당	도보	10분 ↓	1550년 프란치스코·하비에르신부 히라도에서 선교 시작
프란치스코·하비에르 기념비	차	15분 ↓	사카카다 공원 안에 있음
아이자 사적 공원	차	5분 ↓	가미로 콘스탄치오 신부 순교의 땅
히라도구치 성당	차	10분 ↓	마츠우라 철도 히라도구치역전의 언덕에 있다
다비라 성당	차	15분 ↓	세계유산으로 추천되어 있다. 데츠카와 요스케 설계의 벽돌로 지은 대표적인 성당
히라도항(종점)			

### [사세보지구] II-②

사세보역(출발)	도보	5분 ↓	
미우라마치 성당	차	20분 ↓	사세보 공습(2차대전)에도 소실안된 성당
아이노우라항	정기선	50분 ↓	
구로시마항	도보	30분 ↓	
구로시마 성당	도보	10분 ↓	어째서 이런 큰 성당이 이 작은 섬에!
마르만신부의 묘	도보	20분 ↓	일생을 바친 마르만 신부의 생각이...
신앙부활의 땅 비	도보	30분 ↓	미즈카타역을 맡은 데구치가문의 땅
구로시마항	정기선	50분 ↓	
아이노우라항	차	20분 ↓	
사세보역(종점)			





나카에노 섬

## 히라도 기리시탄 역사

히라도(平戸)는, 예로부터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일본의 창구로서 번창해 온 항이다.

1549년 중국선으로 가고시마(鹿児島)에 상륙한 선교사 프란치스코·하비에르가 이듬해, 포르투갈선이 들어와 있던 히라도를 찾아와 나가사키현내에서의 선교가 시작되었다. 하비에르가 일본을 떠난 후에도 다른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이어 받았다. 히라도에서는 영주 마츠우라 다카노부(松浦隆信)의 가신였던 고테다 야스즈네(籠手田安経), 이치부 가게유(一部勘解由) 형제가 세례를 받은 후, 두 형제의 영토인 다쿠시마(度島)·이키쓰키 섬(生月島)·히라도 섬의 서해안에 있는 영민 모두가 기리시탄이 되었다. 어느 날, 히라도에서 포르투갈인과 일본인과의 살상사건이 일어나, 포르투갈 상선은 히라도를 떠나 오무라(大村)영내의 항에 들어갔지만, 고테다와 이치부의 영내에 있는 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어갔다. 그러나, 1599년 마츠우라 다카노부 영주가 사망하자 아들인 시게노부(鎮信)가 금교 정책을 취하자 고테다와 이치부는 일족 약 600명과 함께 히라도를 퇴거하였고, 마츠우라 영주의 직 할이었던 이키쓰키 섬(生月島)에서는 고테다의 유신 니시젠카(西玄可)가 배교를 거부한 나머지 1609년 이키쓰키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도쿠가와(徳川)막부는 1614년에 금교령을 발표

하고, 기리시탄을 철저히 박해하였다. 1622년, 1624년에 유럽(예수회)의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다비라(田平)·나카에노 섬(中江ノ島)·이키쓰키(生月島)에서 순교가 있었다. 그리고, 1645년에 히라도 섬에서의 사건이 히라도 영에 남은 최후의 박해 기록이라고 한다.

그 후, 히라도 영은 신앙조사(에도시대에 막부의 명으로 집집마다 개인마다 불교 신자임을 소속한 절에서 증명)하는 무사를 두고, 5인조(에도시대에 다섯 집을 한 단위로 연대 책임을 지게 한 인보 조직)로 상호감시를 행하게 하여 단속시켰다. 그러나, 고테다와 이치부의 구 영내에서는 기리시탄이 비밀 조직을 만들어 세례식, 기도문, 성구를 전하며, 그리고 순례지를 성지로서 지키며 전하였다.

쇄국이 풀리고, 파리와국선교회의 선교사가 재선교 시작으로, 나가사키현내에 있던 잠복 기리시탄은 가톨릭 신자가 되었지만, 이키쓰키 섬, 히라도 섬에서 가톨릭 신자로 돌아온 기리시탄은 대부분 에도시대 후기, 소토메(外海)에서 이주한 잠복 기리시탄이었고, 히라도 섬과 이키쓰키 섬의 기리시탄의 대부분은 잠복시대의 신앙형태를 지켜가는 길을 선택하였다.

히라도 순례는 하비에르 이후 450년 남짓의 기리시탄 역사를 여러가지 형태로 걸어 온 사람들의 상징을 보고 느끼는 여행인 것이다.

## 사세보 기리시탄 역사

사세보(佐世保)의 기리시탄 역사는 크게 구로시마(黒島)와 사세보시 근교로 나눌 수 있다.

7개 가운데 6개의 가톨릭 신자의 취락이라고 불리는 구로시마는 에도시대 후기, 소토메(外海)의 기리시탄들이 고토열도로 이주할 쯤, 이주해 온 기리시탄에 의해 취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오무라(大村)에서의 “신자발견” 2개월 후에는 구로시마의 신자가 신앙을 표명하여, 메이지 초년에는 잠복 기리시탄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메이지 이후는 구로시마를 나와서 새로운 개척적인 생활의 장소를 구해 이주하였다. 사세보 근교는 메이지 이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의 역사이다. 사세보의 서해안은 구로시마와 고토열도에서 개척자로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성당을 지었다. 사세보의 거리는 대륙에 대한 방위와 진출을 위해 1889년에 사세보 해군기지가 설치된 이후, 작은 마을에서 큰 군항도시로 발전해 왔다. 군수물 자의 경기에 비등하자 모였던 사람이 공동체를 만들고, 기도의 장소(성당)를 세웠다. 옛날에 탄광의 마을에 성당도 메이지 시대 이후, 히라도(平戸)소토메(外海), 고토열도(五島



구로시마

列島)등에서 이주자가 만들었다.

나가사키현에는 130개 남짓의 성당이 있다. 이 성당은 작거나 크거나 모든 성당이 하비에르 이후, 신앙의 역사를 대대로 이어져와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이 지역에서 눈에 띄는 근대적인 성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흘린 피의 역사를 꼭 보고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일본26위 성인, 나가사키16위 성인, 일본205위 복자, 188위 복자

가톨릭 성당에서는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켰거나 생전에 뛰어난 덕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어져 로마 교황청의 조사와 심사에 의해 인정하는 자가「복자」가 되고, 심사에 걸쳐「성인」이 되어 공식적으로 신자들의 공경의 대상이 된 사람, 즉 공경할 만한 성도에게 붙이는 존칭이다.

1597년 일본에서 최초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라 불리는 국가 권력에 의해 순교하여, 1627년과 1629년에 시복. 1862년에 시성한 기독교 신자「일본26 성인」,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금교령에 의해 1633년에서 1637

년 사이에 순교한 자들이 1981년에 시복하였다. 1987년에 성인이 된 16명의 도미니코회 관제의 기독교 신자「나가사키16 성인」이 있다.

1603년 ~ 1639년까지 일본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1867년에 205명, 그리고 2008년에 188명이 복자에 시복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순교는 아니지만, 1930년에 나가사키에 찾아와 선교활동 후, 1941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남을 대신하여 아사형을 받은 폴란드인 콜베신부는 1982년에 시성하였다.



平戸市生月町博物館 島の館

**히라도시 이키쓰키 박물관 섬의 관 HS-1**

이키쓰키 섬(生月島)의 입구에 있는 이키쓰키 섬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시설이다. 1층은 히라도 영토의 경계를 지탱한 이키쓰키 섬의 포경을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2층에는 이키쓰키 섬의 16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신앙을 지켜 계승해 온 기리시탄의 역사와 섬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 히라도시 이키쓰키초 미나미멘 4289-1  
TEL. +81-950-53-3000 개관시간 : 9:00 ~ 17:00  
휴 관 : 정초(1 일, 2 일) 특별휴관 有  
입 장 권 : 대인 500 엔·고등학교생 300 엔·초·중학생 200 엔  
(단체할인 有)  
위 치 : 히라도대학교에서 차로 30 분



**나카에노 섬 中江ノ島**

1622 년과 1624 년,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에 소속된 선교사 가미로 신부의 활동을 도와준 여관 주인으로 이키쓰키(生月)의 무사 요한 사카모토(坂本) 외에 많은 기리시탄들이 순교한 섬이다. 이키 쓰키의 숨은 기리시탄은 이 섬을「산주안(성 요한)」이라고 부르고, 섬의 있는 바위의 갈라진 틈에 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성수로서 「세례」를 행하며, 신앙을 이어 나갔다.

- 히라도시 슈시초 / 이키쓰키 섬과 히라도 섬의 중간사이에 있는 섬.



山田教会堂(山田小教区:七つの悲しみの聖母)

**야마다 성당 (야마다소교구 : 일곱가지 슬픔의 성모) HS-2**

야마다(山田)는 이키쓰키(生月) 남부를 다스렸던 기리시탄 고테다(籠手田)의 옛 영토의 일부였던 곳 이었는데, 금교시대가 열리자 기리시탄들은 잠복하였다. 1912년에 마타라 신부의 지도로, 테즈카와 요스케의 설계·시공으로 현 성당이 세워지기까지 신자의 집에서「주일미사」를 드렸다고 한다.

- 히라도시 이키쓰키초 야마다멘 440-2  
위 치 : 이키쓰키대학교에서 차로 5 분

※야마다 성당/테즈카와 요스케(鉄川与助) 설계·시공, 1912년 완성.



聖トマス西列聖祈念碑

**성 토마스 니시(西) 시성 기념비**

1590 년경에, 출생한 이키쓰키 (生月) 의 니시젠카 (西玄可) 의 아들 성 토마스 니시는 1614 년의 금교령으로 마카오로 몸을 피했다. 마닐라에서 1624 년에 도미니코회에 입회하여 1626 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1629 년에 나가사키에 잠입하였지만, 1634 년 니시자카(西坂)에서 순교하였다. 1987 년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에 의해, 시성한 나가사키 16 성인의 한 분이다.

- 위 치 : 야마다 성당 입구 가까운 곳에 기념비가 있다.



**구로세의 쓰지 순교지 HS-3 黒瀬の辻殉教地 가스팔님의 묘 가스パル様の墓**

고테다(籠手田)의 가신이었던 니시젠카(西玄可)는, 고테다 일족이 히라도를 퇴거한 후에도, 이키쓰키에 남은 기리시탄의 지도자 입장으로 있었다. 그러나, 1609년 배교를 거부하여 잡힌 니시젠카는 옛날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선조의 묘에서 처형되었다. 이 처형지는「십자가의 쓰지」에서「구 로세의 쓰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가스팔 니시(西)의 유해는「천주교의 의식」으로 매장하였다고 유럽의 기록에 남아있다. 구로세의 쓰지에 있는 이키쓰키(生月)의 숨은 기리시탄은「가스팔님의 묘」라고 부르며, 이 곳이 성지라고 한다. 가스팔 니시는 근처에서 처형당한 처 울스라와 아들 조안과 함께 2008년 188복자로 시복되었다.

- 히라도시 이키쓰키초 야마다멘  
위 치 : 야마다 성당에서 차로 5 분.

- 위 치 : 구로세의 쓰지 순교지 비 뒤쪽.

**「숨은 기리시탄」이라고 하는 말**

금교령이 발표된 에도시대에 비밀 공동체를 만들어 기독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 사제도 없이,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200년간 교의를 지키는「마음」은, 계승 되어왔지만, 교의를 지키기 위해서 변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메이지시대가 오고, 일본에 파리의국선교회에서 온 사제들의 지도에 의해, 잠복 기리시탄이 그 신앙의 형태를 본래의 형태로 되돌아와 신앙의 부활을 했었지만, 천주교로 돌아오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형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주교로 돌아온 사람들을 구별하여「숨은 기리시탄」이라고 불리는 것이 많다. 그러나,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그 들은 자기 스스로를 칭하여 사용하는 말은 아니라고 한다. 굳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 이키쓰키 섬에서는, 가톨릭 신자를 「신 기리시탄」, 자신들을 「구 기리시탄」이라고 부르거나, 문자(오라티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금교령이 발표되고,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 온 사람들을, 「잠복 기리시탄」이라고 표현하였다.





うしわき様(おろくにん様)

우시와키님 (오로쿠닌님)

平戸市切支丹資料館

히라도시 기리시탄 자료관 (기리시탄=切支丹 : 절지단)

HS-4

네시코(根獅子)는 기리시탄 이치부 가케유(一部勘解由)의 데릴사위로 들어가 지도자를 계승 받게 된다. 장모의 영지에 있는 가신, 영민 모두가 기리시탄이 되는데, 선교사의 보고와 히라도 영토 기록에 많은 순교자가 나온 곳이라고 기재 되어있다. 히라도 섬에서는 네시코로 인하여, 잠복시대부터 독자의 신앙의 형태가 지켜 왔었지만 조적을 운영하는 지도자의 후계자를 찾지 못해서 1992년 에 해산하고 말았다. 자료관에서는 네시코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오이시와키(大石脇)는, 1563년 예수회의 선교사가 남긴 보고서에 우이시와키(Vuyxyuaqui)라고 기록되어 있다. 네시코의 승천석에서 처형되어 해안에 밀려 온 6명의 순교자가 우시와키의 숲에 매장 되어있다고 한다.

●히라도시 오이시와키초 1502-1 TEL. +81-950-28-0176 개관시간 : 9:00 ~ 17:30  
휴관 매주 수요일, 12월 29일 ~ 1월 2일  
입장료 : 성인 200 엔(160 엔), 고등학생 150 엔(120 엔), 초·중학생 70 엔(56 엔)  
※( ) 안에 있는 요금은 30 명이상의 단체요금입니다. 위치 : 히라도대교에서 차로 30 분.

●히라도시 오이시와키초  
위치 : 히라도 기리시탄 자료관 옆.



紐差教会堂(紐差小教区、十字架称賛)

히모사시 성당 (히모사시소교구-십자가 찬상)

HS-5

1885년부터 라게 신부가 페루 신부의 후임이 되었다. 많은 기리시탄이 있는 히모사시에 성당이 지어졌다. 그 당시 박해가 일어나지 않아, 가톨릭으로 돌아오는 기리시탄들도 늘고 있는 반면, 불교도로 집단 개종도 있었다. 그리고 마탈 신부의 지도에 의해 훌륭한 목조 성당이 세워졌다고 한다. 이 성당은 지금 사가현의 마다라지마(馬渡島)에 이전하고, 현 성당은 1929년 데즈카와 요스케의 설계·시공한 콘크리트 양식으로 세워졌다.

●히라도시 히모사시초1039  
개관시간 : 8:00 ~ 15:00  
위치 : 히라도대교에서 차로 30분



宝亀教会堂(宝亀小教区、聖コセフ)

HS-6

호키 성당 (호키소교구-성 요셉) <현 지정 유형문화재>

잠복시대에 소토메(外海)에서 온 기리시탄의 자손이 사는 교사키(京崎)에는 1878년경에, 우소(雨蘇)에는 1884년경에 임시성당이 있었다. 신자의 희망으로 히모사시를 거점으로 순회하고 있던 마탈 신부의 도움과 지도. 그리고, 신자의 건축헌금과 노동봉사로 1898년 구로시마(黒島)에서 세례를 받 았던 우쿠지마(宇久島)의 미야 목수에 의해 현 성당이 건립되었다. 현재 히라도지구에서 기도의 장소로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막부 말경에 외국인 선교사가 섬을 찾아오는 것은 어려웠고, 일본인 전도사의 인도가 가톨릭으로 돌아오는(부활) 첫 걸음이었다.

●히라도시 호키초 1170 / 위치 : 히라도대교에서 차로 20 분



上神崎教会堂(上神崎小教区、聖フランシスコ・ザビエル)

가미코자키 성당

HS-7

(가미코자키소교구 성 프란치스코·하비에르)

가미코자키(上神崎)는 옛 히라도 영토 방목지로 메이지 시대 이후에 매각하여, 1880년의 구로사키(黒崎)에서의 이주를 최초로 점점 신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1891년에 시오노우라(潮の浦)에 히모사시 성당이 건립될 때까지 타타마쓰우라(北松浦)에 유일한 성당이 세워졌다. 1969년 그 자리 그 땅에 다시 신축하고, 2014년 6월 같은 곳에 새로운 성당이 완성 되었다. 부자내에 선조가 지켜 전해 온 신앙이 끊어지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가족과 싸이트는 고목의 기념비가 있다.

●히라도시 오무보초 220 / 위치 : 히라도대교에서 차로 10 분.



フランシスコ・ザビエル記念碑

프란치스코·하비에르 기념비

HS-9

1550년에 처음으로 찾아와, 짧은기간이었지만, 세 번 히라도를 찾아왔던 하비에르가 체재 했었던 주택터가 있는 사키카타 공원 한 가운데에 일본 도래 400 주년을 기념해 1949년에 비가 세워진 「프란치스코·하비에르 기념광장」에 있다.

●히라도시 오무보초  
위치 : 히라도 하비에르 기념 성당에서 도보 10 분.



平戸ザビエル記念教会堂

히라도 하비에르 기념 성당

HS-8

(히라도소교구 대천사 성 미카엘)

성벽 아래를 중심으로 발달한 히라도 마을에도 메이지 이후에 신자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 1931년에는 대천사 성 미카엘에게 봉헌된 성당이 본격적으로 지어졌다. 현당40주년 기념으로 하비에르 상을 세워히라도 하비에르 기념 성당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히라도를 상징하는 풍경을 정 취를 느낄 수 있어 친근감이 있다.

●히라도시 가미카와초259-1 / 위치 : 히라도부두에서 도보10분



焼罪史跡公園(カミロ・コンスタンツォ神父殉教碑)

아이자 사적 공원 (가미로 콘스탄치오 신부 순교비)

HS-10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였던 가미로 콘스탄치오 신부는, 1605년에 일본에 입국해 선교활동을 하다가 1614년 금교령으로 마카오로 추방되었다. 그 후, 1621년에 재감암하여 우레시노(嬉野), 가라쓰(唐津), 히라도(平戸) 영내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고토열도의 최북단인 우쿠섬(宇久島)에서 체 포되어, 다비라(田平)에서 화형을 당하였다. 가미로 콘스탄치오 신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히라도 항에 입항하고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선원에게도 영어와 네덜란드어 등으로 설교를 했다. 「야케자」라고 불렀던 땅이 바로 처형지이다.

●히라도시 다비라초 노다엔 / 위치 : 히라도대교에서 차로 10 분.

平戸口教会堂(平戸口小教区、聖母のみ心)



히라도구치 성당 (히라도구치소교구·성모 성심) HS-11

히라도구치(平戸口)에는, 메이지시대 중기부터 구로시마(黒島), 고토열도(五島列島), 소토메(外海), 히라도(平戸) 등에서 신자들이 이주하였다. 다비라 성당의 초대 주인사제인 나카다 도키치(中田藤吉) 신부가 사회복지를 위해 세웠던 히라도구치사회관의 2층을 1947년 은거소를 이웃의 신자를 위해서 임시 성당으로서 사용하였다. 1952년 골롬반회의 그라니 신부에 의해 현재의 성당이 세워졌다.

●히라도시 다비라초 아미우치멘471-3 / 위치 : 히라도대학교에서 차로 5분



田平教会堂(田平小教区、日本26聖人殉教者)

다비라 성당 (다비라소교구·일본 26 성인 순교자) HS-12

(다비라소교구·일본 26 성인 순교자)

다비라(田平)는, 메이지시대 중기를 되는 때에, 구로사키(黒崎)의 라케 신부와 시쓰(出津)의 드로 신 부가 토지를 매입하여, 신자를 이주 시키면서 개척이 시작되었다. 점점 신자들이 모여 들었던 땅이 다. 최초 신자의 집이 임시 성당이였지만, 1914년에 부임한 나카다 도키치(中田藤吉) 신부의 분주한 노력으로 기부에 도움 받아 1918년에 테츠카와 요스케가 설계·시공한 벽돌 양식의 성당이 세워졌다.

三浦町教会堂(三浦町小教区、イエスのみ心)

미우라마치 성당 (미우라마치소교구·예수 성심) HS-13

(미우라마치소교구·예수 성심)

해군기지가 설치되고, 군항도시로 발전하는 사세보(佐世保)에 많은 신자들이 모여 들었다. 다니고초(谷郷町)에 1897년에 천주공교회로서 시작되었다. 1931년 사세보 역의 바로 정면에 세워져 있는 현 성당은 군항을 한 눈에 바라볼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중에 성당은 스파이로 보인다 고 해서, 주일미사 등 현병이 몰래 감시까지 했다고 한다. 1945년의 대공습에서 사세보는 피멸적인 피해를 받았지만, 성당은 기적적으로 폭격을 면하였다.

●사세보시 미우라마치4-25  
위치 : JR 사세보역에서 도보5분



구로시마 성당 (구로시마소교구·예수 성심) HS-14

구로시마(黒島)는 히라도(平戸)의 영지였다. 에도시대 후기, 농사를 짓고 살기에 땅이 너무 척박한 옛 방목지에 개간지 이주를 허가하였다. 히라도(平戸), 소토메(外海), 우라카미(浦上) 등에서 신자들이 이주하였다. 비밀리에 신앙을 전하던 6개의 취락이 있다. 섬의 중앙에 히모사지에서 순화한 페루 신부가 1878년에 목조성당을 세우고, 최초에 구로시마에 상주한 마르만 신부가 프랑스에서 조달해온 자금과 신자들의 노동봉사로 구로시마의 화강암으로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40만 개의 벽돌을 쌓아, 트리포리움과 높은 창이 있는 웅장한 성당이 세워졌다. 완성년도는 불명하지만, 1902년에 축복하였다.

●사세보시 구로시마초 3333  
위치 : 아이노우라 항에서 배로 50 분 → 구로시마 항에서 도보 30 분.



黒島教会堂(黒島小教区、イエスのみ心)



마르만신부의 묘 HS-15 (マルマン神父の墓)

신부는 1849년에 프랑스에서 출생하였다. 1876년에 일본에 찾아와, 1877년부터 고토열도(五島列島)를 순회하고, 1879년부터 시모고토(下五島/고토시) 지구의 주인사제로 정주하여 교아의 양육사업 등에 주력하였다. 그 후, 이오지마(伊王島), 아미미오시마(奄美大島)를 전임을 걸쳐, 1897년에 구로시마(黒島)에 부임하면서 각지의 성당을 설계하며 건축하였다.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임시 조국에 귀국 후, 다시 구로시마에 돌아와 15년간 공적을 세우고, 1912년에 영면한다. 성당 묘지에 신부의 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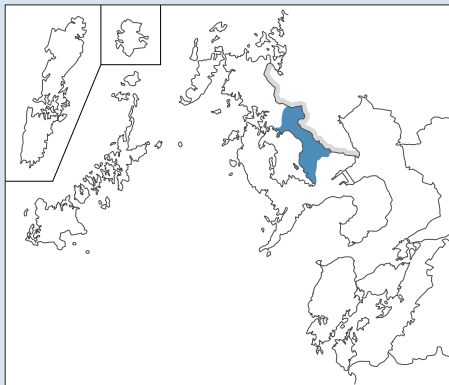
●위치 : 구로시마 성당에서 도보 10 분.



신앙 부활의 비 HS-16 (信仰復活之地の碑)

1865년3월17일의 오우라 천주당에서 우라카미(浦上)의 신자가 200년만에 사제와의 만남(신자 발견)으로부터 2개월 후, 구로시마(黒島)의 신자도 오우라(大浦)에서 신앙을 고백하였다. 1872년 신부는 600 명의 기리시탄이 있는 구로시마를 은밀히 찾아가 테구치 다이키치의 집에서 최초의 미사를 행하였다. 아직 금교령이 풀리기 전이었던 메이지 초년에 미즈카타(水方)라는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테구치(出口)가의 아이들이 전도사가 되어, 전도 활동으로 인하여, 섬의 기리시탄들이 대부분 가톨릭 신자로 돌아왔다. 1957년에 옛 테구치가의 저택 터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위치 : 구로시마 성당에서 도보 15 분.



오무라지구 순례 모델 코스 I

[오무라지구] I - ①			
JR 소노기역	도보	5분	↓
미치노역 소노기의쇼(출발)	도보	5분	↓
히가시소노기초 일본 26 성인 승선지비	차	30분	↓ 니시자카 순교지로 가는 최후의 밤을 배안에서
호코바루 순교지	차	5분	↓ 고오리박해 등 기리시탄 처형지
고쿠몬쇼(옥문) 옛터	차	5분	↓ 고오리박해에서 처형된 131 명의 머리가 효수되었다
구비즈카	차	5분	↓ 131명 순교자의 머리를 묻은 곳
도즈카	차	10분	↓ 동체는 머리 묻은 곳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따로 묻었다
오무라 스미타다 종언지	차	5분	↓ 일본 최초의 기리시탄 다이묘(영주)
우에마쓰 성당	차	15분	↓ 16 성인 성 야고보 아사나가에게 바쳐진 성당
스타라 옥터	차	50분	↓ 작은 언덕에 하얀 십자가
JR 나가사키역(종점)			



## 오무라 기리시탄 역사

하비에르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예수회를 창립하기 1년전, 1533년 시마바라반도(島原半島)에서 아리마 하루즈미(有馬晴純)의 두 아들이 태어난다. 차남이었던 스미타다는 5살일 때 오무라 스미야키(大村純前)의 가독의 상속권이 있는 양자가 되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히라도 찾아온 1550년에 오무라가(家)의 상속을 물려 받은,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는 히라도에서 살상사건이 일어난 후, 다른 항을 찾고 있던 예수회의 요청을 승낙하여 1562년 요코세우라(横瀬浦)에 개항하고, 이듬해, 건설을 지원한 요코세우라의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 바르톨로메오라는 세례명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 최초의 크리스찬 다이묘(영주) 오무라 스미타다는, 영내에서 불교세력의 반발과 오무라 스미사키의 서자였던 다케오(武雄)의 고토 가문의 양자로 들어간 고토 다카아키라(後藤貴明) 등, 주

변세력의 습격으로 성벽 아래의 마을은 혼란이 있었지만, 1564년에 산조성(三城城)을 구축하고, 1568년 성 아래에 성당을 세웠다. 나가사키에 포르투갈선이 입항한 이듬해쯤에 일어난 산조칠기농성(三城七騎籠もり)라고 불렀던 구사일생을 한 전쟁이 끝난 후, 1574년에 오무라 스미타다는 영민의 일체개종이 행해지고, 영내에 있는 절과 신사를 파괴했다. 사가의 료조지 다카노부(竜造寺隆信)의 침공을 받은 스미타다는 나가사키(長崎)와 모기(茂木)를 예수회에 기부하여 영토의 보전을 도모했었지만, 다카노부에게 인질로 잡혀, 굴복하고 유쾌까지 당한 스미타다의 아들 오무라 요시아키(大村喜前)는 다카노부의 꼭두각시의 오무라 성주가 되어, 기리시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584년의 오키타나와테(沖田畷)의 전쟁에서 아리마의 시마즈 병력(島津勢)에 패하자 료조지의 병력은 퇴각하였다. 1587

년 현재의 오무라시(大村市), 히가시 소노기의 사이카이시(東彼杵郡西海市), 나가사 키시(長崎市)의 일부를 포함한 영내에는 성당이 40 남짓과 신자 7만명 내외가 있다고 발리나노 신부는 보고하였다.

그러나, 스미타다의 사후, 바로 규슈를 평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선교사 추방령을 발표 하였다. 스미타다의 후계자 요시아키는 나가사키와 모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몰수를 당하고, 영내의 성당등의 파괴를 명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리인으로 보낸 유럽파견소년사절이 1590년에 귀국하자 오무라에서 사절단을 환영하고 로마 교황이 보낸 서신에 대하여 답장을 했다.

에도시대가 되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포르투갈, 스페인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 해서, 세키가하라 전쟁(関ヶ原の戦い)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이었던 요시아키는 기독교의 신앙을 허용하고, 1599년에 구시마 성(玖島城)를 구축하면서 성벽 아래

에 바르톨로메오 성당이 세워졌으나, 1606년에는 선교사를 추방하였다. 1614년에 금교령이 발표되고, 요시아키 서거 다음 해의 1617년 오무라 영내에서 최초의 순교가 오비토리(帯取)에서 일어났다. 1617년부터 1622년까지 스페인 옥사에 선교사들을 감금하고 1622년부터 1633년까지 호코바루 등에서 순교에 관한 내용이 유럽에 보고 되었다. 그리고, 시마바라(島原)와 아마쿠사(天草)의 난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657년 고오리 박해라는 사건이 일어난 오무라 영지는 기리시탄 마을을 철저히 단속을 하기 시작했다.

에도시대 후기, 소토메 지방의 오무라 영내에 있는 영민 대상으로 고토 영주의 개척민 이주의 요청으로 고토열도 등으로 개척자로서 이주한다. 그 많은 오무라 성 아래에서 사라진 기리시탄의 자손이 었다는 것을 후에 알 수 있었다. 1887년대에 쿠잔 주교 등 매입한 오무라의 토지에 그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 차차 오무라의 「성당」이 부활했다.



東彼杵町二十六聖人乗船の地碑



**히가시 소노기초 26 성인 승선지 비 0-1**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으로, 교토(京都)를 출발해, 한 달이 걸리는 도중에 두 사람을 더하여 26명이 처형지인 나가사키로 향하였다. 2월4일 정오에 소노기(彼杵)에 도착하여 오무라 영내를 육로로 이동하지 않고, 오무라만을 배로 도키쓰(時津)까지 건너갔다. 이 족적을 남기기 위하여, 1986년에 소노기 강 하구에 기념비를 세웠다.

●히가시 소노기초 히가시 소노기초 소노기 슈쿠고



**호코바루 순교지 0-2** (放虎原殉教地)

오무라(大村)의 처형장의 옛터이다. 1603년의 아우구스티노회의 관계자가 작성한 순교 기록(보고서)을 살펴보면, 고오리 박해 당시 호코바루에서 131명이 처형 당하였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유럽파견 사절단을 로마로 인도한 소테로 신부도 이 곳에서 순교 하였다고 한다. 우에마쓰(植松), 가코마치(水主町)성당의 신자들이 공동으로, 이 땅을 매입하여 1969년, 205명의 순교자의 복자 100주년 기념 비와 고오리 잠복 기리시탄 순교 현창비 그리고, 조선 출신자(13위)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다.

●오무라시 교와마치(大村市協町)

胴塚



**도즈카 (처형된 크리스찬(죄인)의 몸통 등을 매장한 무덤)** 0-5

131 명의 순교자의 몸통을 모아, 두 군데로 나눠 묻었다고 한다. 구비즈카(머리무덤)와 도즈카(몸무덤)는 500m 떨어져 있다. 그 이유는, 크리스찬들이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요술로 머리와 몸통이 일체되는 것을 두려워 했었다.」 라고 한다.

●오무라시 사쿠라바바 2가 국도 34 호선, 사쿠라바바 교차점에서 나가사키 공항으로 걷는 곳에 안내판이 있음.

大村純忠終焉の地(坂口館跡)



**오무라 스미타다 종언지 (사카구치관 옛터)** 0-6

사카구치의 주택부지는 중병을 앓았던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가 1587년에 55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던 곳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으로 선교사 추방령이 발포가 되자, 오무라에 있던 선교사는 성의 가까운 사제관부터 스미타다의 미망인이 있는 사카구치의 주택에 은밀히 옮겨,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스미타다의 아들 요시아키(喜前)가 선교사를 추방할 때까지 예수회의 선교사들이 여기에서 신자들을 인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일본에 온 선교사들이 일본어를 배우는 학교도 있었다.

●오무라시 아라세마치 국도 444 호선과 나가사키자동차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옥문소 옛터 0-3** (獄門所跡)

팻말(기리시탄 참형)이 세워져 있고, 파수꾼이 지키던 가운데, 호코바루에서 처형된 131 명의 순교자의 머리를 소금에 절여서 20 일간 정도, 본보기로 효수했던 곳이라고 말한다. 1968 년의 어머니의 날 (5 월 둘째 주 일요일)에 원죄없는 성모상이 세워졌다.

●오무라시 마스나미 1 가 마스나미 1 가 공민관 부지내.

首塚



**구비즈카 (처형된 크리스찬(죄인)의 머리 등을 매장한 무덤)** 0-4

1657년의 고오리 박해로, 붙잡혔던 608명의 기리시탄들 중에, 209명이 오무라 옥사에 들어가 그 가운데 131명이 참수 되었다. 효수형에 처한 머리가 매장한 장소는,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부활), 최초의 성당이었던 다케마쓰 성당이 있었던 장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1969년 우에마쓰(植松), 가코 마치(水主町) 성당의 신자들이 공동으로 호코바루(放虎原)의 도즈카(胴塚)와 함께 순교비를 세웠다.

●오무라시 하라구치마치 / 국도34호선 하라구치 주택 교차점 근처에 안내판이 있음



**植松教会堂(植松小教区、聖ヤコブ朝長)** 0-7

**우에마쓰 성당 (우에마쓰소교구 성 야곱 토모나가)**

급교령 발포로 크리스찬 모습이 사라진 오무라(大村) 영토. 1887년경에 다케마쓰(竹松) 지역에 쿠잔 주교가 토지를 매입하여, 고아원 겸 성당을 설립하여 준비하였다. 여기에 우라카미(浦上), 시즈(出津), 구로사키(黒崎), 구로시마(黒島) 등의 신자들은 선조들의 고향인 오무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토지를 굳이 매수하자, 성당은 도쿠센가와치(徳泉河内郷)에 이전을 하지만, 전 쟁이 끝난 후, 다시 우에마쓰(植松)로 옮겼다. 현 성당은 1975년에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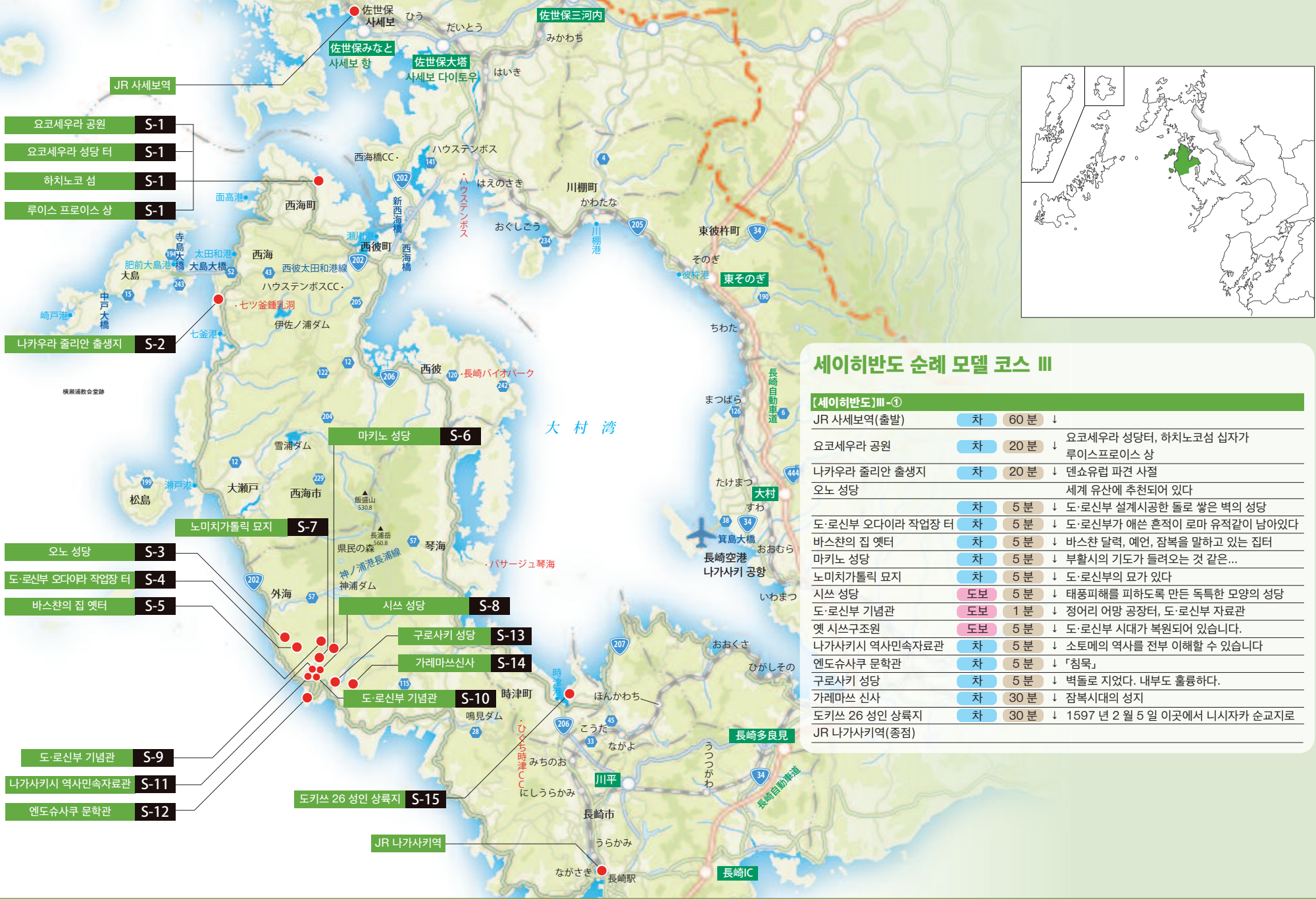
●오무라시 우에마쓰 2 가 722-1 국도 444 호선 우에마쓰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 3 분.



**스즈타 옥사 옛터 0-8** (鈴田牢跡)

스즈타 마을은,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의 가족이 1570년에 세례를 받을 때, 바로 함께 세례를 받았던 자신들의 마을로서 선교사의 주재소(레지덴시아)가 있었던 곳이다. 1617년부터 1622년까지 스즈타의 옥사에 30명의 선교사를 감금하였다. 1622년에 니시자카(西坂)에서 순교한 스피노라 신부가 다타미 12장 정도의 새장과 같은 좁은 옥사의 도면과 신앙생활에 대해, 편지로 남기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오무라 영주 일가의 별저가 그 옥사라고 전해지고 있다.

●오무라시 가케하라마치 국도 34 호선 교차점에서 오무라 가이즈선에 들어가면 바로 있음.



### 세이히반도 순례 모델 코스 III

[세이히반도] III-①			
JR 사세보역(출발)	차	60 분 ↓	
요코세우라 공원	차	20 분 ↓	요코세우라 성당터, 하치노코섬 십자가 루이스프로이스 상
나카우라 즐리안 출생지	차	20 분 ↓	덴쇼유럽 파견 사절
오노 성당			세계 유산에 추천되어 있다
도·로신부 오다이라 작업장 터	차	5 분 ↓	도·로신부 설계시공한 돌로 쌓은 벽의 성당
바스찬의 집 옛터	차	5 분 ↓	도·로신부가 애쓴 흔적이 로마 유적같이 남아있다
마키노 성당	차	5 분 ↓	바스찬 달려, 예언, 잠복을 말하고 있는 집터
노미치가톨릭 묘지	차	5 분 ↓	부활시의 기도가 들려오는 것 같은...
시쓰 성당	차	5 분 ↓	도·로신부의 묘가 있다
도·로신부 기념관	도보	5 분 ↓	태풍피해를 피하도록 만든 독특한 모양의 성당
옛 시쓰구조원	도보	1 분 ↓	정어리 어망 공장터, 도·로신부 자료관
나가사키시 역사민속자료관	도보	5 분 ↓	도·로신부 시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엔도슈사쿠 문학관	차	5 분 ↓	소토메의 역사를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로사키 성당	차	5 분 ↓	「침묵」
가레마쓰 신사	차	5 분 ↓	벽돌로 지었다. 내부도 훌륭하다.
도키스 26 성인 상륙지	차	30 분 ↓	가레마쓰 신사
JR 나가사키역(종점)	차	30 분 ↓	도키스 26 성인 상륙지



**요코세우라 공원 S-1** 横瀬浦公園

히라도(平戸) 영내에서 선교사는 추방 당하고, 일본인과 포르투갈인 사이에 살상사건도 일어나, 예 수회는 1562년에 오무라(大村) 영내에 있는 요코세우라(横瀬浦)의 개항협정을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와 체결하였다. 1562년 포르투갈 상선이 입항하고 성당이 세워지면서 항구도시로서 번성하게 되었다. 이듬해, 스미타다가 요코세우라에서 세례를 받아, 일본 첫 크리스찬 다이묘(영주)가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15일의 밤에 스미타다는 오무라의 관(영주의 저택)에서 의동생이 습격을 하여, 요코세우라도 그 혼란으로 11월 말에는 무역항으로서 더 이상 배가 출항하지 않았다. 지금 항구 주변은 역사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사이카이시 사이카이초 요코세우라교  
위치 : 국도202호선에서 요코세우라 부두로 간다.



**하치노코 섬 S-1** 八ノ子島

요코세우라(横瀬浦)의 입구에 등근 모자와 같은 섬이 있다. 1562년 섬의 꼭대기에 십자가의 환영이 3일간 나타난 것을 포르투갈 상선의 선장도 보아, 다음 날 섬에 십자가를 세웠다고 한다. 현재의 십자가는 남만선(무역선)이 내항 400년을 기념하여 세워졌다.



**요코세우라 성당 터 S-1** 横瀬浦教会堂跡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영주의 도움으로 요코세우라(横瀬浦)에 성당이 세워졌다. 성당은 현재 있는 유적비의 아래 쪽에 있었다고 한다. 스미타다는 요코세우라를 찾아올 때, 자신이 사용하는 저택을 선교장 트레스 신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성당을 세웠다. 성당이 있었던 언덕의 반대 경사면에 주 거 유적비가 있다.



**루이스 프로이스 상 S-1** ルイス・フロイス像

포르투갈인 선교사 루이스 신부는 초기의 일본 교회사일 본사의 집필자이다. 그는, 일본에 가기 전에 하비에르와 일본인 협력자 야지로를 고야(인도)에서 만남을 가지고, 1561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1563년 31세 나이로 요코세우라(横瀬浦)에 상륙하여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오다 노부나가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도 만난 적도 있다고 한다. 어학과 문필의 재능이 높이 평가되어 각 선교 지역에서 통신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였던 루이스 신부는 1597년2월의 26성인의 순교 기록을 나가사키에서 작성하고 7월에 눈을 감았다.



**나카우라 줄리안 출생지 (현 지정 사적) S-2**

나카우라 줄리안은 1582년 일본 크리스찬의 대표로 스페인 왕과 로마 교황에게 알현하고 유럽의 문화를 가지고 돌아온 유럽파견사절의 부사였다. 귀국 후, 줄리안은 사제가 되었지만, 1633년 나가 사키의 니시자카(長崎の西坂)에서 순교하여, 2008년 188복자로 시복된 한 사람이 되었다. 유럽에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줄리안은 나카우라 영주(교자사)의 아들이며, 니시소노기반도(西彼杵半島)의 나카우라(中浦)의 미소노의 타치(御園の館)라고 불리는 곳의 그의 출생지라고 한다. 로마를 가르키는 줄리안 소년 상을 세워 기념공원이 되었다.

●나카우라 줄리안 기념공원. 사이카이시 사이카이초 나카우라미나미고. 위치 / 나카우라국 앞 정류소에서 도보 5분.



中浦ジュリアン出生地(県指定史跡)



大野教会堂(国指定重要文化財)

**오노성당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S-3**

오노(大野)는, 1599년에 히라도 영주에게 추방당한 가리시탄 고테다(籠手田) 일족의 일부가 잠복했 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소토메(外海)의 선교를 담당하는 드로 신부가 1893년, 오노(大野), 고노우라 (神浦) 26가구의 신자를 위하여, 사제를 투입하여 신자들과 함께 현 성당을 세웠다. 이 지역의 현무 암을 석회와 적토로 쌓아 올린 작은 성당이다.

●나가사키시 시모노노마치 2619  
위치 : 국도 202 호선 오노 정류소에서 도보 10 분.



ド・ロ神父 大平作業場跡(市指定史跡)

**드로 신부 오다이라 작업장 옛터 S-4**  
(나가사키시 지정 사적)

드로 신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2정보의 오다이라 토지를 매입하였다. 1884년부 터 1901년까지 개간하고, 보리, 고구마, 솜, 쌀, 토마토, 감자등 경작기술부터 씨뿌리기까지 지도 를 아끼지 않았다. 1901년경의 설치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작업소는, 정면이 벽돌을 쌓았으며, 안쪽 은 운석을 쌓아져 있는 드로 벽의 작업소 터가 남아있다.

●나가사키시 니시시사마치  
위치 : 오노성당에서 도보 20 분



バスチャン屋敷跡(市指定史跡)

**바스찬의 집 옛터 (나가사키시 지정 사적) S-5**

금교령이 발포되고, 우라카미(浦上)와 소토메(外海)의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을 지탱하는 예언과 기리시탄 달력 등을 남긴 전설적인 일본인 전도사 바스찬이 추격자로부터 도망가 숨어있던 장소로서 소토메의 잠복 기리시탄 사이에서 구전으로 지킨 성지이다.

●나가사키시 신마키노마치 1397-1  
위치 : 마키노 성당에서 차로 5분, 입구 안내판에서 도보 5분



牧野教会堂

**마키노 성당 S-6**

1921년, 마키노(牧野)에 여성들이 수도생활과 성당 봉사를 하는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지구의 노인과 환자의 편의를 도모해 성당도 병설하였다. 마키노수도원이 1970년에 시쓰수도원과 통합하고 그 터에 신자들에게 의해, 새로운 마키노 성당이 세워졌다.

●나가사키시 신마키노마치  
위치 : 국도 202 호선 시쓰문화마을 정류소에서 차로 10분.



野道共同墓地

**노미치 공동(가톨릭)묘지 S-7**

드로 신부는 1889년부터 9년9개월에 걸쳐 시쓰(出津)노미치(野道)의 경사면에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신부의 묘는 현재 아래쪽으로 옮겨져 있지만, 본래에는 중앙의 큰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 최초의 묘비는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다. 묘지 위쪽에 있는 지역의 온석이라고 불리는 묘비군은 마치 고대 유적과 같은 풍경이다.

●나가사키시 히가시시쓰마치  
위치 : 시쓰 초등학교 근처.



出津教会堂(県指定有形文化財)

**시쓰 성당 (현 지정 유형문화재) S-8**

1879년 소토메(外海)의 전임으로 드로 신부가 오시자, 1876년에 건립한 15평 정도의 임시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 빈틈없이 신자들이 가득차, 1882년 신부는 바람이 거센 사면 대지에 사재를 투입하여 신자들과 함께 4배 정도의 넓은 성당을 건립하였다. 1891년, 1909년에 증축으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나가사키시 니시시쓰마치 2633  
위치 : 국도 202 호선 시쓰문화마을 정류소에서 차로 5분



ド・ロ神父記念館(鰯網工場跡)(国指定重要文化財)

**드로 신부 기념관 (정어리 그물공장 옛터) S-9**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1885년, 농가의 부업으로 수확한 삼실을 이용하여 정어리 어망을 손으로 만드는 작업장을 드로 신부가 만들었다. 어망의 평판이 좋아져, 어망공장이 되었지만, 다음해에 폐지하고, 보육원과 성교요리 학교 등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현재는 자재로움에 찬 신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다.

●나가사키시 니시시쓰마치 2633 TEL. +81-959-25-1081  
요금 : 대인 300 엔, 초·중·고등학생 100 엔  
(※ 소토메 역사·민속 자료관 입장료 포함, 단체할인도 있음.)  
개관시간 : 9:00 ~ 17:00 휴관 : 12/29 ~ 1/3  
위치 : 시쓰문화마을 정류소에서 도보 5분.



旧出津救助院(国指定重要文化財)

**구 시쓰 구조원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S-10**

소토메(外海)에 온 드로 신부는, 메마른 토지에서 빈곤하고 피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로 학교와 고아원, 수산장(실업자나 가난한이에게 일을 주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줌)을 만들어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도와 주었다. 1883년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위하여, 사가(佐賀)영토의 지방관이 사용했던 관청의 옛터를 매입하여 수산사업(직물을 짜고, 바느질, 소면, 빵 등 식품가공)의 중심적인 시설로서 여성들이 자립지원을 위한 작업장으로「구조원」을 세웠다. 신부에게 협력하는 여성들도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했다.

●나가사키시 니시시쓰마치2633 위치 : 드로 신부 기념관 맞은편.



長崎市外海歴史民俗資料館

**나가사키시 소토메 역사·민속 자료관 S-11**

일본 신석기시대(약1만2,3천년전)의 출토품과 잠복 기리시탄의 유물 그리고, 이케시마(池島)탄광의 자료 등, 유사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토메에 살아 온 사람들의 역사와 생활을 소개하고 있다.

●나가사키시 니시시쓰마치 2800 TEL. +81-959-25-1188  
요금 : 대인 300 엔, 초·중·고등학생 100 엔(드로 신부 기념관의 입장료 포함, 단체할인도 있음.)  
개관시간 : 9:00 ~ 17:00 / 휴관 12/29 ~ 1/3  
위치 : 시쓰문화마을 정류소에서 도보 1분



遠藤周作文学館

**엔도 슈사쿠 문학관 S-12**

「신과 인간」을 추구한 작가 엔도 슈사쿠의 대표작「침묵」의 무대인 소토메(外海)의 웅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그의 생애와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나가사키시 히가시시쓰마치 77 TEL. +81-959-37-6011  
요금 : 대인 350 엔, 초·중·고등학생 200 엔  
관람시간 : 9:00 ~ 17:00  
휴관 : 12/29 ~ 1/3  
위치 : 국도 202 호선, 길의 역(道の駅) 정류소에서 도보 1분.



## 黒崎教会堂

## 구로사키 성당

S-13

구로사키(黒崎)에는, 금교령이 발포 후였던 1871년부터 사용한 작은 성당이 있었다. 1887년에 시쓰 소교구로부터 독립한 구로사키소교구는 신자의 증가와 함께 큰 성당을 소망하여, 1897년 부지를 조성하였지만, 자금난으로 1920년에 현 성당을 완성하였다. 성당을 건축 당시 벽돌을 아이들도 함께 운반 했다고 한다.

●나가사키시 가미쿠로사키마치 26  
위치 : 국도202호선, 구로사키 성당 앞에서 도보 2분



## 桔松神社(市指定史跡)

## 가레마쓰 신사 (나가사키시 지정 사적)

S-14

구로사키 성당의 맞은편에 있는 산 정상 근처에 산조안(전설적인 전도사 바스찬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리는 신사가 있다. 이 신사는 일본에서 크리스찬을 기리는 신사 3군데 중 한 곳이다. 그는 전설의 일본인 전도사 바스찬에게 기도를 위해 기리시탄 달력에 대해 가르쳐 준 인물이다. 구로사키(黒崎)의 기리시탄은, 그는 이 곳에서 은신하다가 죽었다고 전하고, 묘를 지키면서 묘의 근처에 있는 큰 기도의 바위에서 사순절에 오라쇼(기도)를 가르치거나 배웠다라고 한다.

●나가사키시 시모쿠로사키마치  
위치 : 국도 202 호선, 구로사키 성당 앞 정류소

## 時津二十六聖人上陸の地

## 도키쓰 26 성인 상륙지

S-15

26 성인은 1597년 2월 4일 오후, 소노기(彼杵)에서 배를 승선하여, 7개의 마을의 바다를 건너 도키 쓰(時津)에 도착하지만, 배에서 혹한 겨울밤을 보내고서야 다음 날 행장으로 향하였다. 현재 상륙지의 비는 매립지에 있지만, 당시의 상륙지는 현지점 보다 400~500m정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 있는 지점이다.

●니시소노기군 도키쓰초 우라고 도키쓰 항 부두.



## 성 토마스·데·산·아우구스티노《킨쯔바지효에》(킨쯔바·금으로 만든 날 밀)

성 토마스·데·산·아우구스티노 신부는 이름을 지효에라고 하며, 여러번 추격자로부터 교묘하게 잡히지 않고 도망치기 때문에 《요술을 부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로 나가사키의 고서적에도 기록되어 있는 일본사람이다. 어떤 때는 금의 날 밀이 달린 작은 칼을 차고 무사로 둔갑한 일도 있어서 킨쯔바지효에라고 불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1614년 금교령이 발령된 이후 마카오의 코레조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한차례 몰래 일본에 돌아왔고, 다음에 마닐라로 가서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하여 사제가 되어 1632년 일본에 잠입하였다. 나가사키부교소(행정관청)의 마부가 되어 잡혀있는 아우구스티노회 일본 관구장을 몰래 찾아가는 등 나가사키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심을 떠받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도자로서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면서 모습을 감춘 지효에를 체포하기 위하여 나가사키 부교(행정관)는 초상화를 만들고, 세이히(니시소노기) 반도의 산 속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얻어 반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왕래를 금지시키고, 반도 끝에서부터 많은 인원이 한줄로 서서 산속을 살살이 뒤져보기도 하였다. 지효에의 지도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잡혔지만 그들은 신부를 팔지 않고 순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636년 지효에는 밀교에 의하여 잡히고, 종교를 버리도록 물고문 등의 심한 고문을 받고 1637년 두차례에 걸친 거꾸로 매달아 구덩이에 처넣는 고문으로 절명하였다.

1638년 마카오에서 지효에 시복 청원을 위한 조사가 있었지만 한차례의 구덩이 고문으로 실신하여 끌어올렸을 때 종교를 버렸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신부의 덕행 기록은 전하여져 2008년 188순교자의 한사람으로 복자품에 시복되었다.

## 잠복기리시탄의 신앙을 떠 받쳐 준 바스찬

바스찬(본래는 세바스찬인 것 같다)은 우라카미·소토메의 잠복기리시탄(겉으로는 불교도인 체하고 마음속은 금지하고 있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들에게 전해 온 전설의 일본인 전도사이다. 지완(요한을 말함)이라는 신부를 도우며 소토메 지방을 순회하였고, 신부가 없어진 후에도 남아서 신자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산 속 숨어살던 집에서 잡혀서 고문을 받고, 니시자카에서 순교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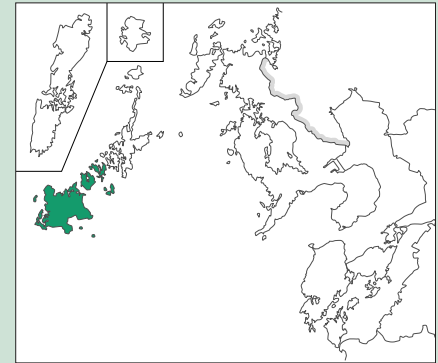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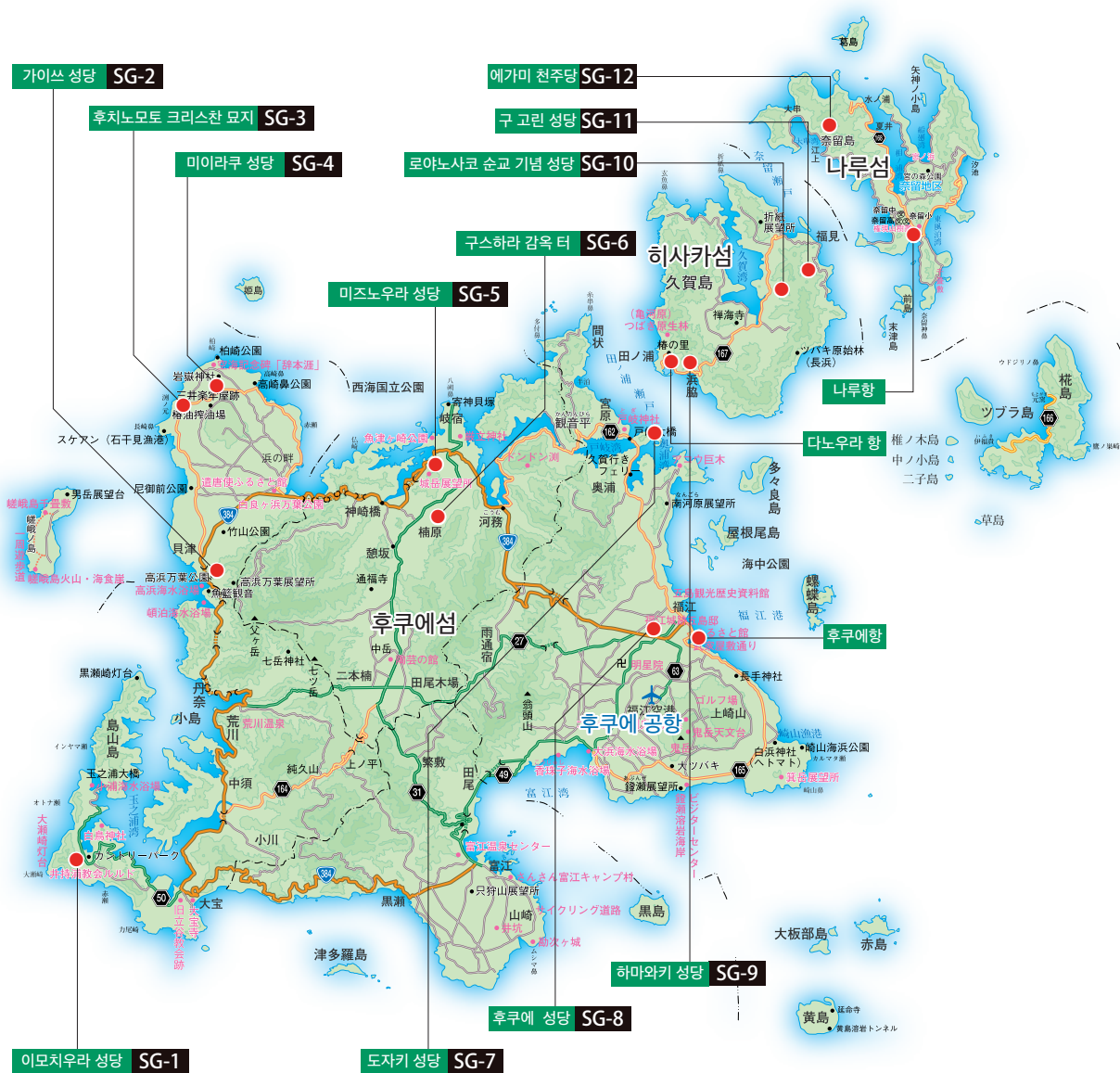
바스찬은 손가락으로 동백나무에 십자가를 표시하는 기적을 행하고, 신도들에게 달력(1634년의 교회력)의 사용법을 가르치고, 7대를 기다리면 고해를 들어주는 사제가 무역선을 타고 오고, 큰소리로 기리시탄 노래(성가)를 부르며 걸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예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왔다.

잠복기리시탄들은 7대(200여년/1세대 30년 정도로 계산) 기다리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는 《바스찬의 예언》을 지주로 삼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불교도로 치장하면서 마음속에서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신앙을 지켜올 수가 있었지않나 하고 생각된다.

## 소토메의 아버지「도·로신부」

1840년 프랑스 뤼스롤의 귀족가문에 태어나 인쇄기술을 가진 사제로 1868년에 일본에 도착 후 처음 나가사키 오우라 주교관에서 인쇄소를 개설하고, 나가사키, 요코하마에서 활동하였고, 유행지에서 돌아온 신자들이 사는 우라카미에서 1874년 역병이 만연하였을 때는 신부는 오우라에서 약상자를 들고 바쁘게 활동하였다.

1879년부터는 소토메지구(시쓰·쿠로사키)의 주임사제로 부임하여 그 후 35년간 농업, 의료, 교육, 건축 등 여러 면의 지식을 발휘하여 급하고 험준한 구릉지에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초월하여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무상의 사랑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나중에 소토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애가 넘치는 사람으로 1914년에 영면하였다. 묘지는 시쓰의 공동묘지에 있다.



### 고토열도 순례 모델코스 V

[후쿠에섬]V-①		승용차 : 차
후쿠에항(출발)	차 60분 ↓	
이모치우라 성당	차 40분 ↓	일본 최초의 루르드
가이즈 성당	차 15분 ↓	부드러운 색의 스테인드 글라스
후치노모토 기리시탄 묘지	차 10분 ↓	동지나 해를 향한 십자가가 나란히 서있다
미이라쿠 성당	차 20분 ↓	히메시마 신앙의 비
미즈노우라 성당	차 5분 ↓	우아한 귀부인 같은 성당
구스하라 옥서터	차 5분 ↓	복원된 옥사
구스하라 성당	차 30분 ↓	소토메 기리시탄 최초의 한공인 이주지
도자키 성당	차 20분 ↓	고토 가톨릭 역사 자료관
후쿠에 성당	차 10분 ↓	1962년 큰 불에도 소실 안된 성당
후쿠에항(종점)		

[히사카섬]V-②	
다노우라항(출발)	차 5분 ↓ (택시 대절)
하마와키 성당	차 10분 ↓ 여울을 바라보는 삼각형의 성당
로야노사코(좁은옥사)	차 20분 ↓ 고토 박해 순교지
	도보 5분 ↓
구고린 성당	도보 5분 ↓ 세계유산으로 추천되어 있는 성당
	차 35분 ↓ 고토의 성당 건축물로 가장 오래된 건물
다노우라항(종점)	

[나루섬]V-③	
나루항(출발)	차 15분 ↓ (택시 대절)
에가미 천주당	세계유산으로 추천되어 있는 성당
	차 15분 ↓ 데츠카와요스케 설계의 목조 성당
나루항(종점)	



미즈노우라 성당

## 고토 순례

병에 걸린 영주가 치료를 하기위해, 1562년 개항한 세이히(西彼)반도의 요코세우라(横瀬浦)에 있던 선 교사에게 요청한 의사에 의해서 완쾌되면서 1566년 선교사가 건너와 고토에 복음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1614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내린 금교령에 의해서 일본에 있던 선교사들은 추방되고, 순교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고토에도 신자의 수가 감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에도(江戸)시대 후기, 오무라(大村) 영지의 소토메(外海) 신자들이 불교도를 가장하여 고토에 이주 하므로서, 고토는 다시 한번 가톨릭 역사가 시작 되었다. 사람들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치고, 자갈 투성이었던 산 비탈을 일구면서 언젠가는 자유롭게 기도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머지않아, 에도(江戸)시대 후기에 쇄국이 풀리고, 오우라에「천주당」이 지어지면서 고토의 신자들이 기다리고 소망하

는 사제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금교령이 풀리지 않았던 메이지(明治)시대 초, 우라카미(浦上)에 이어 「고토박해」가 히사카섬(久賀島)에서부터 시작으로, 고토열도 전체로 확산 되어갔다. 그러나, 나가사키현 등에서 일어난 박해는 여러나라에 전해지면서 각 나라에서 비난과 항의가 빚발 쳤는데, 마침내 1873년 에 메이지(明治) 정부는 기독교를 금하는 금교령 깃발을 철거하였다. 1877년에 2명의 사제가 고토열도에 도착 되어, 선교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윽고, 고토에 건너와 필사적으로 신앙을 지켜 살아온 사람들의 자손이 신앙의 자유를 얻은 고백으로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성당을 지었다. 그리고, 지금 고토열 도는 50 여개가 넘는 가톨릭 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모두가, 고토의 크리스찬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고토순례」는, 역사를 따라가, 삶과 그 마을에 대한 생각을 알아가는 여행이다.



<가톨릭 나가사키대교구에서 인증한 고토순례수첩>  
(53 개의 순례지 스탬프·1,200 엔)이 완성 되었습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나가사키 순례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 「고토순례수첩」

1. 순례는 본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순례를 통해 파악하여 과거와 현재를 돌이켜보아, 앞으로의 행로를 내다보는 행위입니다. 이 순례 수첩은 어디까지나 당신이 순례자임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응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당 입장 입장권이 아닙니다. 순례의 친구(동반자)로 활용합니다. 이 번 순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순례자는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 예절을 가지고 (순례 에티켓 참조) 순례합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잠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3. 순례수첩은 순례의 기록입니다. 우선, 성명·주소·연락처·순례 출발지점과 년도와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4. 각 순례지에 도착을 하면 우선, 수첩에 날짜를 기입합니다. 빈 공간에는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 봅니다. 스탬프 도장은 각 성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스탬프 도장을 찾을 수 없었던 순례지는 순례 이후에 순례센터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주십시오.
5. 고토53군데의 순례를 달성하면, 가톨릭 나가사키대교구의 사제로부터 순례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순례수첩 또는, 복사본을 나가사키 순례센터로 보내 주십시오.

### 성당을 찾는 순례자의 에티켓

<성당은 기도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집입니다.>

- ◎신성한 기도의 장소인 성당으로 입장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 ◎미사·관혼상제등, 행하여 지고 있을 때는, 입당을 삼가해 주십시오.
  - ◎성당 안에서는 모자를 벗고, 사담을 삼가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당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성당 안에서는, 음식, 흡연, 음주는 엄금합니다.
  - ◎성당 안에서는, 모바일 폰 및 태블릿 단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성당 내부의 사진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마음의 평름에 남겨주세요.)
  - ◎제단(감실)과 2층의 성가대석에는 들어가지 말아 주세요.
  - ◎성당 안에 있는 물건(건례용품 및 장식물 등)에는 함부로 손 대지 말아 주세요.
- ※성당을 방문시켜 주신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는 현금함에 봉헌합니다. 봉헌된 현금은 성당의 유지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모치우라 성당 SG-1** (井持浦教会堂)

고토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유일하게 박해를 피한 지구이다. 이모치우라(井持浦)에 이주해 온 잠복 기리시탄은 생선을 소금에 절이기에 필요한 소금을 만드는 염전에서 일했다는 곳이다. 1897년 벽돌로 만든 성당이 건립되었지만, 1987년의 태풍으로 도괴 당하여, 다음해에 현 성당이 세워졌다.

- 고토시 다마노우라마치 다마노우라교1243 후쿠에 항에서 차로 50분 루르드 앞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1분



**이모치우라 루르드** (井持浦ルルド)

고토열도 전 지역을 맡고 있었던 페루 신부가 1858년에 성모 마리아의 환상(성모 발현지) 보았던 프랑스의 루르드의 동굴의 모형이 로마의 바티칸에 만들어졌다고 소식을 듣자, 전 지역에 있는 신자 들에게 호소하여 사가노 섬(嵯峨島)의 암석과 고토의 각지에서 모양이 좋은 돌을 모아서 루르드를 구축하였다. 페루 신부는 모국 프랑스에서 루르드의 기적의 샘플과 성모상을 가져와 1899년 이모치우라(井持浦)에 일본 최초의 루르드를 만들었다.

- 이모치우라 성당 부지내.



**가이스 성당 SG-2** (貝津教会堂)

소토메(外海)에서 톤토마리(頓泊)등에 이주한 잠복 기리시탄이 재이주한 땅이다. 고토박해에서는 가 이쓰(貝津)의 신자도 미이라쿠의 지방관에게 모진 고문을 받고 투옥 되었다. 현 성당은 1924년에 40가구의 신자들에게 의하여 목조 성당이 건립되었다.

- 고토시 미이라쿠마치 가이스 458 위치 : 후쿠에 항에서 차로 40분, 다케야마 버스 정류소에서 산에 가까운 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淵の元キリシタン墓地

**후치노모토 크리스찬 묘지** SG-3

전방에 사가노섬(嵯峨島)이 보이고, 동중국해를 바라보는 미이라쿠(三井築)반도의 북서쪽에 위치 하는 후치노모토(淵ノ元)의 해안에 묘비가 세워져 있는 가톨릭 신자의 묘지가 있다. 후치노모토는 1776년에 소토메(外海)의 농민이 정착해 살았다고해서 이주하기도 했다.

- 고토시 미이라쿠마치 후치노모토 위치 : 미이라쿠 성당에서 차로 10분, 후치노모토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5분.



**미이라쿠 성당 SG-4** (三井築教会堂)

미이라쿠(三井築)에는 이주정책 이전, 1770년대부터 소토메(外海)에서 이주했다고 전해진 잠복 기리시탄의 자손이 살고 있다. 고토박해 후, 1880년에 고딕양식의 목조성당을 세우고, 세월이 경과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리와 신자의 증가에 따라 증개축을 거듭하면서, 1971년 현 성당을 지었다.

- 고토시 미이라쿠마치 다케고1420 위치 : 후쿠에 항에서 차로 50분 다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1분
- ◆미이라쿠 성당 자료관 미이라쿠 감옥 터, 히메섬 신앙의 바.



**구스하라 성당 SG-6** (楠原教会堂)

구스하라(楠原)는 고토 영주가 오무라 영주에게 요청한 이주정책으로 1797년에 제일진이 상륙한 무카타(六方)에서 개간지에 이주한 한 곳이다. 고토박해가 지나가고, 1912년에 겨우 현재의 성당이 세워졌다.

- 고토시 기시쿠마치 히가시구스하라 위치 : 후쿠에 항에서 차로 20분.



**미즈노우라 성당 SG-5** (水ノ浦教会堂)

무로마치시대(1338년~1573년) 고토의 영주가 성을 구축하고, 견명선(遣明船)의 기항지였던 미즈노우라의 기리시탄 역사는 1797년의 소토메의 고노우라(外海神ノ浦)에서 이주했다고 전해지는 5 명의 남성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시작 되었다고 한다. 복잡한 천연의 항구에 가장 안쪽에 1879년에 최초의 성당이 세워졌지만, 점점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 1938년 운젠 성당을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성당의 사정으로 취소를 한 그 건축 자재를 그대로 매수하여 데즈카와 요스케가 설계·시공한 아름다운 현 성당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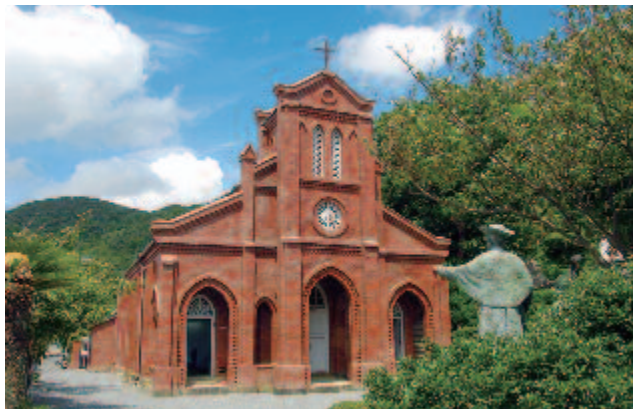
- 고토시 기시쿠마치 기시쿠 1644 위치 : 후쿠에 항에서 차로 20분 미즈노우라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2분
- ◆미즈노우라 감옥 터 성 요한 고토상



**구스하라 감옥 터** (楠原牢屋跡)

고토박해는 미즈노우라(水ノ浦)에서 구스하라(楠原)까지 넘어오면서 초카타(공동체 리더) 가리우라 기요스케(狩浦喜代助)의 집이 임시옥사가 되어, 구스하라의 신자들이 투옥되었다. 그 후 미즈노우라의 옥사로 이송하게 되는데, 배교할 것을 강요하는 관리들의 잔혹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임시 옥사가 되었던 초카타의 집 재목은 그 일부가 1954년에 미즈노우라 수도원 구스하라 분원의 1층 부분에 사용 했지만, 1995년에 해체하여 이듬해에 남아있던 목재로 감옥터를 축소 복원 하였다.

- 고토시 기시쿠마치 히가시구스하라 위치 : 구스하라 성당에서 차로1분.



**도자키 성당 (현 지정 유형문화재) SG-7**

堂崎教会堂

오쿠우라 마을(奥浦村) 오토마리(大泊)에 상주한 시모고토(下五島) 담당의 마르탄 신부가 도자키에 1882년에 초대 성당을 세우고, 이 땅을 선교의 거점으로 하기로 하였다. 페루 신부가 세운 현 성당은 1908년에 헌당하였다. 1974년 4월9일에 나가사키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고, 1977년 60년의 세월이 지난 도자키 성당은 크리스찬 자료관으로 개설 되었다.

●고토시 오쿠우라초 도자키2019TEL. +81-959-73-0705

관람시간 : 11월11일 ~ 3월20일 9:00 ~ 16:00  
3월22일 ~ 11월10일 9:00 ~ 17:00 관람료 : 대인 300엔(250엔), 중·고등학생 150엔(100엔), 초등학생 100엔(50엔) ( ) 안에 있는 요금 은 20명 이상의 단체요금 위치 : 후쿠에 항에서 차로 15분, 천주당 입구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



**후쿠에 성당 SG-8**

福江教会堂

메이지 이후, 구(旧)후쿠에 성벽 아래에 고토 각지에서 신자들이 모여들어 1914년에 도자키소교구에서 후쿠에소교구로 독립하였다. 현 성당은 1962년4월25일에 건립하였는데, 그 해에 9월26일 후쿠에(福江)의 큰 화재로 시가지 대부분이 소실 되었지만, 후쿠에 성당은 기적적으로 소실을 면했다고 한다.

●고토시 스에히로마치3-6  
위치 : 후쿠에 항에서 도보10분



**하마와키 성당 SG-9**

浜脇教会堂

우라카미 네 번째 박해에 이어 고토박해의 발단의 땅. 히사카 섬(久賀島)에서 다노우라 항(田ノ浦港) 근처에 1881년 기다리고 소망한 최초의 성당이 세워졌다. 그러나, 목조 성당은 노후화가 진행 되면서 바닷바람에 손상되고, 신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1931년에 고토에서 최초의 콘크리트로 성당을 새로 지었다.

●고토시 다노우라263 다노우라 항에서 도보 20분



牢屋の窄殉教記念教会堂

**로야노사코 순교 기념 성당**

SG-10

고토박해(1868년)에서 200명의 남짓의 섬의 신자들이 투옥 되고, 옥사에서 풀려난 신자들 중 사망자를 포함해서 42명이 순교한 12장의 다다미(약6평정도) 옥사가 있었다. 섬에 하마와키 성당 과 4곳의 공소가 있었지만, 인구감소로 3개의 성당을 통합하여 1969년 이 순교지에서 가까운 곳에 발전소 시설을 이용한 기념성당을 건립하였다 이 후, 노후화로 인하여, 1984년에 실제로 옥사가 있던 장소에 현재의 성당을 세웠다.

●고토시 히사카초 오바리키  
위치 : 다노우라 항에 서 택시10분 하마와키 성당에서 도보40분



江上教会堂

**에가미 천주당 (2008년6월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SG-12**

에가미(江上)는 1881년에 네 가족이 세례를 받아 시작된 성당으로, 성당이 세워지기까지 가즈라 섬(葛島)의 주임신부가 신자의 집에서 미사를 드렸다. 1906년에 간소한 초대 성당이 세워지고, 1918년에 50여 가구의 신자들이 후릿고물에서 얻은 이익으로 테즈카와 요스케에게 설계·시공을 의뢰 하여 현 성당을 건립하였다.

●고토시 나루마치 오쿠시1131  
위치 : 후쿠에 항에서 해상택시 30분 나루 항에서 택시 20분



**구 고린 성당 SG-11**

旧五輪教会堂

(1999년5월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히사카 섬(久賀島) 서남의 하마와키 성당이 1931년에 새로 지어질 때, 구 성당을 해체한 자재를 뗏목으로 섬의 북동쪽 고린에 운반하여 이축하였다. 그러나, 1985년 노후화로 인하여, 신 성당을 신 축하고 해체의 위기까지 있었지만, 1881년에 세워진 구 고린 성당은 역사적 유산으로서 보존하게 되었다.

●고토시 와라비초 고린  
위치 : 다노우라 항에서 택시20분 → 도보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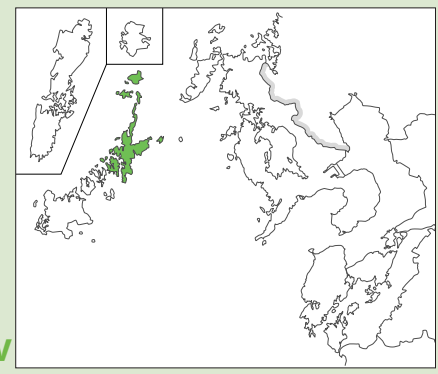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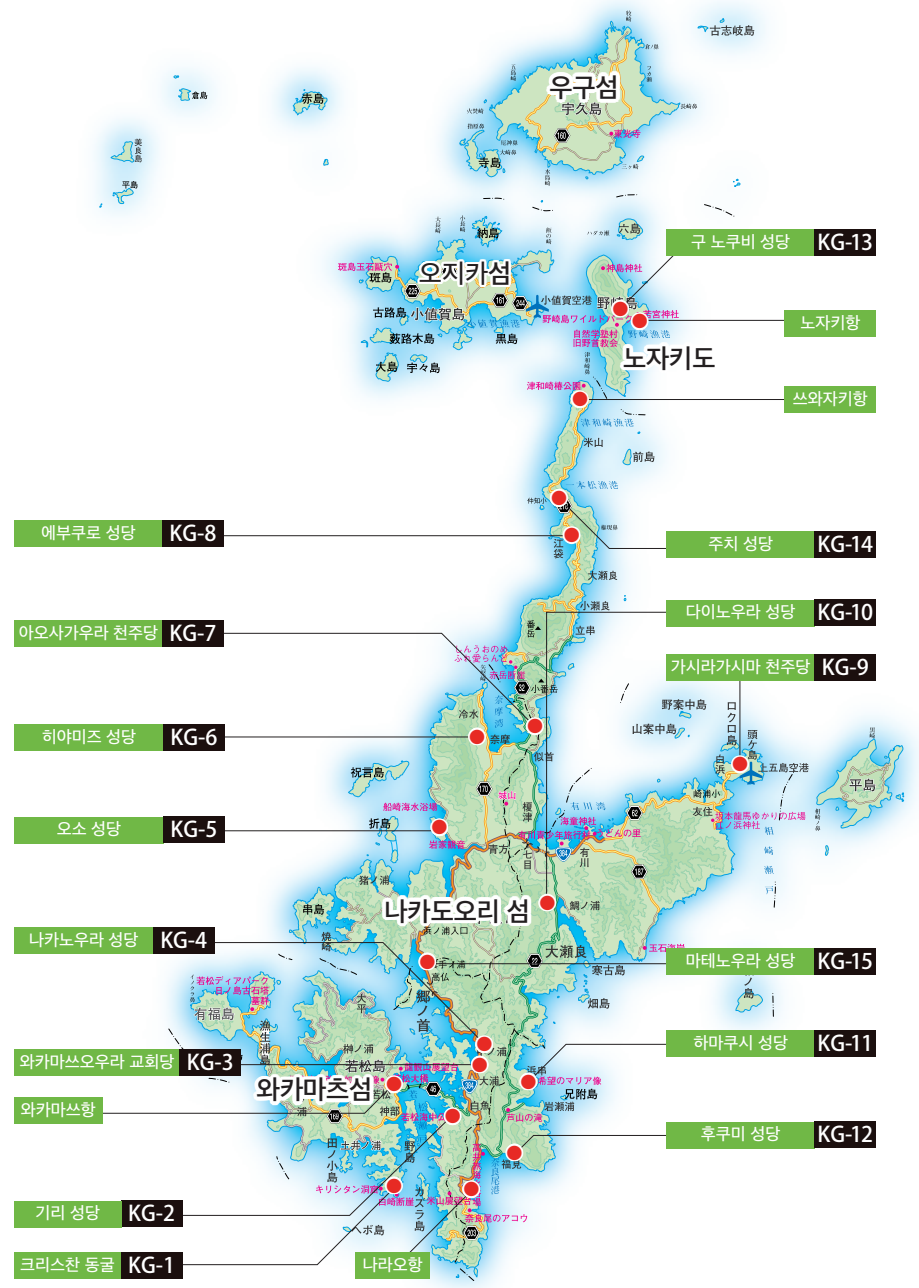


**고린 성당**

五輪教会堂

지금도 차로 직접 찾아갈 수 없는 히사카 섬(久架島)의 북동쪽에 있는 낭떠러지 아래에 작은 항구의 취락(고린)에는 두 개의 성당이 있다. 노후화 및 더 이상 미사가 불가능하지만, 가치가 재발견 되어 국가지정 중요문화재가 된 1881년에 건립한 구 고린 성당과 현재의 기도의 집으로 고토시에서 가장 새롭게 세운 신 고린 성당이 자리잡고 있다. 옛날에 통조림 공장이 있었던 장소이다.

●고토시 와라비초 고린  
위치 : 다노우라 항에서 택시 20분, 도보 10분.



고토열도 순례 모델코스 V

[와카마쓰섬, 나카도리섬] V-④

나라오항(출발)	차	15 분	↓
와카마츠항	선박	60 분	↓
크리스찬 동굴			

험준한 바위에서 있는 그리스도상

와카마츠항	차	15 분	↓
기리 성당	차	15 분	↓
와카마츠오우라 성당	차	5 분	↓
나가노우라 성당	차	15 분	↓
오소 성당	차	15 분	↓
히야미즈 성당	차	10 분	↓
아오사가우라 천주당	차	20 분	↓

푸른바다와 고토의 가톨릭 부활비  
고토 미인의 마리아님  
꽃심자의 인테리어  
데츠카와 요스케 설계한 벽돌로 지은 성당  
데츠카와 요스케가 최초로 설계 시공한 성당  
신자들이 벽돌을 저울려서 지었다는  
데츠카와 요스케 설계의 성당

에부쿠로 성당	차	50 분	↓
가시라가시마 천주당			

조용한 취락의 언덕에 서있는 민가모양의 성당  
데츠카와 요스케 설계 석조 성당

구 다이노우라 성당	차	20 분	↓
------------	---	------	---

구 우라카미천주당의 피폭 벽돌, 그리고 6인  
참살의 슬픈 역사

하마구시 성당	차	20 분	↓
후쿠미 성당	차	10 분	↓

곳에서 바다를 지켜보는 마리아님  
바다 바로 옆에 세워진 벽돌로 지은 성당

나라오항(종점)			
----------	--	--	--

[노자키섬] V-⑥

쓰와자키항(출발)	선박	20 분	↓
노자키항	도보	30 분	↓

해상택시 대절

구 노쿠비 성당			
----------	--	--	--

무인도에 서있는 데츠카와 요스케 최초의 벽돌로  
지은 성당

	도보	30 분	↓
--	----	------	---

세계유산으로 추천되어 있다

노자키항	선박	20 분	↓
쓰와자키항(종점)			



오소 성당

## 가톨릭 「고토 열도 크리스찬 역사」

고토열도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시기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실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1570년 후반쯤에 고토열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복음이 처음으로 고토열도에 전해진 것은, 병에 걸린 영주가 치료를 하기위해 1562년 개항한 니시소노기(西彼)반도의 요코세우라(横瀬浦)에 있던 선교사에게 의사의 과견을 의뢰하여 일본인 디에고 의사에 의해서 완쾌되었고, 그 후, 1566년 수도사 알메이다(포르투갈인/일본에 서양 의학을 가져온 최초의 인물)와 로렌소 제자와 함께 후쿠에 섬(福江島)을 방문하였다. 의료와 약의 지식에 풍부했던 알메이다는 영주와 그 가족을 치료해 준 것이 계기와 신뢰를 얻어 가미고토와 시모고토에 최초로 복음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선교가 시작되기까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다. 한가지 설은 1576년 가미고토의 와카마쓰 400명 주민 안에 300명이 천주교로 개종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1607년에는 루이스와 세투케이라 주교가 배에서 숙박하면서 고토열도의 각 지역을 돌면서 3,000명이 견진성사를 받았다고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으로 순교한 일본 26성인의 한 명인 성 요한 고토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1613년 전국에 금교령이 내려지면서, 기독교 신자의 단속이 심해져가고 있었다. 1617년에는 마샤도 신부가 가미고토에서 잡혀, 오무라에서 순교하였고, 그 밖에 고토열도에 있던 사제들도 잡혀, 이송되었다고 한다.

고토영주는 처음에 신자들을 보호 했었지만, 에도 시대에 들어서자 막부의 압박에 못 이겨 배교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토열도에는 신자가 계속 늘어나 1603년에는 2300명을 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1667년은 나가사키 봉행소(행정,재판등을 담당하는 곳. 무사)에서 후미에를 사용하여 고토열도에도 신앙조사(에도시대에 기독교를 금지하기 위하여 막부에서 실시. 개인마다 불교나 신사의 신도임을 소속한 절에서 증명)가 시작과 동시에 탄압이 심해지면서 신자들은 신앙을 숨겨버렸고, 고토열도에서는 신자들의 모습은 점점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고토열도 지역을 다시 기독교의 신앙을 부활하게 한, 소토메에서 은밀히 신앙을 지키왔던 기리시탄들이었다. 1797년 고토영주가 오무라 영주에게 “고토는 토지가 넓지만 사람이 적고, 황무지가 많다. 농민들을 이주 시켜주기 를.” 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오무라 영주는 성벽에서 바다와 산을 사이에 둔 소토메에는 기리시탄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소토메는 바람이 강하고, 좁고 메마른 토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농민들을 이주 시키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따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무라의 영지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각 가정에 장남만 남겨두고, 남은 아이들을 강제로 죽이기 위해서였다. (에도시대에 가난 한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워 산아를 죽인다.) 기리시탄들은 그런 큰 죄를 범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숨겨서 아이를 키웠지만, 매년 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여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숨긴 아이를 발견을 하더라도, 호적에 들어 갈 수가 없었다. 호적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영지에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1657년, 오무라에서 411이 처형 되면서, 박해가 시작되었다. 점점 단속이 심해지면서 기리시탄들은 “고토열도에 가고 싶다” 라고 하였다. 소토메(外海)에서 108명이 고토열도로 이주하고, 이주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 약 3천명 정도가 고토열도로 이주하여 들어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불교도로 성장하여 이주하였다. 1865년 나가사키(長崎)오우라천주당(大浦天主堂)에서 “신자발견”이 있는 후, 소토메(外海) 이주민의 후손인 가스펠이 고토에서 나가사키로 나가 오우라 천주당에서 프티장 신부를 만나고, 고토열도에 돌아와 신부의 재입국 사실을 전하자 숨은 기리시탄(カクレキリシタン)들은 100여년에 걸쳐 천주교로 돌아왔다. 도밍고 모리 마츠지로 등의 열정적인 전도활동으로 선교사도 위협을 무릅쓰고 몰래 가미고토를 찾아왔다. 그 후, 1868년 메이지 정부는 금교 정책을 계속하였고, 오우라에서 세례를 받은 히사카섬(久賀島)의 신자가 기리시탄임을 행정 관청에 표명하고 기리시탄을 배교 할 것을 거부 한 나머지, 고토의 모든 섬이 가톨릭의 신도 탄압이 시작되었다. 아주 좁은 감옥에서 박해를 받아, 8개월 간에 42명이 순교하였다. 이 것을 시작으로 「고토박해」라고 불리고 있다. 박해는 고토열도로 확산되었지만, 신자들은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왔다. 나가사키 등에서 일어난 박해는 여러나라들 로부터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 1873년에 금교령이 해제되고, 안정되자 1877년 마르망 신부와 브렐 신부가 고토시와 신카미고토초에 부임하고, 복지사업과 뒷받침하는 여성 공동체(여인의 방)이라고 불리는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신자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진해서 재산과 노동을 바치며 성당 건축에 나섰다. 선교사들의 의해 설계된 성당이 많이 남아 있으며, 성당 건축역사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던 가미고토 출신 데즈카와 요스케와 신자들의 합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성당도 헌당 되었다. 성당 내부에는 동백꽃등 장식을 입혀 지역 특색도 볼 수 있으며, 동백꽃은 고토열도에서 신앙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금도 신카미고토초에는 그 당시 가쿠레 기리시탄(잠복 크리스찬)이 존재하고 있다. 바다를 건너온 개척자답게 고난의 잠복 활동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마을에 크고 작은 성당을 세워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카노우라 성당 KG-4** 中ノ浦教会堂

나카노우라(中ノ浦)와 오우라(大浦)의 신자는 오우라(大村)에서 소토메의 구로사키 나가타(黒崎郷 永田)를 거쳐서 가미고토로 이주한 선조의 자손이라고 한다. 1926년에 목조 성당을 축복하고, 1966년에 중후가 증축되었다. 내부는 십자 모양의 빨간 동백꽃을 모티프한 장식과 해면에 아름답고 선 명쾌하게 비치는 성당의 모습이 특징이다.

●미나미마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슈쿠노우라고 나카노우라  
위치 : 나라오 항에서 차로25분 나카노우라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2분



**와카마쓰오우라 성당 KG-3** 若松大浦教会堂

나카노우라(中ノ浦)와 오우라(大村) 영토에서 이주한 선조들이 같은 오우라(大浦)에는 1926년에 축복된 성당이 있었다. 1948년에 새롭게 축복된 작은 성당의 중앙 제단에는 이 지구의 신자에 의해 일본여성 얼굴의 성모 마리아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발 밑에는 고토열도에서 신앙의 상징인 동백꽃이 장식되어있다.

●미나미마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슈쿠노우라고 오우라  
위치 : 나라오 항에서 차로25분 나카노우라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2분



**대웅교회 KG-5** 大曾教会堂  
**오소 성당** (현 지정 유형문화재 2007년3월)

오소(大曾)는 소토메(海外)의 이케섬(池島) 등에서 이주한 잠복 기리시탄의 자손이 살고 있는 취락이다. 대대로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신자들이 많았으며, 지금도 옛날부터 신앙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1879년에는 목조 성당이 있었지만, 1912년쯤부터 벽돌로 건축한 성당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신자들은 5개의 취락의 33가구의 신자들이 건축봉헌을 하였다. 가미고토를 담당하는 아마쿠사(天草) 출신의 오사키 야주(大崎八重) 신부가 테즈카와 요스케에게 의뢰하여 1916년에 현 성당을 건립하게 되었다. 현재의 벽돌 성당을 완공이 되면서, 목조 성당의 자제는 도이노우라 성당으로 이축하게 되었다. 팔각형 동근형태의 종루와 색이 다른 두 종류의 벽돌을 사용한 벽면이 특징이며, 서독일제의 꽃무늬(벚꽃) 스테인드글라스도 눈길을 끈다.

●미나미마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아오카타고 2151-2  
위치 : 아오카타에서 차로 5분, 도보 30분.

긴 기리시탄도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동굴 입구에는 높이 4m의 십자가가 3.6m에 이르는 그리스도상이 안치되어 있다. 매년 11월에는 동굴 앞에서 100여명이 미사와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그 당시 이 장소에 숨어 들어왔던 신자들의 자손이 아직도 와카마쓰에서 전조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

●미나미마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와카마쓰고  
위치 : 배로 밖에 못감. (와카마쓰 항에서 10분.)  
<해상택시>  
아스카마루 (明日香丸) : ☎ +81-90-4980-2200  
쇼후쿠마루 (祥福丸) : ☎ +81-959-44-1762  
세토시오 (せと志お) : ☎ +81-959-46-2020  
요금 : 1명 5,000엔 / 2명 이상, 한 사람당 3,000엔



**크리스찬 동굴 KG-1** キリシタン洞窟

「고토박해」가 일어났을 때, 와카마쓰 섬 사토노우라(若松島の里ノ浦)의 세 가구의 신자들이 필사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해안에서 입구를 발견하기 어려운 동굴에 숨어던 곳이다. 동굴 내부는 길이 50m, 폭 5m, 높이 5m 정도의 십자형의 구조이며, 벽면에는 성모 마리아를 새겼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 이른 아침에 아침 밥을 지으려고 물레 피운 모닥불 연기가 인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에게 발각되어 관청에 끌려가 여자와 아이는 물고문을 남자는 산기제매(삼각형 뾰족한 나무토막에 무릎을 꿇고 가슴 위까지 무거운 바위를 올려 행해지는 고문)라는 고문을 받아 다리에 장애가 생

**하리노멘도 (바늘구멍)** ハリノメンド

고토 사투리로 「하리노멘도」라고 불리고 있는 이 중요한 경관은 배로 밖에 갈 수 없는 곳이다. 크리스찬 동굴 근처에 있는 하리노멘도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 순례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자연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감동을 더해 주고 있다.



**기리 성당 KG-2** 桐教会堂



18세기 말 기리후루사토(桐古里)에 고토영주의 요청으로 소토메(海外)에서 와카마쓰(若松村)에 공식으로 이주한 잠복 기리시탄 자손들의 취락으로 가스펠 요사쿠가 1865년 3월 17일 고토열도에서 처음으로 오우라 천주당의 프티장 신부를 찾아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 이후 전도사가 된 가스펠 요사쿠는 1877년에 자신의 집을 임시성당 겸 전도사양성소를 만들어 청년들의 교육에 힘썼다. 또한, 지금도 많은 지역출신의 사제와 수녀들이 활약하고 있다. 1897년에 고토 중심지로서 기리소교구가 설립되고, 현 성당은 1958년에 건립되었다.

●미나미마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기리후루사토357-4  
위치 : 나라오 항에서 차로 10분

**信仰先達者顕彰碑**  
**신앙 지도자 현창비**

고토열도의 잠복 기리시탄들에게 최초로 사제 재입국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던 가스펠 요사쿠(ガスバル与作)와 고토박해로 심한 고문을 받고 옥사에서 풀려나 얼마 후에 사망한 가스펠 요사쿠의 아버지 시모무라 겐시치(下村善七), 전도사 기요카와 사와지로(清川沢二郎)의 공적을 기리는 비가 있다. 현창비를 자세하게 보면 산기제매(삼각형 나무토막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슴까지 무거운 바위를 올려 배교할 것을 강요함)라는 고문을 받는 모습이 재현되어있다.

●기리 성당 부지내







**하마쿠시 성당 KG-11**

濱串教会堂

하마쿠시(濱串)에는「우라카미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난 1830년대 무렵, 소토메의 가시야마(外海の檜山)에서 감복 기리시탄이 이주해 왔다. 그리고 고토열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십자선단이라고 불리는 결속력을 가진 크리스찬들의 향구를 만들었다. 1896년 고래를 잡은 이익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고래성당이라고 부르는 초대 성당을 세웠다. 현 성당은 1966년에 건립하였다.

●미나미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이와세우라고274  
위치: 나라오 항에서 차로 25분 아라카와 항에서 차로 50분

**희망의 성모상**

希望の聖母像

하마쿠시(濱串) 항 입구 곳의 끝에 은화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성모상이 세워져 있다. 노동의 결실과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항구를 출입하는 여선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면서, 1954년에 건립하였다. 무사히 돌아온 신자의 가족 모두가 함께 성모상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1996년에 비바람으로 손상되어 다시 세로 세웠다.

●하마쿠시 성당에서 차로 1분



**다이노우라 성당 KG-10**

鯛ノ浦教会堂

다이노우라(鯛ノ浦)일대에 있는 신자들의 선조도 마찬가지로 시조는 소토메, 개척자 시쓰(出津)의 미즈카타(水方) 요주(与重) 일가로 요주의 아들 도밍고 모리 마츠지로(森松次郎)는 가미고토의 신자 대표였다. 현 성당은 1903년에 건립한 구 성당은 노후화로 인하여, 1979년에 아래쪽에 있는 유치원 옛터에 새롭게 성당이 세워졌으며, 성당 앞에는「성가족」상을 안치하였다. 구 다이노우라 성당은 1880년부터 가미고토 지구를 담당한 브엘 신부가 다이노우라에 부임하여 교아를 위한 양육시설을 설립하고, 이듬해, 초대 성당을 건립하였다. 전고토열도의 주임으로 도자키(堂崎)에 부임한 페루 신부의 설계 지도와 가미고토를 맡고있던 아오사카우라에 부임한 오사키 야주 신부의 감독으로 1903년 현재의 구 성당이 건립하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 해군에게 접수 되었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1949년 증축 시, 왼쪽으로 붕괴한 우라카미 천주당의 피복벽돌을 정면 중루에 일부 사용하였다.

●미나미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다이노우라고 나카노 326  
위치: 아라카와 항에서 차로10분 나카노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2분  
◆다이노우라 부지내 : 브엘 신부 현창비, 다이노우라 루르드, 다카노스 6명 합설묘비

**다카노스(매의등지) 6인 참수**

나카도오리섬 다이노우라성당 근처의 《다카노스》라고 부르는 곳에서의 사건이다. 고토에서 박해를 피하여 히라도방면에 가있던 한 가족이 고향 다이노우라에 돌아와 다카노스라는 곳에 있던 빈집을 얻어 개간을 하며 살고 있었다. 가장이 친척의 장례식에 간 날 밤 갑자기 4명의 무사가 난입하여와서 집주인의 처와 아들, 한 살의 딸, 처제 부부, 태안의 아이 6명을 죽였다. 그리스도 교신자(금지된 종교를 믿는 사람)라는 것만으로 그들의 생명을 가볍게 본 것 같다. 이 때 11살, 7살, 6살의 어린이가 살아남았다. 이 사건은 정부가 여러 나라 공사에게 고토사건의 조사보고를 한 후였기 때문인지 고토한의 관리가 현장집회 검사를 와서 모든 것을 본 6살 남자 아이의 증언으로 범인을 잡아 고토한은 나가사키현에 조서를 보내 회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6개월 후 4명의 무사는 할복하였다. 현재 다이노우라 성당 근처에는 6인 순교자의 묘가 있고, 사건이 일어난 주택 터 근처에 순교비가 세워져 있다.



**아오사카우라 천주당 KG-7** (靑砂ヶ浦教会堂)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2001년 11월)

막부말기(1856년)의 우라카미 세 번째 박해의 순교자인 초카타(잡복 기리시탄의 리더) 요시조오(吉蔵)가 이 부근에 숨어 있다가 아오사카우라(靑砂ヶ浦)에서 잡혔던 곳이다. 소토메(外海)에서 이주한 기리시탄들의 자손인50여 가구의 신자들의 힘으로 해안 가까운 장소에 작은 집합 장소에 지나지 않았지만, 1878년 작고 규모가 큰 초대 목조 성당이 지어졌다. 1899년에 가미고토를 맡게 되었던 오사키 야주(大崎八重) 신부가 부임하고, 1910년 테즈카와 요스케의 설계·시공으로 전통적인 서양 식 디자인이 특징인 벽돌로 만든 세 번째 성당을 건립하게 되었다. 2010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 하였다.

●미나미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나마고 1241  
위치: 아오카타에서 차로 10분.



頭ヶ島教会堂

**가시라가시마 천주당**  
(국가지정 중요문화재2001년11월 세계유산잠정리스트 등록 2007년1월) KG-9

무인도였던 가시라가 섬(頭ヶ島)은 막부말기(1859년)에 감복 기리시탄들이 잇달아 이주하였다. 1867년에는 16가구 약130명이 이주하자, 다이노우라(鯛ノ浦)의 도밍고 모리 마츠지로(1835 ~ 1902)도 가시라가 섬으로 이주하였다. 자신의 집을 전도사양성소 겸 임시성당으로 사용했던 모리 마츠지로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쿠안 신부를 초대해 하자 각지에서 신자들이 모여들어 미사를 드렸다고 한다. 고토박해가 일어났을 때, 가시라가 섬의 신자들은 모두 옥사(전도사양성소)에서 도망쳐 잠시 숨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그 들의 자손이 아마쿠사(天草) 출신의 오사키 야주(大崎八重) 신부와 함께 테즈카와 요스케(鉄川与助)에게 의뢰를 하여, 일본에서도 드문 석조성당이 1919년에 축복 되었다. 그 당시 테즈카와 요스케의 나이는 40세였다. 신자들이 손수 하나 씩 자른 사람을 배로 운 반하여 쌓아올려 만든 가시라가시마 천주당은 돌 하나 하나에 신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다. 낮에는 성당 건축을 위한 노동과 봉사를 하고, 밤에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하는 등 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미나미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도모스미고 가시라가시마 638  
위치: 아라카와 항에서 차로 20분 가시라가시마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2분  
◆가시라가시마 전도사양성소 옛터(도밍고 모리 마츠지로)



**히야미즈 성당 KG-6** (冷水教会堂)

히야미즈(冷水)는「고토박해」이 전에 살고있던 신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새롭게 이주해 온 신자들이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1907년 후에 성당 건축의 일인자라고 말하는 테즈카와 요스케(鉄川与助)가 27살의 나이로 처음으로 설계·시공한 목조 성당이 세워졌다. 이 성당이 헌당되기 전까지는 바다(나마만) 건너편에 있는 아오사카우라 천주당으로 가룻배로 이동해서 미사를 드렸다고 한다. 히야미즈 성당은 아오사카우라 천주당의 순회 성당이 되었다.

●미나미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아마이게고 623-2  
위치: 아오카타에서 차로 10분.



江袋教会堂

**에부쿠로 성당 (현 지정 유형문화재 2010년9월) KG-8**

에부쿠로(江袋)는, 소토메(外海)에서 이주한 감복 기리시탄들이 1872년경에 천주교로 돌아왔다. 다른 지역에서 박해가 끝나고 1873년의 금교령의 고찰(覈말)이 철회된 직후에 심한 박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2년에 고토열도에서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았다고 소식을 접한 신자들은 시마다 기조(島田喜蔵) 신부(1856 ~ 1948)의 출신지인 에부쿠로에 성당을 세웠다. 오우라 천주당을 건립한 구로사키(黒崎)의 가와하라 구메키치(川原久米吉)와 17가구의 신자와 이웃 신자들과 더 불어 노동봉사를 하였다. 나가사키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성당이었지만, 2007년 2월12일에 화재에 의해 소손되었다. 이 지구는 많은 사제와 수도자가 나와 나가사키대교구의 협력을 받아 전국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2010년에 5월9일에 복원이 되었다.

●미나미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쇼에고 아카히마구치195-2  
위치: 아라카와 항에서 차로 45분 에부쿠로 성당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3분



후쿠미 성당 KG-12

福見教会堂

1799년 소토메의 구로사키(外海の黒崎)에서 5명의 기리시탄 이주가 후쿠미 성당의 역사가 시작 되었다「고토박해」가 일어나자, 신자들은 박해를 받기 전에 재빨리 후쿠미를 탈출하여 이듬해, 고 생 끝에 돌아왔지만 황폐해진 토지와 집은 처음부터 다시 개척할 수 밖에 없었다. 1882년에 초대 성당을 건립하고, 1913년 붉은 벽돌로 만든 현 성당이 현당이 되었다.

2013년 4월29일에 100주년을 맞이 하였다.

●미나미마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이와세우라고 후쿠미 위치 : 나라오 항에서 차로 15 분, 아리카와 항에서 차로 60 분.



주치 성당 KG-14

仲知教会堂

주치(仲知)는 1810년경, 소토메 마키노(外海の牧野)에서 5가구의 잠복 기리시탄들이 이주하여 개척한 곳이다. 브랜 신부가 가미고토 담당으로 부임되고 다음 해, 1881년에 성당이 건립 되었다. 현재의 성당은 1978년에 70여 가구의 신자들이 한 가구당 120만엔~140만엔의 건축비용과 노동 봉사에 의해 헌당 되었다. 1994년 이탈리아 장인을 초대하여 1995년에 완성된 스테인드글라스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구의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주치지구에는 가미고토에 5개의 수도원 중에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주치수도원이 있다.

●미나미마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쓰와지키 991 위치 : 아리카와 항에서 차로55분 주치 성당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3분



노쿠비 성당 (현 지정 유형문화재) KG-13 野首教会堂

지금은 무인도가 되었지만, 노자키 섬에 노쿠비와 후나모리 두 개의 잠복 기리시탄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취락이 있었다. 1881년에 후나모리, 1882년 노쿠비에 성당이 세워졌다. 노쿠비와 후나모리의 신자들이 결속하여, 다비라 성당을 세운 나카다 도키치(中田藤吉)신부가 섬의 신자와 함께 1908년에 시공을 한 데즈카와 요스케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벽돌로 만든 성당을 지었다.

●기타마쓰우라군 오지카초 노쿠비고 노쿠비 위치 : 노쿠비 항에서 도보 20 분. ※관람은 예약이 필요함. (오지카 아이랜드 투어리즘 협회 TEL. +81-959-56-2646)



마테노우라 성당 KG-15 真手ノ浦教会堂

마테노우라(真手ノ浦)는, 1900년대에 가미고토 각지의 신자들이 이주하여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1910년경, 현재의 오라쇼관(기도실)에서 목주 기도를 드리는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1956년 그 자리에 성당을 세웠지만, 노후화로 인해, 2010년에 새로 지어졌다.

●미나미마쓰우라군 신카미고토초 아마자토495-2 위치 : 아오카타에서 차로 10분, 나라오 항에서 30분, 마테노우라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3분

고토 구주레(고토에서의 그리스도교 신자 박해 사건)

1867년 우라카미 마을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우라카미 4번째 박해)가 시작되었다. 아직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표명한 신자들이 체포된 사건이다. 열심히 신앙을 지켜온 그리스도교 신자가 살고 있는 고토열도에 있어서도 1868년 10월, 나카도오리섬 기리에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카미다나 불단을 지금까지와 같이 집안에 둘 수가 없다고 관청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체포되고 박해가 시작되었다. 11월 히사카섬에서 박해가 시작되어 200여명이 6평 넓이의 작은 옥에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갇혀서 고문과 기아로 42명 (출옥 후 사망자 3명 포함)이 사망하였다.

가혹한 고문과 추궁이 고토열도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러한 사건을 프치잔 주교가 일본국내에 있는 여러 외국 공사들에게 보고하여 공사들은 메이지정부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에 의하여 나가사키현이 고토의 사건을 조사하였다. 1870년 1월 1일에 메이지정부는 「잔혹한 고문 등은 사실무근...」 등이라는 회답을 공사들에게 하였다고 한다.

많은 신자들은 박해를 피하여 각지에 피난하고 있었지만 박해가 고비를 넘겨 누구러지자 차츰차츰 고향에 돌아왔다. 그러나 금교는 풀리지 않고 오랜 그리스도교에 대한 편견은 없어지지 않아 「다카노스(매의 둥지) 6인 참수라는 일부부사에 의한 그리스도교도 참살 사건 등이 일어났다.

오무라 영에서 고토 영으로 이주

현재 고토열도에는 약 50개의 교회당(가톨릭)이 있는데 거의가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신앙을 지켜 박해시대를 극복한 소토메를 신앙의 고향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취락에 있다.

오무라현의 소토메에서 고토열도로 농민이 이주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1773년부터 시작되어 있다. 그리고 고토영이 오무라현에 개척을 하는 농민이주를 요청하여 1797년 그 제1진 108명이 파도 높은 고토여울을 건너갔고, 이주는 그 후에도 계속되어 모두 합하여 3000여명의 사람들이 건너갔다고 한다. 그들의 거의는 표면으로는 불교도인 체하고 마음속은 금하여진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잠복기리시탄)이었다. 많은 이주자들은 가파르고 험준한 토지를 개척하면서 후래자로 정주한 주민으로 고난을 이겨내면서 취락을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소토메에서 살던 때와 같이 「이제 곧 고향을 들어 주는 신부가 온다」라는 예언을 믿으며 기다려서 바쿠후말의 신앙 부활의 때를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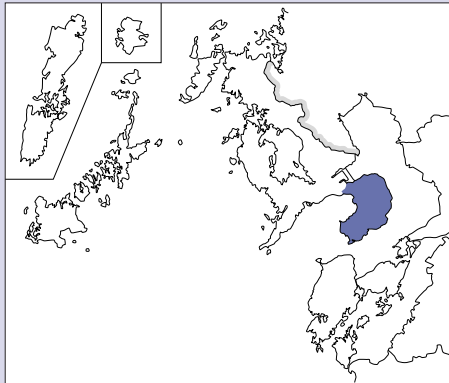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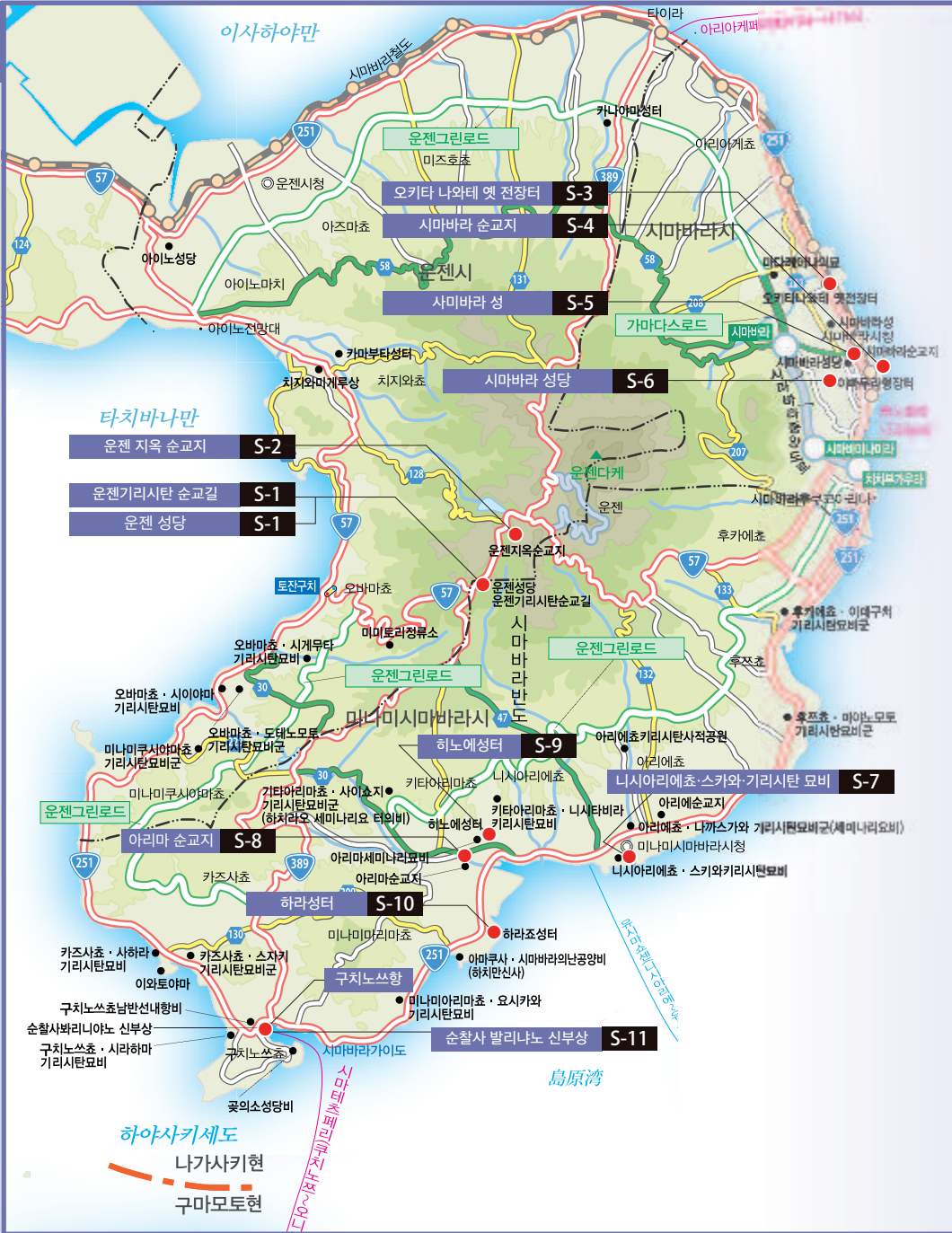
다카노스 신앙의 유산

1870년 1월27일 깊은 밤, 아리카와 출신 4명의 무새 토착 농민으로서 무인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다카노스의 신자 나카다 도라키치(中田寅吉)의 집에 잠입하였다. 그들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그리스도인을 토벌하러 왔다」고 소리치며, 도라키치의 부인 요네, 장남 유지, 차녀 레쓰, 그리고 히라도(平戸)에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왔던 요네의 여동생과 태아까지 칼로 깊숙이 찔러, 두 가족 6명 이 잔혹한 살해로 순교하였다.

선조의 신앙을 바라는 기도.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 주셨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은 선조들의 고귀한 생명을 돌아보소서. 저희들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이 땅에 뿌려진 신앙의 씨앗으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다카노스에 봉헌된 가족6명의 생명이 가미고토 성당을 지지하며 더욱 신앙의 길로 인도 하소서. 또한, 저희들도 믿음으로 한 알 작은 씨앗으로 이웃에게 주님의 자비를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시마바라반도·아마쿠사 순례 모델 코스 IV

[시마바라반도] IV-①			
JR 나가사키역(출발)	차	120 분 ↓	
운젠기리시탄 순교길	도보	5 분 ↓	나가사키·시마바라 반도의 기리시탄 합류, 운젠 순교지로
운젠 성당	차	5 분 ↓	운젠순교자에 바친 성당
운젠 지옥 순교지	차	40 분 ↓	바로 우치보리사쿠에몬들의 순교지
오키타 나와테 옛 전장터	차	10 분 ↓	아리마하루노부와 류조지타카노부의 전장터
시마바라 순교지	차	10 분 ↓	레이큐공원의 앞바다. 바로 우치보리사쿠에몬의 자식들
사미바라 성	차	5 분 ↓	아마쿠사·시마바라난을 전시한 코너 있음
시마바라 성당	차	20 분 ↓	시마바라순교자 기념 성당, 복자 나가우라 줄리안 상 등
니시아리에초·스카와 기리시탄 묘비	차	15 분 ↓	국가지정사적. 17 세기의 기리시탄 묘비
아리마 순교지	차	5 분 ↓	많은 기리시탄이 지켜보는 가운데 8 인이 화형에 처하여 짐.
히노에성터	차	10 분 ↓	기리시탄 다이묘·아리마하루노부가 거주하던 성. 포구 근처에 아리마세미나리요비가 있다.
하라성터	차	15 분 ↓	아마쿠사·시마바라난 종언의 땅. 근처에 공양비 있음. 기리시탄 자료관 등이 있다.
순찰사 발리나노 신부상			구치노쓰항 터미널 옆. 공원 안에 있음.
구치노쓰항 (종점)	선박	30 분	(아마쿠사 순례 페리 이동)

# 시마바라 반도순례



시마바라성

## 시마바라 반도 기독교 역사 적요

### ○아리마씨

시마바라 반도의 아리마씨는, 히노에성을 거점으로 아리마하루즈미 시대 현재의 사가현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던 전국시대의 영주이다.

오무라스미타다가 포르투갈과의 무역항을 요코세우라에 개항한 1562년, 스미타다의 형인 하루즈미의 아들 요시사다도 구치노쓰를 개항하고, 예수회의 선교장 톨레스신부에게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여 다음 해 알메이다 수사가 시마바라반도에 와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해에 기리시탄이 된 스미타마를 배척하는 동란이 오무라령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더니, 아리마령내에서도 동란이 일어나, 선대의 하루즈미에 의하여 그리스도교가 금지되지만, 다음해 1564년 선교장 톨레스 신부를 구치노쓰로 맞아드려, 1567년 포르투갈 상선이 처음으로 구치노쓰에 입항하였다. 요시사다는 가독을 물려준 적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차남 하루노부에게 가독을 잇게 하여, 자신은 1576년에 세례를 받았다. 가신이랑 가족들도 같이 세례를 받지만 그 해 요시사다가 세상을 뜨니, 하루노부는 성당을 세운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영내에서의 선교가 다시 어렵게 되었다.

1571년부터 나가사키에 입항하고 있던 포르투갈 상선이 1579년 오랜만에 구치노쓰에 입항하였다. 예수회 순찰사 발리나노 신부가 승선하고 있었다.

사가의 류조오지 타카노부의 침공이 자주 일어나고, 아리마하루노부는 봐 리니아노신부로부터 식료품등의 원조를 받고, 1580년에 세례를 받는다. 성 근처에는 일본 교회를 이끌고 갈 일본인 성직자를 육성하기위한 세미나 리요가 창설되었다. 1584년 하루노부는 사즈마로부터 원군을 받아 오키다 나와테에서 류조지타카노부를 무찌른다. 위기를 벗어난 하루노부는 우라카미를 예수회에 기부하였다. 우라카미는 1587년 선교사 추방령을 발표해도 요토미히데요시에게 몰수 당하고 직할령이 되지만, 하루노부가 선교사들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오사카에 있었던 세미나리요는 아리마의 세미나리요와 합병하였으며 봉고의 수련원과 코레조도 시마바라 반도에 옮겨왔다. 그 후에도 히데요시의 눈을 꺼리면서 교육시설을 여기저기로 옮기면서 학생들을 공부시켰다.

### ○박해

아리마하루노부는 1600년 세키가하라의 싸움에서 이겨서 정권을 잡는 도쿠가와쪽에 가담하여 살아남지만, 마카오로 보낸 무역선에 타고 있던 가신과 포르투갈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막부명령에 따라 나가사키에서 포르투갈 상선을 침몰시키고 예수회와 헤어진다. 그리하여 잃었던 선조의 영지를 되찾게 되지만 오카모토다이하치(도쿠가와이에 야스의 측근 혼다마사즈미의 가신)라고 하는 기리시탄에게 속아서 저지른 수회사건으로 1612년에 참수되었다. 그 후 이에 야스가 그리스도교 금교령을 직할령과 아리마씨의 영내에 발표하니 이에야스의 증손녀와 결혼한 후계자인 아리마 나오즈미는 바로 영내에서 선교사를 추방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은 기리시탄을 본보기로 처형하였다.

1614년 나오즈미는 노베오카(미야자키현)로 영지가 바뀌고 막부 직할령이 된 시마바라반도에서는 각지에서 순교가 계속되었다.

1616년부터 영주가 된 마츠쿠라 시게마사는 당초에는 기리시탄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었지만 1627년부터 운젠온천의 열탕에서 고문을 시작하였고, 후계자인 가즈이에게 주민에게 압정을 하였기 때문에, 1637년에 주민들이 난을 동시에 일으킨 아마쿠사의 주민과함께 하라성에서 농성하여 1638년막부군의 총 공격으로 전멸하였다. (합해서 3만여명의 기리시탄이었다고 한다.)이 싸움에 노베오카 영주 아리마 나오즈미는 막부군으로 참전하고 있었다.

난이 끝난 후 시마바라 반도의 부흥은 도쿠가와씨를 따르고 있던 가신들이 말아하였고 주민이 없어진 곳에는 막부의 명령에 의하여 타지방에서 개척민이 이주하여 왔다.



### ○부활

1865년에 오우라 천주당에서 역사적인 「신도발견」이 있었고, 현대 각 지의 잠복 기리시탄들이 가톨릭으로 복귀하였지만, 시마바라 반도에서는 1900년 아리에의 나카스강에서 기리시탄 묘비가 발견된 2년 후에 겨우 가톨릭의 재선교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지금 시마바라 반도에는 130여개의 17세기 초기의 것이라고 하는 기리시탄 묘비가 확인되어 있다. 예전에 영주 스스로가 기리시탄이었던 오무라한은 한의 존속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리시탄을 단속하였고, 묘비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묘비는 매우 적지만, 시마바라 반도에서는 난에 의하여 주민의 태반이 흔적없이 사라지고 위정자도 교체되었기 때문일까 많은 묘비가 남아있다.

1600년경 7만여의 주민들이 모두 기리시탄이었다고 하는 시마바라 반도에서 현재의 성당의 기초를 만든 것은 메이지이후 시마바라에 이주하여 온 가톨릭 신자들이다.





### 운젠기리시탄 순교길 S-1

雲仙教会堂

기리시탄들이 운젠에서 모친 고문을 받기 위해서 아리에와 오바마에서 올라온 산길의 합류점에 당시의 것이라 하고는 돌기둥이 있다. 「이곳부터 운젠까지 18정 왼쪽 미남레길(시마바라반도 남쪽길) 오른쪽 오바마길」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한다.

●운젠 성당 아래

### 운젠 성당 (북자 안토니오 이시이다와 동지 순교자) 雲仙キリシタン殉教道

수난의 기리시탄 역사를 전하고 있는 운젠에는 1981년에 현재의 성당이 건립되었다. 시마바라에서 태어나 1614년 금교령 발표후에도 사제로서 남아있다가 히로시마에서 체포되어 운젠지옥에서 고문을 받고, 니시자카에서 순교한 안토니오 이시이다와 운젠의 순교자에게 봉헌되어 있는 성당이다.

●운젠시 오바마초 운젠 후다노하라 422-2

### 운젠 지옥 순교지 S-2

雲仙地獄殉教地

1627년부터 1631년까지 지옥의 열탕물을 끼얹고, 열탕에 던져 넣고 기리시탄을 처형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가혹한 고문을 한 땅이다. 아리 마나오즈미가 휴가로 영지 변경이 되었을때 신앙을 일관시키기 위하여 따라가지 않고 남은 가신 바오로 우치 보리사쿠에몬 등이 1627년 2월 28일 운젠의 최초 순교자가 되었다.

●운젠 지옥의 운젠 비지터센터측 안쪽에 십자가비가 있다.



沖田原古戰場跡

### 오키타나와테 옛 전장터 S-3

사가성을 거점으로 1570년의 이마야마 결전에서 오토모 소립을 패배시켜 오토모 지배하에 있던 오무라,아리마를 포함한 히젠 일대를 수중에 넣은 류조지 타카노부는, 1584년 총력을 집결해서 원군인 사즈마 세력과 함께 시마바라성을 포위한 아리마 세력과 격전끝에 오키타나와테에서 전사한다. 이 싸움에 의하여 류조지에 종속하고 있던 오무라 씨도 해방되었다.

●시마바라시 카타몬마치 / 국도 251호선 도 로연변에 안내 있음.



### 시마바라 순교지 S-4

島原殉教地

1627년 2월 21일 감옥(시마바라성)에서 기리시탄들이 끌려나와 그 가운데 16사람이 성의 해자 바로 옆에서 손가락이 잘리고, 목에는 돌을 달아매어 배에 태워져 바다에 던져넣고는 끌어올리고를 반복하다 마지막에 가라앉았다. 남은 기리시탄들에게는 그 광경을 보게하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바오로 우치보리 사쿠에몬 도 다섯살 난 이구나치오를 포함한 세 아들의 순교를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다. 1792년의 대 지진으로 지형은 변했지만 1563년에 알메이 다 수도사가 성당을 세운 섬 앞에서 순교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시마바라시 벤텐마치 / 영구공원의 앞 바다.



### 시마바라성 S-5

島原城

1616년 시마바라에 부임한 마즈쿠라 시게마 사가, 1624년 7년 걸려서 쌓은 성이다. 아마 쿠사 시마바라의 난이러던가 1792년의 대지진에서 손괴는 면하였지만 메이지 유신으로 폐성이되고, 1876년에 해체되었다. 1964년에 천수각을 복원하여 기리시탄 역사를 포함한 시마바라의 역사를 소개하는 자료관으로 사용 하고 있다.

●시마바라시성내 정목1183-1 TEL.0957-62-4766 / 개관시간 9:00~17:30(입장은 17:00까지) / 입장료 대인 520엔, 초·중·고생 260엔, 단체30명이상 개인외 2할인.



島原教会堂(日本26聖人殉教者)

### 시마바라성당 (일본26성인 순교자)

S-6

아마쿠사·시마바라의 난이 끝난 후, 기리시탄은 근절되었다고 하는 시마바라반도에서 선교가 재개된 것은 1902년부터이다. 1931년에 시마바라성 해자 바로 옆에 니노마루성당을 건립하고,1940년 해자 밖으로 이전하여 우에노마치 성당이 되고, 현재지에는 1997년에 건립축성하였다.

●시마바라시 시라치마치 1066-3



福者中浦ジュリアン像

### 복자 나카우라 줄리안 상 S-6

시마바라성당 경내에 있다. 나카우라 줄리안 은 세이히반도 나카우라에서 태어나 영주 오 무라스 미타다의 대리인으로 덴쇼유렵파견 사절에 참가하여, 예수회에 입회하고 사제가되어 그리스도교 금교하에 시마바라·아마쿠사·아쓰시로 등지를 순회 포교중 코쿠라에서 체포되어 1633년 니시자카에서 순교하였다. 또한 경내에는 시마바라 앞 바다에서 순교하여 188복자에 시복된 바오로 우치보리사쿠에몬의 세아들상이 2011년에 안치되었다.



西有家町・須川キリシタン墓碑(国指定史跡)

### 니시아리예초·스카와 기리시탄 묘비 S-7

(국가 지정 사적)

아리마 성에서 4km정도 떨어진 아리마 영내의 기리시탄 유력자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 아리에의 스카와항 근처 공동묘지 지하에서 1929년에 발견되었다고 하는 반원주형 기리시탄 묘비이다. 비의 배면에 꽃십자무늬, 정면에는 로마 글자로 「휘리사쿠에몬 디오고 생년 1603출생 이래 1610+월16제이초15」라고 써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로마자 금석문이라고 한다.

●미나미시마바라시 니시아리예초 스카와.



### 아리마순교지 S-8

有馬殉教地

아리마 나오즈미는 1612년 선교사를 추방하고, 막부직할지, 하타모토, 아리마령에 그리 스도교 금교령이 발포되니까 신앙을 버릴 것을 거부한 아리마의 가신 아도리아노 타카하 시몬도, 레오 하야시다 스케에몬, 레오타케토 미칸에몬과 그 가족 합쳐 8명을 1613년 10월 27일 많은 기리시탄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앞 강 가운데의 모래톱에서 화형에 처했다. 2008년 8명은 복자로 시복되었다.

●키타아리마 청사에서 약30m지점.



### 히노에성터 (국가지정 사적) S-9

日野江城址(国指定史跡)

전성기에는 히젠 동부를 영유하고 있던 전국시대 다이묘(영주) 아리마씨가 주거하던 성이다. 1584년에 류조지씨를 격퇴한 기리시탄 아리마 하루노부는 아리마의 세미나리요에서 공부한 4소년이 1590년 로마에서 돌아왔을 때 새로 축성한 성에 초대 하였다. 근년의 조사에서 금박기와라던가, 오룡담을 디딤 돌로 한 계단 유구, 대륙계의 돌담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미나미시마바라시 키타와리마초 / 동쪽에 「정문」, 서쪽에 「포구」가 있다.



有馬セミナリヨ碑

### 아리마의 세미나리요 비

1579년에 일본에 온 예수회 순찰사 발리냐노 신부는 일본에서 그리스도교를 널리 포교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협력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580년에 세례받은 아리마하루노부 가 준 토지에 신학교를 지었다. 신부가 만든규칙, 시간표를 기본으로 소년들이 라틴어와 서양음악등을 배우고, 일본문학에 대한 조예를 깊게 하였다. 아리마에서는 학교를 3회 개설하고 있었지만 장소는 어디인지 특정되어 있지않다.

●아리마 세미나리요비가 히노에성 포구 근처에 있다.



### 하라성터 (국가지정사적) S-10 (原城址(国指定史跡))

아마쿠사·사마바라란의 무대이다. 아리마 하루노부가 구축한 새로운 성이라고 1604년에 수회 선교사의 보고서에 있다. 쉽게 침입을 할수 없게 방위기능을 갖는 근세 초기의 성으로 국내 최대급 호구의 유구가 있다. 성터에 서는 아리마하루노부와 관계가 있다고 전하는 금십자기와 인골이라던가 화승총탄, 그리고 납으로 만든 십자가등이 출토되었다.

●미나미시마바라시 미나미아리마초 오프 / 국도251호선 연변에 안내판 있음.



天草・島原の乱供養碑(八幡神社)

### 아마쿠사·시마바라의 난 공양비 S-10

(야하타신사)

1648년 아마쿠사의 초대지방관 스즈키시게나리가 아마쿠사·시마바라의 난에서 죽은 기리시탄 들의 머리를 묻은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영혼의 안식을 빌기 위하여 세운 공양비의 하나라고 한다. 비문은 토미오카의 공양비와 같은 아마쿠사 토코지 주지의 중화수구문이라고 한다.

●하라성터 남서쪽 하치만 신사 경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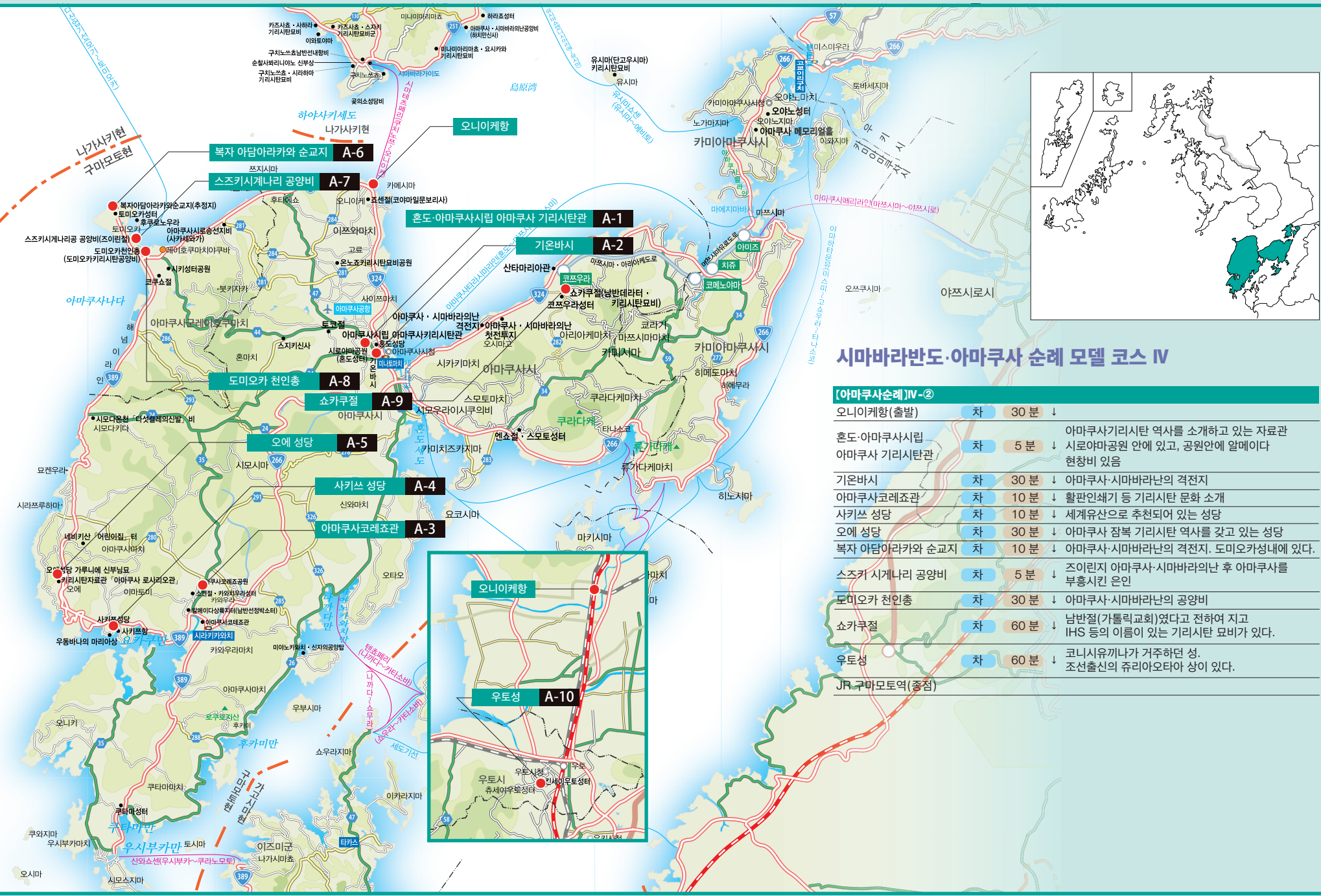
巡察師ヴァリニャーノ神父像

### 순찰사 발리냐노 신부상 S-11

S-11

동인도 순찰사(예수회 총장대리) 발리냐노 신부가 승선한 포르투갈 상선이 1579년 7월 25일 구치노쓰에 입항하였다. 순찰사는 하비에르 신부의 선교개시에서 30년이 지난 일본을 둘러보고 선교방법을 평가하고 일본인 성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세미나리요, 코레조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유럽에 일본에서의 선교성 과를 알리고 또한 일본인에게 유럽문화를 실감하고, 체험하도록 로마에 네 소년들을 보냈다. 2012년 현재의 구치노쓰항 옆에 아리마하루노 부에게 세례를 준 발리냐노 상을 세웠다.

●미나미시마바라시 구치노쓰초



### 시마바라반도·아마쿠사 순례 모델 코스 IV

[아마쿠사순례] IV-②			
오니이케항(출발)	차	30 분 ↓	
혼도·아마쿠사시립 아마쿠사 기리시탄관	차	5 분 ↓	아마쿠사기리시탄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자료관 시로야마공원 안에 있고, 공원에 알메이다 현창비 있음
기온바시	차	30 분 ↓	아마쿠사·시마바라반도의 격전지
아마쿠사코레조관	차	10 분 ↓	활판인쇄기 등 기리시탄 문화 소개
사키쓰 성당	차	10 분 ↓	세계유산으로 추천되어 있는 성당
오에 성당	차	30 분 ↓	아마쿠사 잠복 기리시탄 역사를 갖고 있는 성당
복자 아담아라카와 순교지	차	10 분 ↓	아마쿠사·시마바라반도의 격전지. 도미오카성내에 있다.
스즈키 시게나리 공양비	차	5 분 ↓	즈이린지 아마쿠사·시마바라반도 후 아마쿠사를 부흥시킨 은인
도미오카 천인총	차	30 분 ↓	아마쿠사·시마바라반도의 공양비
쇼카쿠절	차	60 분 ↓	남반절(가톨릭교회)이었다고 전하여 지고 IHS 등의 이름이 있는 기리시탄 묘비가 있다.
우토성	차	60 분 ↓	코니시유키나가 거주하던 성. 조선출신의 주리아오타야 상이 있다.
JR 구마모토역(종점)			

# 아마쿠사 제도 순례



사키쓰성당

## 아마쿠사 제도 기독교사 적요

### ○아마쿠사 5인중

전국시대 히고노쿠니 아마쿠사에는 5인중(아마쿠사씨, 시키씨, 오야노씨, 고즈우라씨, 수모토씨)이라고 부르는 영주들이 있었다. 아마쿠사씨가 1563년 최초로 예수회에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지만 일본 최초의 기리시탄 다이묘(영주) 오무라 스미타다의 동생 양자로 한 시키씨 쪽에 1566년 알메이다 수사가 파견되어 아마쿠사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 대한 저항이 강하여, 1569년 알메이다 수사를 맞아들인 아마쿠사씨도 동생들에게 쫓겨났다가 붕고 오토모소린의 도움이 있어서 영지를 되찾고 선교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1578년 사즈마의 시마즈씨가 오토모씨와 싸워 이기면서 5인중은 시마즈씨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1584년 히젠의 류조지 타카노부와 싸워 이긴 시마즈씨는 규슈의 패권을 잡지만, 1587년 국내 주권을 잡은 도요토미히데요시의 규슈출병으로 후퇴하였다. 사즈마군으로서 싸운 5인중도 패자가 된다. 히데요시가 선교사 추방령을 내린 직후 오야

노씨는 세례를 받고 아마쿠사에는 선교사들이 숨어 있었다.

규슈를 평정한 히데요시는 가토키요마사를 히고노쿠니 북반부의, 코니시 유키나가는 남반부의 다이묘(영주)로 명하였다. 1589년 아마쿠사 5인중은 코니시유키나가에 모반하지만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하여 출진한 카토·고니시 군에 항복한다.

아마쿠사에서는 유력한 기리시탄 영주 코니시 유키나가의 통치아래 스모 토씨, 고즈우라씨가 세례를 받고 주민들도 기리시탄이 되어 그리스도교 교령하의 일본에서 아마쿠사는 선교사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로 되었다.

아마쿠사에는 수련원이라 코레조가 몰래 이설되고 활판 인쇄기가 들어오고 유럽 문화가 꽃피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세루케이라 주교가 한동안 위험을 피해서 이곳에 와 있어서 아마쿠사가 일본에서의 그리스도교 선교의 중심이 됐던 시기도 있었다.

### ○박해

그러나 주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넘어가고 고니시유키나가는 세키가하라 싸움에서 저서 처형되었기 때문에 아마쿠사는 한때 카토키요마사의 영지가 되지만, 후에 가라스 영주로 나가사키 행정관인 데라사와 히로타카의 영지가 되어 이러한 과정에서 5인중은 구마모토 영주나 가라스영주의 가신이 된다. 데라사와는 한 동안 선교사의 활동을 방임하였지만 막부가 그 리스도교 금교령을 발표 후에는 단속을 강화하였다.

1614년부터 1633년까지의 아마쿠사 순교사실이, 일본 각지의 많은 순교 기록과 함께 유럽에 남아 있다.

아마쿠사는 토지의 80%가 산이고, 논밭의 면적은 10%도 못 되는 섬이다. 그러나 데라사와 히로타카는 실적에 맞지 않는 수확고를 막부에 신고하여 주민들에게서 세를 가혹하게 징수하였고 후계자인 데라사와 카타타카도 그 정책을 이어갔다.

아마쿠사 주민들은 일기 불순으로 인한 흉작이 계속되어 시마바라 주민들과 같은 모양으로 압정에 시달려, 1637년 에도 막부를 진감시킨 아마쿠사·시마바라의 난을 일으켰다.

그리고 시마바라의 하라성에 농성하여 전멸하였다. 그 대다수가 기리시탄 이었다고 되어 있다. 막부 직할지로 된 아마쿠사의 초대 지방관 스즈키시게 나리는 난 후의 아마쿠사 부흥을 위해서 세의 인하를 위한 수확고 변경을 막부에 직소하였다. 후계자인 스즈키시게토키도 이것을 진정하여 시게나리의 사후 6년인 1659년 원하던 대로 변경되었지만, 막부말 1845년 빈민들이 관아·부잣집 등을 때려 부수고 약탈하는 소동으로 대표되는 농민 봉기가 때때로 일어나고 있었다.

아마쿠사·시마바라의 난에 아마쿠사의 시모시마 서부·남부 사람들은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오에, 사키쓰, 이마토미, 다카하마에는 세례를 주는 등의 행사를 주관하는 '선인님'을 중심으로 몰래 신앙을 지켜 온 사람들이 있었다. 1805년 그들의 존재가 발각되어 5,000명이 취조를 받았지만 엄한 처벌은 취하여 지지 않았다.

### ○부활

쇄국을 풀고 개국한 후 나가사키에서 외국인 거류지 조성, 파리외방전교 회에 의한 가톨릭성당 건립 등에 아마쿠사 사람들이 관여하였다. 1865년 그 성당에 우라카미의 잠복기리시탄들이 찾아와서 200여년이나 기다리고 있던 사제와 재회하여 본래의 가톨릭으로 복귀하고, 그 후 소토데라던가 고토 등의 기리시탄들도 찾아왔다.

아마쿠사는 그리스도교 금교의 방이 철회된 1873년에야 겨우 나가사키 기미노시마의 신자가 오에의 잠복기리시탄을 방문하여 일부가 가톨릭으로 복귀하지만 한참동안은 그리스도교식의 장례가 세간의 평판을 받아 종교를 바꾸는 전종계가 각하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사제가 순회하고 1880년부터 주임사제가 부임하여 공동체로서 오에성당, 사키쓰 성당을 설립하였다. 3대째의 주임 사제 가루니에 신부, 그리고 1897년부터 사키쓰 성당 주임이 된 하루부 신부가 군국주의로 향해 가고 있는 일본에서 지역에 융화되어 자기를 희생하며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한 모습이 지금에도 전하여 지고 있어서, 그들이 만든 성당은 지금 아마쿠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쿠사를 대표하는 풍경으로 되어 있다.





天草市立天草キリシタン館

아마쿠사시립 아마쿠사 기리시탄관

2백여점의 자료를 전시하여 그리스도교의 전래에서 부활까지 아마쿠사에서의 기리시탄역사를 소개하고있다.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아마쿠사 시로 진중기」를 소장하고있다.

●아마쿠사시 후나노마치 19-52/TEL: 0969-22-3845 / 입장료: 2층전시실만 유료(일반 300엔, 고교생200엔, 초중학생 150엔)(20명이상 2할인) / 개관시간: 오전8:30~오후6:00 (입관은 오후5:30까지) / 휴관일: 12월 30일~다음해 1월 1일



A-4

사키쓰성당 (예수성심) 崎津教会堂(イエスのみ心)

사키쓰는 잠복기리시탄의 자손들이 사는 취락의 하나이다. 오에에서 사키쓰로 공소를 순회하고 있던 웨리에신부가 1888년 목조로 성당을 짓고 후임인 가르니에신부도 순회를 이어갔다. 1927년에 하루부신부가 사키쓰의 주인사제로 부임하여 촌장의 집터였던 땅을 사서 1934년 현재의 성당을 지었다. 메이지시대초 까지 예수님의 초상뱀기를 하고있던 장소에 제단자리를 정하였다고 한다. 성당건축의 도판수는 1932년에 오에성당을 지은 데즈카와 요스케이다.

●아마쿠사시 가와우라마치 사키쓰



A-5

오에성당 (수태고지의 성모) 大江教会堂(お告げの聖母)

1873년에 찾아온 나가사키 신자의 선교로, 오에는아마쿠사의 잠복기리시탄 취락에서 최초로 가톨릭 으로의 부활이 있었다. 얼마후에 신자 들이 작은 성당을 세웠고, 1882년 아마쿠사의 주인 사제로 부임한 웨리에신부가 오에에 목조성당을 세우고 사키쓰를 순회하였다. 1889년부터 웨리에신부는 아마쿠사를 일본인 사제(보좌신부)에게 맡기고 기고시마 방면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아마미 오시마로 전임하였다. 후임에 가르니에신부가 부임하여 1932년 성당건축의 제1인자인 데즈카와요스케의 설계시공으로 콘크리트로 된 현재의 성당이 건립되었다.

●아마쿠사시 아마쿠사마치 오에

알메이다 현창비 A-1

アルメイダ顕彰碑

유대계 포르투갈사람으로 의학을 배우고, 무역상인으로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예수회에 입회하여 수사가되었다. 봉고에서 사제로 육아원이랑 병원을 개설하고 일본인에게 최초로 서양의학학을 전하고, 그후 선교장 톨레스신부의 명에따라 아마쿠사등 미답의 선교지에 최초로 발을 들여놓았다. 1580년 마카오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1583년 아마쿠사에서 귀천 하였다. 시로야마 공원안의 기리시탄 묘지 앞에는 복자 아담아라카와의 현창비와 함께 어린이를 고쳐주는 알메이다의 모습을 그린 부조의 현창비가 있다.



祇園橋(天草・島原の乱古戦場跡)

A-2

기온 바시 (아마쿠사·시마바라의 난 옛 전장터)

1637년 12월 30일 가라쓰세력은 시마고에서 봉기군과 싸워서 혼도까지 패퇴하고 혼도에있던 도미오카성 성대 미야케토베에들은 전사하여, 그들의 머리는 봉기세력에 의하여 효수되었다고 한다. 마치야마구치천의 기온다리가 있는 부근이 옛 전장터인듯 하다.

●현도 44호선상 「혼도바시」 서쪽에있는 돌다리가 기온바시

天草コレジヨ館

A-3

아마쿠사 코레조관

가와치우라의 기리시탄 영주 아마쿠사씨의 비호 아래 1569년 「시키」에 이어서 「가와치우라」에 꽃핀 남반문화·기리시탄 문화를 소개하고있다.

●아마쿠사시 가와우라마치 시라키가와치 175-13 / TEL: 0969-76-0388 / 개관시간 AM9:30~PM6:00(입관은 PM5:30 까지) 휴관일 매주월요일(월요일이 축일일때는 개관하고 다음날 휴관),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 관료로: 대인1인200엔, 고교생1인150엔, 초중학생1인100엔, 단체(20명이상)2할인



富岡城址

토미오카 성터 A-6

아마쿠사가 가증된 카라쓰영주 데라사와 히로타카는 도미오카에 축성하였다. 이 성에 성주를 대신해 성을 지키는 중신이 부임하여 기리시탄을 단속하는 거점이 되었다. 아마쿠사·시마바라난에서 봉기군은 도미오카성을 포위하지만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난이 끝난 후 성은 수축되어 메이지시대초까지 막부직할지 아마쿠사의 행정의 중심이었다.

●도미오카성터·구마모토현 도미오카 비지터센터 / 입장무료 / 개장9시~17시 / 정기휴일:수요일(축일의 경우 다음날) / 아마쿠사군 레이호쿠마치 도미오카야치 혼마루2245-15 / TEL: 0969-35-0170



鈴木重成公供養碑(瑞林寺)

스즈키시게나리공 공양비 (즈이린절) A-7

초대 지방관 스즈키시게나리는 아마쿠사의 쌀의 표준생산량을 반감하여 줄것을 막부에 진정하였지만 들어주지않아서 에도의 자택에서 자인하였 다고도 한다. 사후6년이 지난 1659년, 후계자인 2대째 지방관 스즈키 시게토키의 진정으로 2만1천석으로 감소되었다. 도미오 카성에서 바다로 가는 도중에 있는 즈이린절에 1654년 스즈키시게나리의 가신들이 세운 공양비가 있다.

●아마쿠사군 레이호쿠마치 도미오카



富岡千人塚(国指定史跡)

**도미오카 천인총** (국가지정사적) **A-8**

아마쿠사·시마바라의 난 봉기군 사망자의 머리가 「나가사키, 다카키, 도미오카」의 세곳으로 나누어 묻혀졌다고 한다. 아마쿠사의 초대지방관 스즈키 시게나리 1647년 도미 오카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공양하였다. 하라성터 근처에 있는 하치만 신사경내에도 1648년에 시게나리가 세웠다고 하는 공양비가 있다.

●아마쿠사군 레이호쿠마치 도미오카



正覚寺(南蛮寺跡、キリシタン墓碑)

**쇼오카쿠절** (남잔절터, 키리시탄 묘비) **A-9**

아마쿠사 부흥을 위해서 초대지방관 스즈키시게나리의 보호 아래 창건된 절의 하나이다. 설명판에 의하면 1646년 창건한 조동종의 절이다. 1590년 세례를 받고, 「호쿠론」이라는 세례명을 받은 고즈우라씨가 세운 남반절(가톨릭교회)이 있었다고 한다. 프로이스가 지은 「일본사」의 해설에서는 성당이 있던 곳을 공터로 하고, 그옆에 절을 세웠다고 하는 전승이 있었다고 한다. 경내에는 「HS」 등의 명이있는 기리시탄 묘비등이 안치된 경당이 있고, 그뒤에는 「사제가 해외에서 갖고왔다」라고 전하는 큰 죽백나무가있다.

●아마쿠사시 아리아케마치 고츠우라 3550



近世宇土城址

**킨세이우토 성터** **A-10**

1588년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주어졌던 히고의 남쪽 반을 다스리게 된 아구스치노 고니시유키나가가 축성한 성터이다. 성을 쌓을 때 영지내 주민에게 노력봉사와 기부를 요청했지만 아마쿠사 5인중은 이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고니시는 카토키요마사와 함께 시키성과 혼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다. 1600년 세키가하라 싸움에서 고니시가 도쿠가와측에 패하여 처형될때까지 우토성을 거점으로한 고니시의 영지내는 키리시탄 안주의 땅이었다. 도쿠가와측의 기토키요마사는 우토성에서 고니시유키나가 부재중 성을 지키고있던 고니시하야토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성을 근거소로 하기 위해 개수하지만 1611년에 사망하였다. 1612년 성은 막부명령으로 파괴되었다. 또한 아마쿠사·시마바라난의 대장 아마쿠사시로는 우토마을 변두리인 「에게마을」 출신이라고 구마모토한의 가신에 의해서 예도에 보고되어 있다.

●우토서 코쥬 마치

가톨릭 나가사키대교구 인증

「나가사키」의 변동의 역사를 더듬어, 신앙을 계속 지켜온 사람들의 평화의 마음을 느낀다.

# 고토순례수첩

**5 종 세트** **¥1,200**

- 1. 순례수첩(스탬프)
- 2. 오리지널 순례 배지



- 3. 53 군데 순례 맵
- 4. 나가사키현 성당
- 5. 히라도·사세보 순례



## 고 토 순 레 란

병에 걸린 영주가 치료를 하기위해, 1562년 개항한 세이히(西彼)반도의 요코세우라 (橫瀬浦)에 있던 선 교사에게 요청한 의사에 의해서 완쾌 되면서 1566년 선교사가 건너와 고토에 복음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1614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내린 금교령 에 의해서 일본에 있던 선교사들은 추방되고, 순교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고토에도 신자의 수가 감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에도(江戸)시대 후기, 오무라(大村) 영지의 소토메(外海) 신자가 불교도를 가장하여 고토에 이주 하므로서, 고토는 다시 한번 가톨릭 역사가 시작 되었다. 사람들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치고, 자갈 투성이었던 산비탈을 일구면서 언젠가는 자유롭게 기도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머지않아, 에도 (江戸)시대 후기에 쇠국이 풀리고, 오우라에「천주당」이 지어지면서 고토의 신자들이 기다 리고 소망하는 사제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금교령이 풀리지 않았던 메이지(明治) 시 대초, 우라카미(浦上)에 이어「고토박해」가 히사카섬(久賀島)에서부터 시작으로, 고토열 도 전체로 확산 되었다. 그러나, 나가사키현 등에 서 일어난 박해는 여러나라에 전해지면서 각 나라에서 비난과 항의가 빚발 쳤는데, 마침내 1873년에 메이지 (明治) 정부는 기독 교를 금하는 금교령 껍말 을 철폐하였다. 1877년에 2명의 사제가 고토열도에 파견되어, 선 교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윽고, 고토에 건너와 필사적으로 신앙을 지켜 살아온 사람들의 자 손이 신앙의 자유를 얻은 고백으로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성당을 지었다. 그리고, 지금 고토열도는 50 여개가 넘는 가톨릭 성당이 자리잡고 있다. 이 모두가, 고토의 크리스 찬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고토순례」는, 역사를 따라가, 삶과 그 마음에 대한 생각을 알아 가는 여행이다.



## 「고토순례수첩」

〈가톨릭 나가사키대교구에서 인증한 고토순례수첩〉

(53 개의 순례지 스탬프· 1,200 엔)이 완성 되었습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나가사키 순례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1. 순례는 본래, 자기자신의 인생을 순례를 통해 파악하여 과거와 현재를 돌이켜 보아, 앞으로의 행 로를 내다보는 행위입니다. 이 순례 수첩은 어디까지나 당신이 순례자 임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응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당 입장권 이 아닙니다. 순례의 친구(동반자)로 활용합니다. 이 번 순례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 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순례자는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 예절을 가지고 (순례 에티켓 참조) 순례합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잠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3. 순례수첩은 순례의 기록입니다. 우선, 성명·주소·연락처·순례 출발지점과 년도와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4. 각 순례지에 도착을 하면 우선, 수첩에 날짜를 기입합니다. 빈 공간에는 각자의 생각 과 느낌을 적어 봅시다. 스탬프 도장은 각 성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스탬프 도장을 찾을 수 없었던 순례지는 순례 이 후에 순례센터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주십시오.
5. 고토 53 군데의 순례를 달성하면, 가톨릭 나가사키대교구의 사제로부터 순례 증명서 가 발행됩니다. 순례수첩 또는, 복사본을 나가사키순례센터로 보내 주십시오.



# 한국-일본 가톨릭 교회사 연표

일 본	한 국
카이요로 카고시마에서 히라노로	1590
피리나리오 손잡이 내릴	1579
Rici 종교 활동 도록	1583
일본 주교구 설정	1598
피리나리오 2차 내일	1590
Rici 관수실의 설립	1595
니시지마에서 26인 순교교회 모프사카에서 케오	1597
주교 베드로 노에 데데에 피라가피알의 빌	1598
Rici 육회 도록	1601
6수회 연례 서간에 조선인 전주교신자가 맞고 보고	1610
* 일본 나가사키에서 1599~1610 사이에 노에 해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노쿠기와 이데야스 근교령 활동	1614
28위 순교자 시복	1627
일본 최초의 전도사제 요시지 민소 순교	1644
오우루라 박해	1657
1651~1763	1651
1770	1770
1777	1777
1784	1784
1785	1785
1791	1791
1794.12	1794.12
1801	1801
1815	1815
1827	1827
1831	1831
1832	1832
1838	1838
1839	1839
1845	1845
1846	1846
1849	1849
1858	1858
1857	1857
1862	1862
1864	1864
1866	1866
1868	1868
1873.2	1873.2
1912	1912
1926	1926
1981	1981
1987	1987
1989	1989
2006.11	2006.11

# ながさき巡礼 나가사키 순례

発行日 2014.7.31  
발행일

編集発行 NPO 법인 나가사키순례센터  
편집발행 일반사단법인 나가사키현 관광연맹

印刷 (주) 쇼와당  
인쇄



로아노사코 순교 기념 성당



야이자 사적 공원



아리마 순교지



호코바루 순교지

## 나가사키 순례